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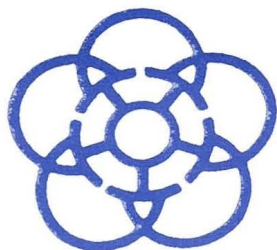
1997 第12輯

# 麟蹄文化

麟蹄文化院

# 麟蹄文化

第 12 輯



麟蹄文化院

## \* 지역문화선언 \*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 발간사

인제문화원  
원장 박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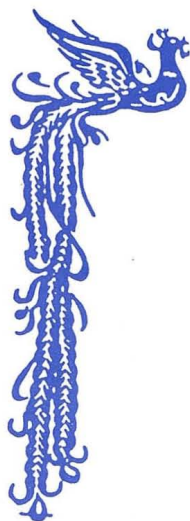
인제군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함께 꾸며 나가는 향기있는 「인제문화」지가 열두번째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간 인제문화원에서는 내고장 특성에 맞는 주체성 있는 전통문화를 정착시키고 후대에 전승시키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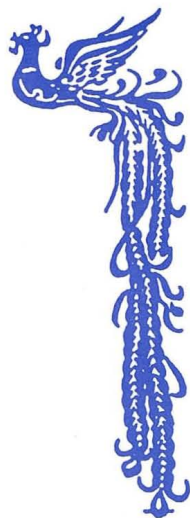
때를 같이하여 우리 고장에는 문화예술단체(동호회)가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많은 동참 속에 인제문화학교의 다각적인 강좌 운영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소양을 고취시켜 이제 인제문화는 돋보일 만큼 성장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대변지로서 「인제문화」지의 느낌이 고향을 찾는 것과, 부모님을 만나는 것 같고, 출향인에게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있는 많은 내용을 담아 문화지로서의 매체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제문화지가 더욱 우리들 마음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도록 꾸며지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제문화」 제12집을 위해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편집에 수고를 해 준 관계 직원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祝



續

刊

내린문학동인회장      한 용 운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오 정 진

인제미술인회장      정 규 련

내설악수석회장      김 기 호

향토민속보존회장      박 해 순

'97

문화 사업 확보

'97 문화 사업 화보



마을 농악기 전수('97. 2. 21)



신춘음악회('97. 3. 30)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유산보존 홍보강좌('97. 4. 16)



관외(강화군) 문화 유적지 순례('97. 4. 28~4. 29)



## '97 문화 사업 화보



강릉대 이규대 교수 초청 문화강좌('97. 6. 14)



관내(한계사지) 문화 유적지 순례('97. 6. 11)

## '97 문화 사업 확보



지방자치 2주년기념 예술단 초청 공연('97. 7. 1)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97. 8. 19~8. 22)

## '97 문화 사업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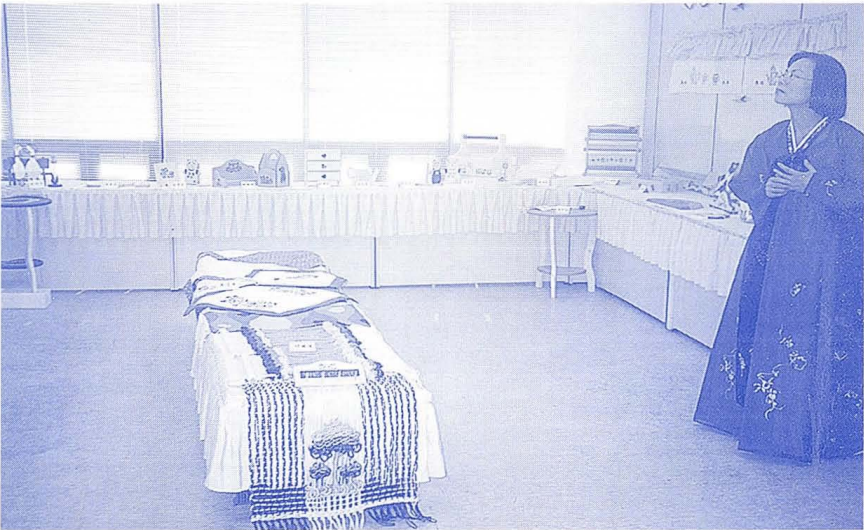


향토사료 조사(이만철 사무국장)('97. 5월~12월)



제15회 합강문화제 꽃꽂이전('97. 10. 9~10. 10)

## '97 문화 사업 화보



제15회 합강문화제 스텐실전('97. 10. 9~10. 10)



제15회 합강문화제 미술·조각전('97. 10. 9~10. 10)

## '97 문화 사업 확보



제15회 합강문화제 사진·수석전('97. 10. 9~10. 10)



제15회 합강문화제 서예전('97. 10. 9~10. 10)

## '97 문화 사업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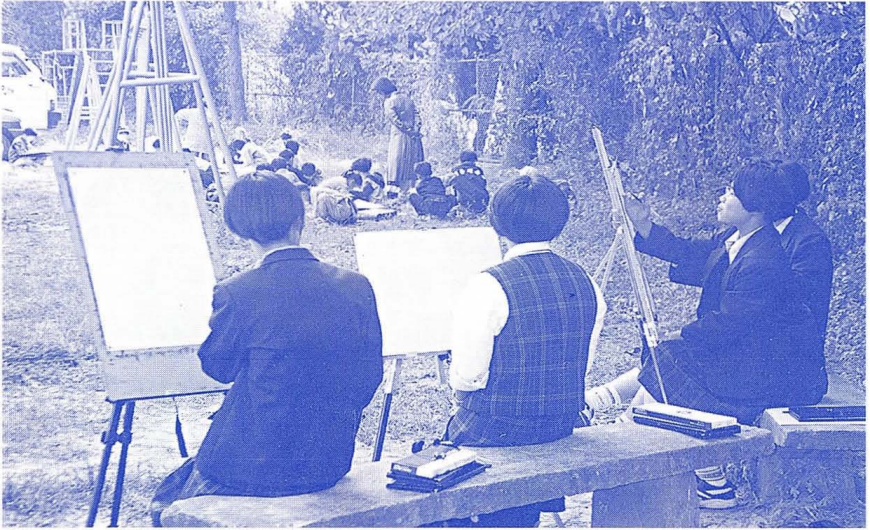


제15회 합강문화제 공예품전('97. 10. 9~10. 10)



제15회 합강문화제 백일장 및 시 낭송회('97. 10. 10)

## '97 문화 사업 화보



제15회 합강문화제 사생 실기 대회('97. 10. 10)



97년 인제 문화학교 개강식('97. 4. 1)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학교 풍물 강좌('97. 4. 1~12. 30)



문화학교 꽃꽂이 강좌('97. 4. 1~12. 30)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학교 플룻 강좌('97. 4. 1~6. 30)



문화학교 서예 강좌('97. 4. 1~12. 30)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학교 홈패션 강좌('97. 4. 1~9. 30)



문화학교 전통의례 강좌('97. 4. 1~12. 30)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사랑방 스텐실 교실 운영('97. 7. 1~9. 30)



문화사랑방 문화강좌 교실 운영('97. 7. 1~9. 30)

## '97 문화 사업 화보



문화사랑방 주부가요 교실 운영('97. 7. 1~12. 30)



제15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인제 같이남박 물레놀이 출연('97. 10. 2~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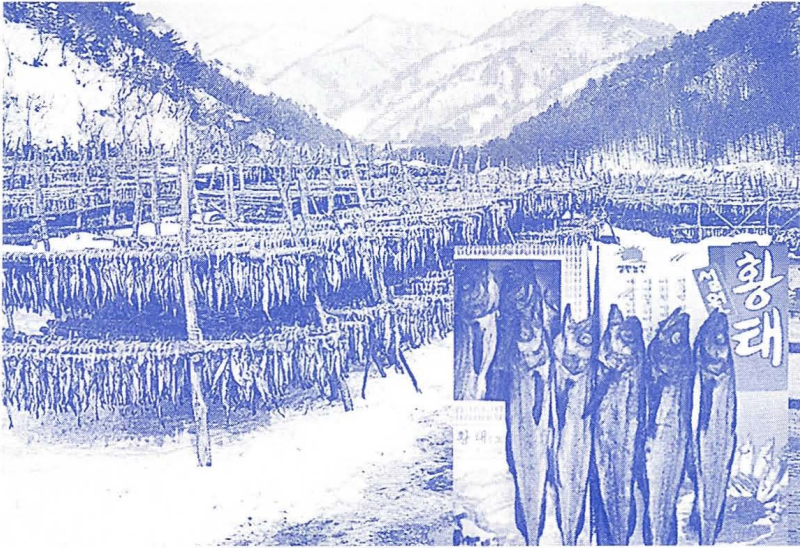
## '97 문화 사업 화보



향토사료집 출간('97. 12월)



인제문화 제12집 출간('97. 12월)



## 황 태

- 동해안 명태를 겨우내 내설악 한냉지대에서 자연건조
- 구이, 찜, 국 등으로 이용하며 시원한 맛은 숙취제거 등에 효과.

## 구입문의

- 다리골 씬터 : (0365) 462-0592
- 매봉 식당 : (0365) 462-6543
- 북설악토산품: (0365) 462-5050
- 북바위집 : (0365) 462-1571
- 용바위 식당 : (0365) 462-4079
- 진부령 식당 : (0365) 462-1877

## 인제 특산물 안내



### 치커리 : 볶음, 엑기스, 티백

- 설악산 고냉 산간지대에서 무공해 재배되는 다년생 속근초.
- 차로 이용하며 성인병 예방에 좋은 자연 건강보조식품.

### 구입문의

- 내설악 치커리 : (0365) 462-5906
- 설악 치커리 : (0365) 462-3428
- 설원농산 : (0365) 461-3996
- 인제 농협 : (0365) 462-2570
- 인제 치커리 : (0365) 461-3116



약초차: 두충, 당귀, 영지

-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원료로 하여 茶류 상품개발.
- 음료수는 물론 한약재의 효능을 그대로 간직한 건강보조식품.

구입문의

- 명진농장 : (0365) 461-3763
- 북설약토산품: (0365) 462-5050



## 인제 특산물 안내



### 전통식품: 참 · 들기름, 토속메주 · 막장, 옥수수 국수

- 순수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재래식으로 가공.
- 옛날의 고유한 맛을 간직한 우리고장의 토속식품.

### 구입문의

- 광치령 식품 : (0365) 461-2967
- 기린농협 : (0365) 461-8319
- 인제전통메주 : (0365) 461-0989



## 산 채

- 내설악, 점봉산, 향로봉 등 고산에서 자생하는 여러종류의 산나물로 가공.
- 고산지역에서 아침이슬을 맞으며 자란 산야초는 향기가 뛰어남.

## 구입문의

- 설원농산 : (0365) 461-3996
- 점봉산 산채 : (0365) 462-4691

## 인제 특산물 안내



### 썩가루(엿), 마가루, 솔잎가루

- 청정지역에서 자생하는 생썩과 솔잎으로 가공
- 피의 흐름을 도와주고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는 자연식품

### 구입문의

- 명진농장 : (0365) 461-3763
- 북설악토산품 : (0365) 462-5050
- 에덴농원 : (0365) 462-3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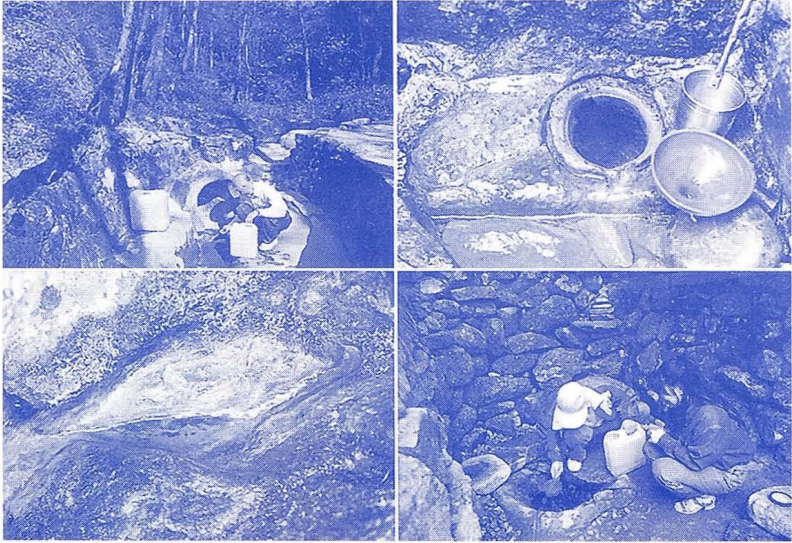
## 송어회

- 내설악의 깊은 땅 속 암반에서 솟아나는 맑고 찬물을 이용하여 양식한 송어는 신선하고 담백한 그 맛이 일품

## 구입문의

- 삼호 양어장 : (0365) 462-4395
- 두무대 양어장 : (0365) 461-1020
- 용대 양어장 : (0365) 462-9300
- 매봉 양어장 : (0365) 462-6543
- 내설악 양어장 : (0365) 461-3169
- 백담 양어장 : (0365) 462-4622

## 인제 특산물 안내



### 약 수

- 맑고 고운 깊은 산 기슭 바위틈 새에서湧출.
- 탄산, 철, 불소 등의 성분이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교통안내

- 남전 약수터 : (0365) 461-6441  
인제읍 → 남면 남전리(4km)
- 개인 약수터 : (0365) 461-1700  
인제읍 → 상남면 미산리(67km)
- 방동 약수터 : (0365) 461-5094  
인제읍 → 기린면 방동리(48km)
- 필레 약수터 : (0365) 461-4665  
인제읍 → 귀둔리·가리산리 → 필레(25m)



### 송이버섯

-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하고 적절한 습도 등 특별한 기후조건  
의 소나무 군락지에서 자란 송이버섯은 그윽한 솔향기의 맛  
이 신비스럽기도하여 미식가들에게 인기.

### 구입문의

- 임업협동조합: (0365) 461 - 2203

## 인제 특산물 안내



### 토종꿀

- 천연림이 잘 보존된 우리고장의 토종벌 보호구역안에서 1년에 한번 채취한 토종꿀은 여러종의 꽃에서 발산하는 향기가 담겨있는 최고 품질의 꿀.

### 구입문의

- 남면 수산리 : (0365) 461-6517
- 남면 정자리 : (0365) 461-6553
- 북면 한계리 : (0365) 461-3756
- 북면 용대리 : (0365) 461-5802
- 기린면 진동리 : (0365) 461-5795
- 상남면 미산리 : (0365) 461-2544



### 석공예품

- 우리 고장에서 수집한 진달래석을 정성껏 다듬어 만든 공예품.
- 예술적 감각으로 자연미의 형태를 강조한 조각품으로써 실용적인 장식품으로 인기.

### 구입문의

- 강원 석공예 : (0365) 462-9267
- 대암 석공예 : (0365) 462-4017
- 천도 석공예 : (0365) 462-3292



## 인제 특산물 안내



### 목공예품

-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희귀과목과 관솔 등을 깎아 만듦.
-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장식용품으로 애용.

### 구입문의

- 강원공예 : (0365) 461-6927
- 강원 바둑판: (0365) 461-3215
- 고려 공예사: (0365) 461-3279
- 나무랑 공예: (0365) 462-2003
- 대일 공예 : (0365) 461-8718
- 백담 공예 : (0365) 461-0377
- 민예 공방 : (0365) 461-1323
- 산경 공방 : (0365) 462-0633
- 와촌 공예 : (0365) 461-8318
- 원통 공예사: (0365) 461-3175
- 월학 공예사: (0365) 462-9434
- 인제 공예사: (0365) 461-0171
- 태일 목공 : (0365) 461-1970
- 한계 공예 : (0365) 461-8602
- 한일 바둑판: (0365) 461-5933
- 전공예연구소: (0365) 461-4142

## 목 차

발간사·박해순 .....	3
'97 문화사업화보 .....	5
'97 인제특산물 안내 .....	21

### 제 1 장 기 고 문

永失庵 史蹟에 關한 考察 - 永失庵과 三淵先生 - .....	· 최병헌/41
삶의 보람은 효행에서 .....	· 윤종옥/45
農村地域社會와 文化(人類學的 考察) .....	· 정광벽/50
어깨에 장구를 메고 .....	· 김미정/59
鐘字와 鍾字 .....	· 임광준/61
필레 약수 .....	· 김신향/63

### 제 2 장 향토문에

#### 제 1 편 - 제8회 江原道 文人 심포지엄

제1주제 / 朴寅煥의 생애와 문학 .....	· 이은무/76
제2주제 / 박인환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	· 박민수/82

#### 제 2 편 - 내린천 댐 건설반대 전국문인詩 선집

##### .....▶ 詩와 時調

인류의 盲點에서 .....	· 구 상/103
그대 녹색 강을 아는가 .....	· 고경희/105

## 목 차

내린천에 띄우는 이런 편지 .....	· 고흥렬/107
계절관측동물 .....	· 김기택/108
내린천은 침묵한다 .....	· 김란희/110
마을이 사라진다 외 1편 .....	· 김용택/111
두탄연의 열목어 .....	· 김재황/119
인제, 겨울강 · 1 .....	· 김창균/120
용화산 .....	· 길명희/121
나는 웃고 싶어요 .....	· 구찬희/123
고향 .....	· 민 영/124
再活 · 3 .....	· 박기동/125
물 .....	· 박민수/126
내린천 댐건설 반대 .....	· 박웅진/127
열병 앓는 토종 소나무 .....	· 박유석/129
藥泉가는 길 .....	· 박인옥/130
물밑 땅 마을 이야기 .....	· 박종현/131
내린천은 말이 없다 .....	· 박종화/133
맑고 고운물 흐르게 하라 .....	· 박형호/135
內麟川 .....	· 서충규/138
세상엔 온통 쓰레기만 보이더라 .....	· 성희직/140
내린천 연가 .....	· 손흥기/143
내린천 댐 건설을 규탄 .....	· 원영동/147
내린천 .....	· 이경우/149
허무제 · 38 .....	· 이수화/150
내린천의 절규 .....	· 이은무/151
물 없는 바다 .....	· 조영미/152
산(山)길을 가다가 .....	· 이은방/153
풀꽃 .....	· 이성선/155

## 목 차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	· 이상국/157
무엇인가를 가진 자들에게 .....	· 이영춘/159
내고향 美山 寸에는 .....	· 이 정/161
물뱀이기 .....	· 이충이/163
아프고 싶지 않아요 .....	· 이순자/165
고사동에서 보내는 편지 .....	· 이창준/166
산과 강 그리고 사람 .....	· 이충재/168
內麟川 너 永遠하라 .....	· 오정진/170
도리깨 .....	· 윤영희/173
오산천 하구에서 .....	· 조광원/175
麒麟은 날마다 꿈을 꾸다 .....	· 정정조/177
환경詩 · 1 외 1편 .....	· 정연휘/179
이런 숲을 만들려면 .....	· 장승진/181
배회하는 합강(合江) .....	· 조해숙/183
망초꽃밭을 지나며 .....	· 지영희/184
관대리 사람들 .....	· 최관용/185
툽 .....	· 최광호/187
점봉산(點鳳山) .....	· 최단천/189
내린천은 한강의 어머니 .....	· 최돈선/191
지구를 살리는 작은 씨앗 .....	· 최복형/194
흐르는 것은 저대로 흐르게 하라 .....	· 최병현/196
저질의 시대 .....	· 최창우/198
내린천 .....	· 최인홍/200
자연은 자연대로 있게하라 .....	· 황금찬/202
이 새를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	· 함동선/205
內麟川 .....	· 한용운/207
내린천 외 1편 .....	· 허 림/209

제 3 편 - 제3회 '97년 환경 문예공모 입선집

.....▶ 詩

환경을 위한 기도 .....	· 김성진/213
봄산을 오르며 .....	· 신혁수/214
아낌없이 주는 나무 .....	· 이봉로/215
하늘색을 모르는 아이들 .....	· 황 철/216
지금도 옛날처럼 .....	· 이지은/218
무언의 소리들 .....	· 이세인/219
자연의 호소 .....	· 김소미/223
그런 자연을 .....	· 박선희/224

.....▶ 수필

군에서 느낀 우리의 자연 .....	· 김완옥/225
서화천 물고기 .....	· 전 진/229
죽음의 문턱에 .....	· 오은정/231
작은 파수꾼 .....	· 고상순/234
방태산 휴양림을 다녀와서 .....	· 이지영/237
우리가 할 수 있어요 .....	· 전희선/240
창밖을 내다 보자 .....	· 최성모/244
솔밭에서의 하루 .....	· 이명섭/248
녹색환경반 이야기 .....	· 손진숙/251
더러운 강물 .....	· 문소라/255
역지사지 .....	· 송지혜/257
화가 난 하이에나 .....	· 홍지현/260
걸으면 낫는 병 .....	· 고성훈/262

## 목 차

소중한 나무 .....	· 김성훈/265
미래의 환경파수꾼 .....	· 류안나/268

### 제 4편 - 향토문예 기고편

#### .....▶ 詩

꿈꾸는 씨알 .....	· 한용운/273
세월을 살고 또 갈때 .....	· 한용운/274
석류 꿈 없이 .....	· 한용운/275
그리움보다 한 번 더 찬란한 고백 .....	· 윤영희/277
光明 .....	· 윤영희/278

#### .....▶ 수필

외길인생 .....	· 서충규/279
------------	-----------

#### .....▶ 단편소설

그림자 .....	· 장정섭/284
-----------	-----------

### 제 5편 - 향토 등단 문인 소개

▶ 오정진 - 淸脈文學 詩 등단 .....	/ 309
▶ 서충규 - 文學世界 詩 등단 .....	/ 319
▶ 윤영희 - 文學世界 詩 등단 .....	/ 325
▶ 이 정 - 文學世界 詩 등단 .....	/ 332
▶ 서충규 - 文藝思潮 수필 등단 .....	/ 343

## 인제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인제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하실 회원(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자격 : 인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신청서류 : 1) 입회원서 1부(문화원에 있음)  
2) 반명함사진 1매

▶접 수 처 : 인제문화원(461-667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 직접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기 고 문





# 永失庵 史蹟에 關한 考察

— 永失庵과 三淵先生 —

최병헌

## I.

영시암은 백담사의 부속암자로 백담사에서 동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4km정도 오르다 보면 길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사찰은 1992년 백담사 주지 김도중(金道中)에 의하여 복원되었으나 단청도 되지 않고 주변정리가 부실하여 보기가 민망하다.

그러나 남쪽으로는 조원봉(朝元峰)이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청룡봉(靑龍峰)이 자리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한 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시려서 참아내기가 어려운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어 참으로 아담하기 이룰데 없는 경승지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뒷켠 가파른 산길을 잠시 올라서면 오세암으로 가는 길과 수렴동 대피소를 통해서 쌍폭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곳에 잠깐 앉아 숨을 돌리노라면 자연과 내가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암자는 삼연(三淵)김창흡 선생이 창건하였는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기둥높이가 덕수궁 보다도 높다고 하여 조정에서 낮출 것을 종용하여 기둥을 잘라내 낮추었다는 설화(說話)로 이름이 나 있다.

창건 연대는 여러가지 기록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시암의 창건 연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II.

각종 자료에 의하면 영시암의 창건연대는 세조14년(1468년), 인조26년(1648년), 숙종37년(1711년)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본인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자료를 제시하면 세조14년(1468년)으로 표기된 자료는 1980년에 인제군에서 출간한 『인제군지』와 1996년에 출간한 『인제군사』, 같은해 한림대 박물관과 인제군이 공동으로 발굴조사 정리한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있고, 인조26년(1648년)으로 표기된 자료는 『백담사사적』과 1995년 인제문화원에서 출간한 『인제의 유적, 지명, 전설』보완편이다.

숙종37년(1711년)으로 된 자료는 1996년 인제문화원에서 출간한 『내고장 인제마을제(祭), 인물, 시조와 시』의 인물편중 김창흡에 관한 소개 자료인데 1988년 교육도서에서 펴낸 『국사대사전』개정증보판 내용을 인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나 창건자가 삼연, 김창흡이라는 것만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삼연(三淵)선생이 창건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삼연선생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창건연대를 알아보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 믿어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삼연 선생은 효종4년(1653년)에 태어났다. 자는 자익(子益)이고 안동인(安東人)이다. 조선조 좌의정을 지낸 상헌(尙憲)의 증손이고, 영의정 수황(壽恒)의 셋째 아들이다. 위로는 창집(昌集), 창협(昌協) 두 형이 있다.

15세가 되던해에 이단상(李端相)에게서 수학하였고, 현종14년(1673년) 진사(進士)가 되고, 숙종11년(1684년)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숙종15년(1689년)의 기사환국(己巳換局)때 부친이 진도의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자 형 창집과 함께 경기도 포천 백운산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숙종20년(1694년) 3월에는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정국이 바뀌자 형 창집은 벼슬이 우의정과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삼연선생은 경기도 가

평균 외서면 수입리로 옮겨 은거하며 지냈다. 그후 다시 인제군 복면 백담사로 들어와 후학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다. 경종 원년(1721년)에 세제시강원진선(世弟時講院進善)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는데 그해 12월에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인하여 형 김창집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5월에 사사(賜死)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삼연선생도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病死)했다.

이상 삼연선생의 생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영시암의 건립연대가 세조 14년(1468년)이거나 인조26년(1648)이라는 설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데 있다.

『인제군지』와 『인제군사』 명승고적 편을 보면

〈— 1691년 설정선사(雪淨禪師)가 가시덤불에 묻힌 이 암자를 민망히 여겨 여러 대신들과 도감찰사, 그 밖에 공의 덕을 흠모하는 모든 선비들과 주민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암자를 재건하고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법당이 24칸 비각이 1칸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691년에는 선생께서 경기도 포천 백운산에 은거할 때이고, 영시암이 창건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백담사사적』 자료를 그대로 인용 해석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서 설정선사가 재건하였다는 1691년은 불기(佛紀)로는 2718년에 해당하고, 간지(干支)로는 신미(辛未)년으로서 『백담사사적』 〈백담사속암일람〉 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담사사적』 다른 편에 보면, 2716년(佛紀를 말함) 기사(己巳)에 인제군수 이광구(李廣矩)가 삼연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는 기록과 1843년에 간행된 『인제읍지』 읍선생안(邑先生案)을 보면 군수 이광구는 을축(乙丑 1745년) 3월에 도임(到任)하고, 기사(己巳 : 1749)년 8월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불기(佛紀) 2716년은 서기(西紀) 1689년으로 이광구 군수 재임 마지막 해인 1749년과는 6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옛 기록들이 대부분 간지(干支)를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 볼 때 기사(己巳)년은 불기(佛紀) 2776년으로 기록 되어져야 했음에도 간지(干支)를 잘못 계산해서 불기 2716년으로 오기(誤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설정선사가 영시암을 재건하였다는 1691년은 불기(佛紀) 2718년인 바 이 또한 불기 2778년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백담사 사적』의 〈삼연 김선생 영시암유적지비〉 편에 선생이 사망한지 27년 후에 인제군수 이광구(李廣矩)가 비를 세웠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설정선사가 영시암을 재건한 연대는 서기 1751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제는 영시암의 건립연대를 알아 볼 일이다.

『백담사 사적』의 <삼연 김선생 영시암유적지비> 편을 보면,

<삼연선생께서는 기사환국(己巳換局), 갑술옥사(甲戌獄事) 등 내우(內憂)가 끝나는 을유(乙酉 : 1705)년에 설악산 백담사에 들어와 3년을 지내고 벽운사(碧雲寺 : 壁雲樓) 옆에 정사(精舍)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냈다. 기축(己丑 : 1709)년에는 다시 절에 돌아왔다가 동쪽에 있는 조원봉(朝元峰) 북쪽에 큰 판자집을 짓고 상주(常住)했는데, 이 사우(舍宇) 이름을 영시암(永矢庵)이라 했다. 6년이 되는 해 찬모가 범에 물러가자 선생께서는 춘천의 곡운(谷雲)으로 떠났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산한지 6년이 되는 해이면 숙종37년 신묘(辛卯 : 1711)년으로 삼연 선생이 백담사를 떠던 해다.

### III.

영시암 사적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는 앞에 열거한 바와 같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영시암 사적을 재정리하면

<영시암(永矢庵)은 숙종35년 기축(己丑 : 1709)년에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이 창건하였으며, 영조(英祖) 27년 신미(辛未 : 1751)년 설정선사(雪靜禪師)가 재건(再健)하였다. —>

또한 삼연 선생과 영시암의 관계 일지를 정리하자면,

- 『선생께서는 을유(乙酉 : 1705)년 백담사에 들어왔으며 벽운사(碧雲寺)곁에 정사(精舍)를 세우고 그곳에서 생활하시었고
- 기축(己丑 : 1709)년에 잠시 백담사로 돌아왔다가 동쪽 조원봉(朝元峰) 북쪽에 판옥(板屋)을 세우고 그곳에 상주(常住)했는데 이름을 영시암(永矢庵)이라 했다.
- 신묘(辛卯 : 1711)년에는 거느리고 있던 찬모(饑模)가 범에 물려 가고 선생께서는 춘천으로 떠나갔다.』

로 되어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료(史料)로 관리해 오던 잘못된 자료들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착오나 과오로 인한 잘못된 무게나 크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잘못된 잘못이 점증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실치 못한 역사는 선부르게 바로잡기 보다는 확실치 않는대로 전해 지더라도 가필(加筆)이나 정정(訂正)을 하지않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본다. 필자 또한 이 글을 쓰며 그런 오류(誤謬)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죄스러운 마음까지 느끼면서도 이 고장의 유적(遺蹟)인 영시암의 기록에 대한 연대 표기만은 오기(誤記)임이 분명하기에 나름대로 사견(私見)을 제시하면서 논지(論旨)의 문을 닫는바 뜻있는 분만 참고하기 바란다.



## 삶의 보람은 효행에서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244

윤종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대 부족사회에서 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인간생활의 제일되  
는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특히 효(孝)의 사상은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도리로서 규범적인 형식을 갖추어 온 지극히 자연 발생적인 풍  
습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미풍  
양속이라 일컬어 변화무쌍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국민교육 지도  
이념과 행동지표, 더 나가서는 규률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70년도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농  
경사회의 가족 중심적 삶의 터전이 차츰 무너지면서 새로 등장한 새마  
을 운동과 함께 공업화 및 산업화 사회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탈바꿈되어 왔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새로운 의식의 도시화 사회로 가는 생활을 겪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를 맞아 인간 관계를 일면적, 기능적 관계  
로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경원시하게 되는 인간소외 현상의 병리를 낳  
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도의가 점차 쇠락되면서 인심이 파괴되고, 자연히 핵  
가족 가정에서 이유없이 노인들이 거리로 쫓겨 나앉은 인간 가치관의  
약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성 회복이 요원함을 가슴 아프게 느끼며, 많은 생각을

더듬어 보게되는 요즈음. 도덕적인 삶의 지표를 잃고 방향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는 尹鍾旭씨의 효행이야말로 많은 감흥과 우리 인간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되고도 남으리라 믿는다.

윤종욱씨는 1956년 2월 4일 부친 尹吉龍, 모친 安貞順 여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244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겨우 세살이 채 되기도 전인 몹씨도 추운 겨울 늦은 저녁무렵, 사랑하는 모친을 여의었고, 이 어린것 때문에 할 수없이 맞아드린 계모 金貞愛 여사 슬하에서 매우 어렵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계모 金氏는 심덕이 매우 착하고 친, 인척은 물론 이웃간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분으로 일찌기 생모를 잃은 종욱이를 자기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끔찍이 보살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 부터 가정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계하며 키워주신 참으로 고마운 어머니중의 한 분이시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계모를 잘 따르며, 웃어른께 인사 잘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온 관계로 부락내에서 한결같이 착한 어린이, 모범청년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하추리 마을에 들어서면 이웃부락과는 달리 청소년들이나 청장년들 모두가 선-, 후배 사이에 반말을 하거나, 맞담배를 같이 피우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까지도 취중이거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절대로 없음을 보게 된다.

요즈음은 인제 어디를 가든지 “內麟川댐”건설반대 및 환경보존 문제로 주민 누구나 할 것없이 댐반대 투쟁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그저 전전공공하는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치를 떨며, 전율하고 있는것을 보게 된다.

하추리 주민들의 내린천댐 반대하는 그 열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뜨거울것 같다.

이 內麟川 강변 외진곳에 소재한 下楸里는 인제읍 소재지에서 기린 방향으로 31번 국도를 따라 동방 19km지점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54가구에 주민 204명(남자 108, 여자96명)이 웅기종기 산재된 지역에 모

여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전래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東面지역으로 추동(楸洞)아래쪽이 되므로 이 마을을 楸洞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개편시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미, 박수터, 터디미, 셋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下楸里라 하였다고 한다.

자연히 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순박하고 이웃끼리 화목한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청소년, 청장년들이 세태에 때문지 않고 끈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도내에서는 범죄없는 마을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이 마을로 들어서는 마을입구에는 “범죄없는 마을”이란 간판이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뚝 서 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런가하면 청소년회로 하여금 30여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부락 영농일지”를 쓰고 있는 마을로 각종 매스컴을 통한 지상보도나 T.V화면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인제군청과 인제읍에서만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필자가 근 10여간 하추리 부락을 담당하면서 자연히 효자로 소문이 나있는 종욱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밀히 내사를 하고는,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효행자라고 믿어, 1990년도 초에 직접 공적서를 작성한바 있었으며, 그후 오늘까지 늘 가까운 거리에서 존경도 하고 격려도 하며, 이웃과 만나는 읍내 주민들에게까지도 윤종욱씨를 자랑하면서 살아온 자신을 발견할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보다도 계모의 깊은 사랑과 정을 받으면서 자라온 종욱씨의 계모에 대한 효성이 그에 못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종욱씨는 새마을지도자를 겸해 1989년부터 5년동안 하추리 이장을 맡으면서 부녀회 지원강화, 자연보호운동, 마을안길포장, 교량가설, 노인정 개·보수, 폐품수집, 농로개설, 농산물 집하장 설치 등 오직 부락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부녀회를 통하 1가구 1통장 갖기 저축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부채없는 모범 마을을 육성하였다.

또한 1994년에도 청년회장과 영농회장을 맡아 청소년선도 육성지도와 마을문고 확장, 선진 영농기술 보급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79년 6월 6일 윤종욱씨는 같은마을에 살고 있는 咸陽朴氏 朴壽萬



가의 참한 규수 朴基在(37세)와 결혼을 하였다.

일찌기 朴壽萬 옹은 가끔 인제읍내로 나오실때면 의례히 필자의 부친과 친분이 두터워 늘 약주 몇잔씩 하시고는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던 분으로 몇번인가 필자가 朴氏가를 방문했을적에 예쁘장하게 곱게 크는 朴基在를 눈 여겨 본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혼하게 됨에 따라 정말 좋은 신랑, 신부의 만남이라고 믿었었다.

부인 朴氏도 물론 훌륭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과 철저한 가정 교육을 받은 규수로 성장하였고, 그 같은 부덕이 출중하여 한 가정의 맞머느리로 조금도 손색없이 시가의 가문을 크게 이루며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굳굳이 이어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계모 金氏는 우리민족사에 가장 어렵고 암울하였던 시기에 尹吉龍가에 출가하여 일제치하와 동족상잔의 6.25같은 격동기를 지나오면서 전처자식과 친자식 9남매를 키워왔다. 어려운 가정살림과 감내할 수 없었던 전염병 등으로 전처자식 2명을 잃어버리는 가슴 쓰라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온 관계로 그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

지병인 중풍으로 8년간 병석에 누웠을 때에도 늘 곁에는 사랑하는 자식 종육이와 며느리 朴氏가 있어 극진히 병간호를 하였으며, 그간 중풍에 좋다는 약제는 구할 수 있는대로 다 구하여 달여 올린 탕제가 그 얼마나 많겠는가?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 치료하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왔던가? 특히 3년이 넘도록 몸져누워 밖의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얼굴 단 한번 찡그리지 않고, 계모의 병구완은 오직 자기 자신이 하여야 할 도리라는 신념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환자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목욕과 의복을 자주 빨아 갈아 입히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다.

부친 尹吉龍 옹은 부인을 일찌기 사별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맞이한 둘째 부인 金氏마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삶 속에서 새삼 인생의 덧없는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초대 하추리 노인회장으로 차츰 가족과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이웃노인들의 대변자로 각 가정마다 “노인잘모시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청소년 선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사업에 앞장서서 노인정 건립후 노인정을 청소년 교육

장으로 활용토록 했다. 그런가하면 영세민 가정과 결손가정들의 뒷바라지에도 남모르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뇌졸중으로 1997. 4. 5 하추리 본가에서 향년 90세로 돌아가시기까지 윤종욱씨내외는 부친이 부락의 지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장수하신다는 생각에 늘 곁에서 심신을 위로하고 섭생(攝生)생활에 많은 자금을 들여 봉양했음을 어찌 다 글로 기록할 수 있으리요.

그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적인 열과 성실한 부락 육성지도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인재군수 표창 3회, 인재군 농촌지도소장 표창 2회, 강원도지사표창, 일하는 농민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특히 1990년 제19회 아버지의 날에는 서울 세종문화관에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받은 효자중의 효자이기도 하다.

가족으로는 슬하에 3녀가 있으며, 장녀 周美는 현재 인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으로, 이제 얼마 안남은 수능시험과 대학입시를 차분히 준비중이고, 둘째 周順이도 인제고등학교 1학년에, 그리고 셋째딸 周榮이는 인제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데 이들 모두 부모님의 착한 심덕을 이어받아 급우간의 교우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모범생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형제로는 큰 누님 玉順氏씨가 이웃인 하추리 2반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둘째 누님 玉洙씨는 춘천시에 살고 있고, 남동생 鍾南은 1983년도 李順花와 혼인하여 역시 이웃인 하추리 2반에 분가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현재 청년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고 막내 동생 鍾國이는 95년도에 안화춘과 결혼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에서 보일러 기능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이웃과 화목하고 웃어른들을 높이 받들어 공경하며, 선진 농업을 접목하여 손수 답 3,100평, 전 4,900평을 경작하는가하면, 늘 청소년들에게 효행을 가르치고, 자녀들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종욱씨내외분을 방문했던 필자의 마음과 그 돌아서는 발걸음이 왜 한결같이 가벼웠을까(?)

(필자: 내린문학회장 韓龍雲)

## 農村地域社會와 文化(人類學的 考察)

지역문제연구소  
정광벽

“文化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가장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한 人間集團의 生活樣式이다”라는 대답일 것이다. 이 점은 ‘知性’, ‘知識’, ‘開花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따라서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의 일상생활을 상상해 보자. 우선 그들이 쓰는 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택, 의복, 음식의 종류, 요리방법, 음식을 먹는 방식, 친족조직, 신앙, 조상에 대한 태도 등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이 중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고, 그들이 각기 그 사회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힌 것들이다. 이 모두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들이고,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통 또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행동 및 사고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양식을 우리는 문화(Culture)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각기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바로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타일러는 그의 저서 『原始文化』(Primitive Culture, 1871:1)에서 文化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표하는 複合總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지금까지 문화에 관해서 내려진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하나의 고전적인 정의에 속한다. 다른 견해는 ‘인간은 상징(Symboling)을 할 수 있는 유일한 動物’임에 유의하여 이것이 바로 文化的 기초라고 파악하고 있다.

화이트(Leslie A. White 1977)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이를 외계에 있는 사물과 사건들에 부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의미들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화이트가 즐겨 듣고 있는 聖水는 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성수는 보통의 물과 구별될 만한 아무런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수는 보통의 물이 아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부착된 의미는 감각으로 포착 될 수가 없다.

예컨대 성수의 의미는 냄새로, 맛으로 또는 눈으로 보아서나 손으로 만져서 포착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그 가치를 믿는 수많은 고인들에게는 어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고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고유의 상징행위에 기초한 사물 및 사건들을 화이트는 象徵物(Syumbolate)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곧 文化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사물 및 사건들 자체가 바로 文化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고려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화이트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상징물은 인간 유기체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인간 유기체와의 관련없이 단지 한 상징물을 다른 상징물과의 관련(신체 외적인 맥락)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신체 외적인 맥락에서 상징물들을 고려했을 때 화이트는 그것을 文化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상징행위에 의거한 사물 및 사건들을 신체 외적인 맥락” 즉, 인간 유기체와의 관련에서보다는 다른 상징물들과의 관련에서 고려했을 때 그것을 “文化”라고 부르고 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그들은 서로 말(Speech)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행동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다.

즉 말은 어떤 규칙에 의거한 소리들이다. 만약 그것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단어들만을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는다면 말의 뜻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대화는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각기 우리는 말의 뜻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게끔 소리를 내고 그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배열하는 규칙 또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문화의 한 부분인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관념적인 영역을 조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동 그 자체 (Patterns of Behavior)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위한 또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Patterns for Behavior)가 곧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親族呼稱을 예로 들면 우리는 사촌을 친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냥 ‘사촌’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체로 친사촌(아버지의 형제들의 자녀)을 지칭하고 있다. 영어권의 사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사촌들에 대한 구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父系親族制度에 의거해서 나와 같은 친족 집단에 소속한 친사촌을 다른 사촌들로부터 구별하는 규칙이 친족호칭에 반영되어 있지만 서양사람들에게는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의 사촌들에게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똑같은 태도로 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사람들과 서양사람들 사이에 상이한 행동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관념론적인 전망에 의하면, 이런 친족호칭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규칙의 차이에서 나온 것임에 유의하여 그런 규칙들의 체계를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文化는 共有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어느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며 어떤 사람들은 꽃가꾸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취향 또는 버릇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의 이런 개인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위에서 다른 집단의 것과 구별될만한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

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이 아닌, 이런 공통적인 경향을 우리는 文化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가 個性(Individuality)을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행동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는 집단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Shared)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에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下位集團들(Subgroups)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下位文化(Subculture)로 한 사회집단의 특수한 부분 또는 영역에서 다른 것과는 구분될 만큼 특이하게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우리는 下位文化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는 都市文化와 農村文化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연령집단에 따라 青年文化와 老人文化 특정 사회집단의 것인 大學文化 지역적으로 島嶼文化, 山村文化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湖南文化, 嶺南文化 등과 같은 특정지역의 文化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그 각각에 고유의 또는 지배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 그것들이 모두 韓國文化라는 큰 우산 밑에 있으며 한국문화의 일반적인 요소들 예컨대 言語, 衣, 食, 住 生活 등과 같은 전통 문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전체로서의 한국문화중 下位文化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文化는 學習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체질적인 특성을 예로 들어도 좋겠다. 우리 한국인들은 몽고인종으로 분류된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백인들의 금발과도 흑인들의 곱슬머리와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문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또한 매일 식사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러나 식사하고 잠자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문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생물학적인 특성의 하나이고 식사하고 잠자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의 일부이다. 즉, 공유된 것이 모두 문화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學習된(Learned)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은 특정의 文化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습할 능력

만을 갖고 태어난다. 그가 그런 능력으로 어떠한 문화를 학습할 것인지는 성장과정에서 그가 접한 문화적인 환경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言語는 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사람은 한국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천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익힌다. 간혹 우리는 고국을 방문한 재일 또는 재미동포 2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극히 서투른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발견한다. 그들은 일본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유년기부터 社會化(Socialization)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된 것이다.

셋째, 文化는 蓄積的이다.

인간행위의 대부분이 학습된 것이지만, 학습이 인간 고유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제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의 행위에서도 학습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인류와 체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원숭이와 유인원들의 사회에서 이런 학습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졌다.

1953년에 일본의 원숭이 집단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관찰한 바의 원숭이들의 학습행위는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Itani : 1961) 그들은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한 섬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원숭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모래와 흙물은 고구마를 먹이로 던져 주었다. 그때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움켜쥐고 털에 문질러 흙과 모래를 닦아내고 나서 먹었다. 어느 날 그 중의 한 마리가 던져준 고구마를 움켜쥐고 달아나다가 해변가에서 바닷물에 떨어졌던 바흙과 모래는 깨끗이 씻겨지고 오히려 먹기 좋을 정도로 짭짤한 맛까지 추가된 고구마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하게 얻어진 하나의 사실적인 지식이었다. 수년 후에는 결국 그 원숭이 집단의 80~90% 원숭이들이 먹이만 던져주면 가능한 대로 많이 움켜쥐고 가까운 민물의 냇가를 두고도 멀리 바닷가로 달려가 씻어 먹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리의 원숭이에 의해 얻어진 사

실적인 지식이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하여 학습되었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의 경우 윗세대의 경험적인 지식은 상징적인 수단인 言語, 컴퓨터 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축적된다.

넷째, 文化는 하나의 全體를 이루고 있다.

한 사회집단의 文化는 타일러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文化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작위로 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全體(a whole) 또는 體系(system)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文化를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해도 좋겠다. 자동차의 엔진은 수많은 부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속들은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全體로서의 엔진을 작동시킨다. 엔진의 부속품 하나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엔진은 결국 멈추게 된다. 엔진과 같이 한 사회의 文化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복잡하고도 놀랄만한 방식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거나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급속한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변모를 수반하였다.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발전된 과학기술적인 지식은 도시의 공업분야에 응용되었고, 공업생산부문에 더 좋은 생존기회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어 도시의 인구과밀현상을 빚어냈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농촌은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촌은 이의 해결방안을 적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의 기계화' 및 '과학적인 영농'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고,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도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섯째, 文化는 항상 변한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文化는 결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文化의 축적적인 성격과 연속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文化가 100년, 200년 또는 1,000년 전의 文化와 같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



리는 오늘의 문화가 어제의 문화와는 다르다거나, 우리는 매일 상이한 문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고대 로마문명이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도, 하루만에 망한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하루만에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넓혀서 장기간에 걸친 문화과정을 보면 문화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변모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한 사회의 문화는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였다. 이 구성부분들을 음악의 연주곡속에 비유하여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레퍼토리(cultural repertoir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레퍼토리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생각하며, 생활해 나간다. 그러나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며 그 사회의 레퍼토리는 변해 나간다. 즉, 역사상 특정시기의 레퍼토리는 그 후 수백 년 후 어느 시기의 레퍼토리와는 상이한 세트(set)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자간에는 극히 일부나마 동일한 문화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문화요소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소멸되어 버렸거나 단지 ‘文化遺産’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크게 변동된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문화요소가 등장하여 후기의 레퍼토리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두 시기의 문화적인 레퍼토리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문화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항시 새로운 해결방법을 시험한다. 어떤 사람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이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것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전체사회에 확산된다. 이런 식으로 革新(innovation)들은 그 사회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고 굳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들은 문화의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변동을 유발하게 되어 전체로서의 문화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변동의 원인이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문화변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문화간의 접촉으로 전파되

어 들어온 문화요소가 기존의 문화요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문화의 변동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외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변동은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이에 地域開發과 文化는 발전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많으며 투자의 정도, 공업화의 정도도 다르다.

그리하여 지역간의 격차는 국가통합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소위 낙후된 지역에 개발정책과 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삶의 條件을 향상시키고 다른 기존의 개발지역과 평준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國家的統合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부분인 제3세계의 정부들이 農村業化를 계획할 때 취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입장은 첫째 농민사회의 기존체계 내에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生産性 및 농민의 生産組織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둘째는, 농업경제 및 사회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이룩하려는 것으로 기존체계의 적용범위, 생산기술, 사회와 법적인 구조를 변형시키려고 한다. 새로운 토지소유체제 실시, 새로운 주거지역 건설, 농장시설의 추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두 접근방법은 사실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많은 사회에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따라서 농촌의 개발에는 문화의 意味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그 정책수행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다.

동시에 開發이란 명목으로 실천되는 변화가 사람들의 삶의 意味와 質을 평가하고 즐기는 그들 고유의 文化的 裝置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촌의 변화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농민사회에 독특한 人間關係의 類型과 性格, 市場과 놀이의 사회적, 경제적 意味와 本能, 농민의 심리상태와 행동유형을 그것이 형성하게 된 사회, 문화적 裝置를 보존하던가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형태의 것으로 대체하면 병행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오늘날 제3세계의 農業開發政策은 換金作物 栽培 및 農業의 高品化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한편으로 生計維持의 수단으로서의 농업과 생계유지 수준에만 머물러 온 농업으로부터 현금수

입을 위한 企業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換金作物은 外部시장경제에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그리하여 외부經濟構造에 의하여 農產物價格이 결정되며 이는 종종 농민에게 불리한 입장을 가져다준다. 특히 工業化와 産業化를 우선적인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후발국에서는 농업은 자칫 외부시장에 종속되게 만들기 쉽다. 더욱이 世界體制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적으로 강대국 등의 수요와 공급전략에 의하여 후발국의 영세민들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어 또다른 형태의 新植民地的 경제구조가 형성될 위험이 있게된다. 이에 우리의 문화와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통, 관습, 제도, 의식의 형성이 지역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문제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 어깨에 장구를 메고

풍물반 수강생  
김미정

장고가 울리면서 판굿이 한판 벌어진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제법 판굿의 소리가 어울어 짐이 대견스러우면서 새삼 첫 날이 생각난다.

해가 어둑 어둑 해질무렵 문화원 2층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르며 첫 날부터 지각이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삼십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한번도 만져보지 못한 북이며, 장구며, 쇠등을 접한 첫 만남은 설레임이었다.

그렇게 풍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내 몸에 악기가 익숙해져 갔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른 모든 스케줄을 접고 문화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즐겁다.

선생님의 열성과 회원들의 열의가 모여 아직 미숙하지만 이곳 저곳 행사에 참석도 하곤한다.

맨 처음 장구를 메고 길거리를 나설 때 그 기분은 참 묘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앞에 선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풍물반은 특히 나이많은 분이 많아서 발맞추기부터 시작해 아이들 걸음마 하듯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가락 하나 하나 소리가 맞추어질 때는 우리모두 자신에게 기특해 하기도 한다.

만남을 소중히 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언제나 어울림이 최선이라는 또, 화합이 최고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회원들 가슴마다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신나는 한판 판국이 끝난후 뒤풀이의 곡차 한 잔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 주는가 보다.

수업이 끝나고 이젠 완전히 어두워진 밤거리로 나올때면 다음 수업시간이 기다려짐은 당연한 마음들일 것이다.

『올림패』라는 이름대로 언제나 우리가락이 모두의 가슴속 깊은곳까지 울려 잊혀지지 않는 꿈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997. 9. 22.

## 鐘字와 鍾字

임광준

무척많은 사람들의 이름가운데 鐘(쇠북종)字가 들어있다. 요즘 일간신문(물론 요즘뿐 아니지만) 雜誌, 문패, 碑文, 심지어 書藝作品들 中에서도 거의 모두가 쇠북종(鐘)자를 써야 할 곳에 술잔종(鍾)字를 쓰고 있다.

筆者도 쇠북종자와 술잔종자를 구별하여 쓸 줄 몰랐고 관심조차 없어 거의 술잔종자를 많이 써 왔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東方研書會의 探究過程(서울낙원동 수은회관 5층 소재)에 入門하게 되면서부터 漢字(東方文字)에 對한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되었다. 거기에서 世宗大學의 陳泰夏 博士의 講義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漢字라 하지않고 東方文字라고 강조하면서 이 漢字는 中國에서 빌려온 글자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 祖上들의 얼과 文化가 담긴 글자가 많아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옛 글 古한글이요 東方文字라고 불러야 타당하다고 한다.

同時에 漢字를 異邦文字親히다던가 어렵다고 멀리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영원한 무식쟁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서두에 지적했듯이 우리는 거의 모두가 동방문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鐘字나 鍾字도 區別 못하고 태연히 쓰고 있는 것이다. 시중의 웬만한 사전을 찾아보면 鐘은 “쇠북종”이요 鍾은 “술잔종”으로 나타나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자녀는 이 다음에 커서 종과같이 널리 올리면서 훌륭하게 되라는 뜻에서 쇠북종(鐘)자를 넣어 作名해 주었것만 무식

의 소치로 “술잔중(鍾)”자를 바꾸어 써 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가?

세계에서 가장 술잘먹는 민족으로 부각한 것 말이다.

오늘은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鐘字와 鍾字를擇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오자를 아무 생각없이 남용하고 있는 실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모처럼 紙面을 빌렸기에 漢字(東方文字)가 우리 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람과 보석을 찾아낸 희열을 금치 못했다. 陳義夏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친런다. 그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文字學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희열했다는 것이다.

然(그럴연)字를 보자! 개고기를 불에 그슬린다는 뜻이 아닌가? 그 맛에 아주 좋아서 “그럴연”이라고 지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 먹는 민족이 어디인가?

세계 어떤 곳에 가 보아도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然字”를 만들어 낸 사람은 당연히 한국토종(東方民族)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비단 然字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漢字 풀이에서 이와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여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 먹는 일을 계속하자... 그럴듯한 그 맛이야 한국토종 밖에 누가 알겠는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도 東方文字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서 初等學校때부터 東方文字를 배우고 익혀야 世界人의 한 몫을 다 할 것이고 고한글(漢字)을 배우면서 참된 人間性教育을 하게 될 것이다.

어렵다고 남의 글이라고 漢字폐지론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외면만 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한 무식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도덕과 예의는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 버리고 말것 아닌가...

벌써부터 동방예의지국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데 孝의 나라라는 뜻말은 어느새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다. 진정 우리 민족의 장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는가?

溫故而知新이라는 문구가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의 것,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중하게 키워나가면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되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문화가족 여러분!

鐘字와 鍾字를 잘 구별하여 씹시다.

## 필레 약수

김신향

### 담채화 병풍같은 산자락

강원도하면 산과 바다, 호수, 강, 계곡 등 모든 자연경관 하나하나가 비경(秘境)이다. 그 중에서도 인제하면 수질 검사 결과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내린천(內麟川)이 손꼽힌다. 심산 유곡으로도 절경인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에서 발원하여 인제읍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말한다.

인제 버스터미널에서 기린면 현리행 시내버스, 또는 완행버스를 타고, 원통 방향으로 5분 정도가면 우측으로 리빙스톤교가 나온다. 이 다리는 625당시 리빙스톤이라는 한 미군 장교(중령)이 이끄는 포병 병력이 홍수로 인하여, 장엄한 죽음을 맞은 곳으로서, 그가 유언을 남겨 리빙스톤 부인이 추모의 뜻으로 놓은 일명 사랑의 다리이다. 리빙스톤교를 건너면 가장 빠른 길로서, 윗 길, 덕정리를 따라 장승이 있었다는 가리산 장승고개를 넘어, 귀둔 쌍다리를 통과해 군량동을 지나 필레까지 6km 남짓 30분 소요되는 코스와, 아랫길, 노루목같이 가늘다해서 붙여진 노루목 고개, 차와 물소리 그리고 방갈로가 운치있게 어우러지는 노루목 산장을 지나 내린천계곡 따라 고사리 장수터를 지나서, 피나무가 무성했다는 피아시 고개 유원지를 지나면서, 우측 원대교 아래 용소(龍沼)와 막국수로 유명한 원대리 마을이 있고, 궁둥 유원지, 하추리를 지나 좌측 귀둔 방향 이정표를 따라서 필레까지 40분가량 소요되는



코스가 있다.

강릉, 속초에서의 교통편은 사랑 찾아 그 먼길을 돌아온다는 연어의 서식지인 남대천이 흐르는 양양을 지나, 안개가 산중턱을 감싸 돌아 환상의 섬을 이루고 황홀경에 취하는 한계령 정상 휴게소 조금 남겨두고 좌측으로 눈을 돌리면 필레라 씩여있는 이정표가 친절하게 우리를 기다린다.

그 곳에서 10분 정도 산길따라 들어가면 필레약수터 입구가 나온다.

온 산이 울긋불긋, 수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 사연으로 물든 나뭇잎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나염된 밉크 이불을 깔아 놓은 듯 하기도 하고, 담채화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산자락 아래 나란히 가슴을 열고 미소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의(惡意)없이 부드럽게 한다.

### 필레 · 베짜는 여자의 형상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 소재한 필레 약수터.

알려진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역사나 유래는 어느 문헌에도 나와있지 않다. 다만 ‘피래’라고도 하는데 난리에 피난와서 이룬 마을이라고만 적혀져 있을 뿐이다. 구전(口傳)하여 내려오는 설로는, 풍수지리학상 생긴 형태가 여자가 베짜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하여 처음엔 필러라 불리웠으나 그뒤 필레로 바뀌었다 한다. 또 한 설로는 뒷산의 생김이 여자의 치마폭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그외 여러가지 분분설이 있지만 위의 세가지 일화만 신빙성이 있다 한다. 약수물은 몇 백년 전에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다른 약수물보다 철분 함량이 많아 위장에 좋고, 피부병을 치료하며, 특히 눈병(백내장)에 효험이 있다한다. 그 물로 밥을 지으면 파르스름한 색을 띠는데 밥맛은 소위 약밥으로 별미라 한다.

십년전, 이곳 필레 약수터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관리인 할아버지(70세), 대구가 고향으로서 산수가 좋고 공기가 맑아서 그냥 눌러앉았다 한다. 고향이 따로 있나 어디든 마음두면 고향이지... 여운을 남기

는, 가을 들판만큼이나 쓸쓸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그 위에 산장으로 향했다. 민박이 가능한 숲속의 통나무 집들은 동화속에 나오는 한 장의 그림같았다. 내려오는 길에 약수터 주위에 많은 돌탑 옆에 다 신성시되는 돌탑 하나를 쌓고, 나만의 소원을 빌었다. 톱 쏘는 약수물을 쪽박 그득 채워 마시고는, 고운 단풍잎 하나를 입에 물었다.

이곳 필레의 먹거리로선 약수물로 끓여 맛이 독특한 토종닭, 백숙, 산채비빔밥, 바로 그 산에서 채취해서 담근 신토불이 더덕주, 약수 동동주, 솔잎즙, 도토리 국수, 당귀차, 음양곽차 등으로 자연 향토 음식들이다. 감자 부침은 쫄깃쫄깃 맛이 있었다.

걸어나오는 길은 낭만적인 오솔길이었다. 물 맑기가 빙어 몸속같이 투명한 개울물은 거짓으로 포장된 세속의 마음을 벗게하고,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갈대는 마치 사랑을 잃은 한 여인이 삶을 체념한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광상곡(狂想曲)으로 흐느끼는 듯 했다. 숲의 표정 또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마음 씀씀이 만큼이나 깊고 풍부해서 우리의 삶을 한층 넉넉하게 한다.

태고적(太古的) 자연의 보고(寶庫)로 각박한 현실에 얽메인 숨통을 트이게 하는 강원도의 산속터, 필레 약수.

어스름 저녁, 자연과의 대화는 가을 하늘 선율로 드높게 울려 퍼진다.

## 향토사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인제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고장에 묻혀있으며 찾아내지 못한 향토사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여 기록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고자 함은 우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는 98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향토사연구회를 발족하여 우리고장 전통사에 뿌리를 찾고 연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깊은 애향심으로 향토사연구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 인제문화원 [☎ (0365) 461-6678/461-417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 직접 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2 장

# 향토문예



## 향토문에 제1편

# 제8회 江原道 文人 심포지엄

□ 主 題 : 朴寅煥 文學의 再照明

▶ 時 : 1997년 8월 18일(월요일) 오전11시

▶ 處 : 인제문화원(문화사랑방)

□ 韓 國 文 人 協 會 江 原 道 支 會



## 제8회 江原道 文人 심포지엄

— '97 문화유산의 해, 향토문인 열 계승 —

□ 主 題 : 朴寅煥 文學의 再照明

• 제1주제 : 박인환의 생애와 문학

· 발표자 : 시인 이은무

• 제2주제 : 박인환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 상상력과 정신지향면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춘천교대 박민수 총장

· 진 행 : 이갑창 사무국장

▶ 때 : 1997년 8월 18일(월요일) 오전11시

▶ 곳 : 인제군 인제읍 인제문화원

韓國文人協會 江原道支會



## 朴寅煥 年譜

- 인제 상동리에서 출생(1926년 8월 15일)
- 인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1938년 8세)
- 서울로 이사(1936년 11세)
- 덕소공립학교 졸업 후 경기공립중 입학(1939)
- 경기공립중 자퇴 한성학교 야학 다님(1941, 16세)
- 평양의학전문교 입학(1944, 19세)
- ▲ 김경린 등과 동인지 「신시론」 1집 발간  
이정숙과 결혼·자유신문사 입사  
시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외 3편 발표(1948, 22세)
- ▲ 5인 시집에서 「열차」 등 발표(1949)
- ▲ 종군기자로 활동(1951년, 26세)
- ▲ 박인환 선시집 출간(1955, 30세)
  - 심장마비로 사망(1956년, 31세 3월 20일)  
망우리묘소에 시비 문우들 손으로 세움
- 시집 「목마와 숙녀」출간(1976년 20주기)
- 추모문집 「세월이 가면」간행(1982년 26주기)
- 박인환 평전 「목마와 숙녀와 별과 사랑」  
박인환전집 발간(1986년 30주기)

## 목마와 숙녀

朴寅煥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木馬를 타고 떠난 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木馬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少女는  
정원의 草木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愛憎의 그림자를 버릴 때  
木馬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孤立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 燈臺에 ...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木馬 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通俗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木馬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흩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 제1주제 •

## 朴寅煥의 생애와 문학

시인 · 본지회 부지회장  
이은무

### 1. 그는 누구인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木馬를 타고 떠난 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 이하 생략 —

— 木馬와 淑女 중에서 —

그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아디선가 온뒤부터 어딘가 가기 전까지의 그가 지나간 진하고 깊은 발자욱을 우리는 기억한다.

시인 박인환, 이 땅의 영원한 보헤미안으로 암울한 시대를 잠깐 살다가 木馬를 타고 그는 아주 떠났는가? 아니다. 목마는 회전할 뿐이지 뛰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디선가 돌고 있는 목마의 방울소리는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들린다. 그 방울소리는 그의 詩다. 때문에 그가 타고 떠난 목마는 바로 우리의 핏줄을 돌고 있는 것이다.

왜, 그 발자국이 이 땅의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는가를 그가 떠난지 41년이 지난 오늘 그의 고향에서 우리는 돌이켜 보는 것이다.

박인환 그는 남긴 것이 있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민족상잔의 포연이 쓸고 간 폐허에서 아픔과 절망을 분노의 딱딱한 먹으로 갈 듯 답답한 가슴의 어둠을 풀어 애증의 진한 빛깔로 70여편의 詩를 꽃으로 피운 것이다.

## 2. 그의 고향은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토지가  
지금은 내 고향  
산과 강물은 어느 날의 회화(繪畵)  
피 묻은 전신주 위에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학교도 군청 내 지도  
무수한 포탄의 작렬과 함께  
세상엔 없다.

— “고향에 가서”중에서 —

이 시는 1951년 박인환이 육군 종군작가로서 고향인 인제에 들렀을 때 625의 참혹한 상처를 메어지는 가슴으로 망연히 서서 바라본 것이다.

내린천담 문제로 분노의 걱정이 태산같은 오늘은 그가 알고 있다면 어떤 시를 써서 고향을 끌어 안았을까?

누구에게나 고향은 모성의 품이듯이 박인환이 태어난 곳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159번지로 천혜의 땅 강원도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소양강 상류의 아름다운 내설악 기슭이다.

이 곳에서 1926년 8월 15일 그가 고고의 성을 지른 것은, 19년 뒤 8월 15일 36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행방의 기쁨을 예고하는 울음으

로 이 땅의 한 시인의 출생을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기억하고 싶다.

박인환은 아버지 박광선과 어머니 성숙향 사이에서 4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난 것이다.

### 3. 그의 소년기와 성년기

어린 박인환은 1933년 8세에 인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까지 다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는 고향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고향을 가슴에 품고 떠났었음을 훗날 문학으로 그는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간 것이 11살때 덕수 공립보통학교에 4학년으로 편입해서 39년에 졸업과 동시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영화에 한 때 미쳐 자퇴 형식으로 쫓겨나고 다시 한성학교 야간반을 다니다가 그 이듬해 황해도로 이사를 가 재령으로 명신학교 4학년으로 편입한다.

그리고 19세에 명신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학전문학교(3년제)에 입학했다가 1945년 8월 15일 생일을 맞아 광복의 함성 소리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학업을 뺄게 된다.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을 대충 살폈을 때, 이사를 와 전학으로 연속돼 있었고 끝내는 일제치하의 교육제도로 입었던 못마땅한 교복을 훌훌히 미련없이 벗어던짐은 이미 20세의 청년 박인환에게는 문학이 자유의 그리움으로 꿈틀거린 것이다.

그것은 종로 3가 2번지 낙원동 입구였다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개업한 것이 그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박인환이 문단에 얼굴을 내민 것이 서점을 차린 다음 해 21세 때 「국제신보」에 「거리」라는 작품을 발표함에서 부터다.

그가 서점을 운영면서 많은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갖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리서사」를 차리기 전에 바로 그걸 원하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인환이 만난 문인들이 주로 전위예술의 기질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그의 시가 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까닭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 4. 한 시인으로서의 길

1947년 「자유신문」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시인으로서의 길로 접어든다.

48년 봄에 서점은 폐업을 하고 한살 아래인 이정숙과 덕수궁에서 결혼을 해 창작에 몰두한다.

그때 김경린, 양병식, 김수영, 임호권, 김병욱 등과 동인지 〈新詩論〉 제1집을 내고 〈세계일보〉에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 〈민성〉에 “지하실” 〈신천지〉에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아메리카 영화시론” “짜르뜨르와 실존주의” 등의 작품을 발표한다.

이렇듯 젊은 시인 박인환은 광복과 함께 좌·우의 민족의 갈등과 절망으로 격동기의 캄캄한 년대를 허무로 때로는 분노로 끌어안고 희망의 빛은 무엇인가를 문학으로 찾아 고뇌하고 방황한 것을, 훗날 우리는 그가 늘 러시아의 오바 코트를 입고 명동거리를 활보한 멋장이 박인환, 목마와 숙녀의 낭만적인 아주 낭만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인환이 시대적인 조국과 민족, 개인적인 실조의 아픔과 외로움을 문학으로 치료하고 위안받고자 애쓴 흔적을 보자.

은행지배인이 동반한 꽃피는 소녀  
그는 일찌기 자기의 몸값보다  
꽃값이 비쌌다는 것을 안다.

— “식민항의 밤”중에서 —

정의 전쟁은 나로 하여금 잠을 깨운다.  
오래도록 나는 망각의 피안에서 술을 마셨다.  
하루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축제였다.

—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중에서 —



박인환은 24세 때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 등과 5인 합동 시집 「새로운 도시로 시민의 합창」을 발간 모더니즘의 운동에 참여 주목을 받았고 경향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입사한다. 그리고 <만성>지에 시 “정신의 행방을 찾아”를 발표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인환은 마치 피난을 가지 못하고 9.28수복 때까지 공산치하의 지하생활 속에서 수복 3일 전 딸을 낳는다. 1.4후퇴 때는 대구로 피난을 갔다. 그는 대구에서 다시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 51년 5월부터 육군 종군작가단에 참여 활동 중 고향인 인제를 딱 한 번 찾았던 것이다. 그 무렵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 “신호탄” “고향에 가서” “벽” “문제가 되는것” 등의 시를 발표했다.

## 5. 그 짧은 생의 후반기

1952년 박인환의 나이 27세 되던 해에 경향신문사를 그만두고 대한해운공사로 직장을 옮겼다.

그 때 <주간국제>에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이라는 신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날까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시를 발표한다.

다음해 5월 31일 차남 세곤을 낳고 7월엔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53년의 여자들에게’를 발표한다.

그는 1955년 3월에 대한해운공사 소속 화물선 남해호의 사무장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항하면서 유일한 여행시 ‘19일간의 아메리카’를 조선일보에 발표한다. 다음 해운공사도 그만두고 난 뒤 <박인환 시선집>을 ‘아내 정숙에게 보낸다’라는 헌사를 담아 출간했다.

마침내 박인환이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해인 1956년에 지금 국민의 애송시가 된 ‘목마와 숙녀’를 비롯 李箱의 추모시로 쓴 ‘죽은 아포롱’와 ‘옛날의 사람들에게’ 등의 詩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3월 20일 밤 9시에 그늘 어딘가 떠나갔다. 박인환은 죽은게 아니고 방울소리 들리는 목마를 타고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가깝게 떠난 것이다.

선망의 시인 李箱의 죽음을 술로 슬퍼하다 죽은 그는, 시인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아저비로서의 가장 현실적인 책임을 외면한 것은 아쉬움과 원망도 있었을 것이다.

「여보세요, 거기 박세형씨 맥 맞습니까?」

필자는 이 강연원고를 쓰기 위해 박인환 선생의 큰 아들인 박세형씨에게 시외전화를 했다.

그는 마침 있었고 반가워 했다.

아버지는 삶과 문학을 치열하게 살다 가셨음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박인환의 부인인 이정숙 여사는 71세의 고령으로 생존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다정하면」이란 시집을 낸 박세형시인은 통화 중에 아버지의 피가 흘러선지 자기도 모르게 시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한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과 초라한 묘비를 바라보며 뭔가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뭔가? 그가 태어난 고향 인제로 그의 묘소나마 다시 돌아왔으며 하는 바램일 것이다.

절름발이 내 어머니는  
삭풍에 쓰러진  
고목 옆에서 나를  
불렀다.

얼마 지나  
부서진 추억을 안고  
염소처럼 나는  
울었다.  
마차가 넘어간  
언덕에 앉아  
지평에서 걸어오는  
옛람들의  
모습을 본다.  
생각이 타오르는

연기는  
마을을 덮는다.

— “진원”중에서 —

• 제2주제 •

## 박인환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 상상력과 정신지향면을 중심으로 —

시인 · 춘천교대총장  
박민수

### I. 서론

박인환은 1926년 8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59번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박인환이 출생한 1920년대는, 사회적으로 일제가 국토를 강점하여 식민지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문학사적으로는 한국 현대문학이 비로소 제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던 때이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박인환이 20세의 성년에 이르는 때로서, 이때부터 박인환은 문학에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문단과의 접촉을 시작한다.

성장기를 일제하에서 보내고, 그 출발을 해방과 더불어 시작한 박인환의 문학은 바로 광복 직후 한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그의 본격적 문화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할 단계에 발생한 1950년 6.25전쟁, 그리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박인환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문학적 인식 내용 등과의 상관 관계를 떠나 논의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인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모더니즘적 측면에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박인환의 시가 초기에서부터 작고하기까지 어떠한 정신적 변모 양상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피는 것으로 한계를 삼고자 한다.

## 1. 초기 시의 상상력과 정신 지향

1926년 8월 15일 출생한 이후 20세(19세)가 되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박인환의 성장 과정은 표면상 특별히 문학 수업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11세때까지는 시골에서 자랐고, 그후(1936년) 사업차 상경한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이주하여 생활하게 되었는데, 1939년 14세 때 덕수 공립 소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경기 공립중학교에 입학하나, 그후, 17세가 되던 해 황해도 재령의 명신 중학교 4학년에 편입, 1944년 졸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부모의 뜻에 따라 평양 의학 전문학교(3년제)에 입학하게 되지만, 1945년 광복과 더불어 학교를 중단하고 상경, 종로 3가 낙원동 입구에 <마리서사>라는 이름의 서점을 개업하면서 당대의 문단인들과 교유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박인환이 영화에 심취하였었다는 점과, 스스로가 개업 경영한 서점 <마리서사>에 진열된 책들이 대부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문학 서적이라는 점, 그리고 <마리서사>를 중심으로 당대의 많은 문인들과 교유를 가졌던 점 등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박인환이 근본적으로 예술적 기질과 그것을 향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또한 그의 학창 시절 전공과는 거리가 먼 문학 서적을 탐독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가 교유를 맺은 문단인들의 문학적 기질이 박인환 문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의 첫째와 둘째의 것은 박인환 문학 수업의 예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셋째의 것은 그러한 예비 과정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더욱 주목되는 바 있다.

그이 책방에는 그 방면의 베테랑들인 이사우, 조우식, 김기림, 김광균 등도 차차 얼굴을 보이었고, 그밖에 이훈, 오장환, 배인철, 김병욱, 이한직, 임호권 등의 리버럴리스트도 자주 나타나게 되어서 전위 예술의 소굴같은 감을 주게 되었지만, 그때는 벌써 마리서사가 속화의 제1보를 내던기 시작한 때이었다.(김수영, 「마리서사」, 『김수영전집』, 믿음

사, 1981. p.7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인환은 <마리서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많은 베테랑급 문인들과 교류를 갖게 되었고, 박인환이 교류를 가진 문인들은 또한 '전위 예술'의 문학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21세가 되는 1946년 12월, 역시 <마리서사>에 들르던 <국제신보> 기자 송지영의 주선으로 「거리」라는 작품을 <국제신보>에 발표함으로써 박인환은 문단에 공식 진출한다.

문단에 공식 진출한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에 있어 박인환은 1948년 김경린, 양병식, 김수영, 임호권, 김병욱 등과 함께 동인지 <신시론> 제1집을 발간하게 되고, 1949년에는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 등과 함께 5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한다. 이 기간 동안에 박인환이 발표한 작품이라고 확인되는 것은 모두 9편으로, 그 제목과 발표 연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거리(1946) ② 남풍(1947) ③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1948)  
④ 지하실(1948) ⑤ 인도네시아인에게 주는 시 ⑥ 열차(1949) ⑦ 정신의 해방을 찾아(1949) ⑧ 인천항(1949) ⑨ 장미의 온도(1949)

이상의 작품 중 ②③④⑤⑥⑧⑨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수록된 것이고, 이들 9편 중 1955년 박인환이 엮은 『선시집』에 수록된 것은 ③과 ⑨ 두 편 뿐이다. 9편의 초기 작품 중 2편만을 그후에 쓰여진 작품과 더불어 『선시집』에 수록하였다는 것은 박인환 스스로가 초기시에 대해 갖는 불만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박인환의 이들 초기시는 6.25전쟁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그후의 시와 상상력의 내용면이나 시적 자아의 태도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된다.

박인환의 문단 출발기에 쓰여진 9편의 시를 그가 남긴 전체 작품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일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적 상상력과 그에 따른 현실 비판적 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래 전망의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 중 특히 현실주의적 상상력과 그에 따른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의

시 중 ② 「남풍」 ⑤ 「인도네시아인에게 주는 시」 ⑦ 「정신의 해방을 찾아」 ⑧ 「인천항」 등이다.

(가) 동양의 오케스트라/가메란의 반주악이 들려온다/오 약소민족/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삼백년동안 너의 자원은/구미 자본주의 국기에 빼앗기고/반면 비참한 희생을 받지 않으면/구라파의 반이나 되는 넓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그러는 사이 가메란은 미친듯이 울었다// (중간 5연 줄임)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힘있는 대로 영웅되어 싸워라/자유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야욕과 폭압과 비민주적인 민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반항하는 인도네시아인이여/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라//참혹한 몇달이 지나면/피흘린 자바섬에서/붉은 칸나꽃일 피려니/죽음의 보람은 남해의 태양처럼/조선에 사는 우리에게도 빛이려니/해류가 부딪치는 모든 육지에선/거룩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내일을 축복하리라/(이하 1연줄임)

-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에서 -

(나) 거북이처럼 괴로운 세월이/바다에서 올라온다//일찌기 의복을 빼앗긴 토민/태양없는 말레이/너의 사랑이 백인의 고무원에서/지스민(素聲)처럼 곱게 시들어졌다//민족의 운명이/쿠멜신의 영광과 함께 사는/앙코르 와트의 나라/월남인민군/멀리 이 땅에도 들려오는/너희들의 항쟁의 총소리/가슴이 부서질듯 남풍이 분다/계절이 바뀌면 태풍이 온다//아세아 모든 위도/잠든 사람이여/귀를 기울여라/눈을 뜨면/남방의 향기가/가난한 가슴팍으로 스며든다

- 「남풍」전문 -

위의 두 시는 소재 선택상에 있어서나 그 소재를 수용하는 태도 등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현실주의란 단순히 현실을 내용으로 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주의에 대응되는 문학주의도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 현실에서 비롯되는 온갖 감정

을 표출해 내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 현실에서 비롯되는 온갖 감정을 표출해 내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서정에 있어서는 그 수용된 현실이 다만 정서적 상관물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 현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직접 투사되는 어떠한 의식 지향의 내용을 갖지 않는다. 여기 현실주의와 거기에 대립되는 문학주의에 있어서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사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위의 두 시는 특히 현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투사되는 의식 지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현실주의의 갈래로 지목될 수 있다. (가)의 시는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착취되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항쟁을 촉구하고 있고, (나)의 시는 월남 인민군들의 항쟁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속성을 갖는 위의 박인환의 시는 1920년대의 카프나 해방후 문학가 동맹이 현실주의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의식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갈래로 이해할 수 있다.

1920년대의 카프나, 해방후 카프 계열에 의해 재편성된 문학가 동맹 그룹의 현실주의적 속성은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기초를 둔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시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투쟁 정신을 주된 상상력으로 삼게 된다.

위의 두 시에 있어서도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월남 인민군’의 찬양 등 몇가지 사회주의적 속성에 가까운 언술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 시는 근원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의식 내용에 의해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민중을 찬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시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항쟁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순의 비판 행위는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 모순 발생의 근원이 자본주의 그 자

체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근원적으로 자유주의적 상상력의 테두리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속성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멀리 1920년대 초기 석송 김형원의 시적 갈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흔히 비판적 현실주의로 규정되는데, 이러한 비판적 현실주의는 현실에 대한 의식 지향을 보이되, 그 모순을 비판할 뿐,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박인환의 초기시가 이처럼 현실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고, 그것이 당대에 큰 세력을 보이던 사회주의적인 것과는 이질적이라는 사실의 확인은 우선 박인환의 정신적 위상이 자유주의적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의 시는, 확인되는 연대에 따라, 해방후 지어진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과 비판적으로 연관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초기에 발표한 시들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전쟁 이후에 쓰여진 모든 시들이 절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점에 비교하여 주목되는 면이 아닐 수 없다.

(앞1연 줄임)청춘의 복받침을/나의 시야에 던진 채/미래에의 외접선을 눈부시게 그으며/배경은 핑크빛 향기로운 대화/깨진 유리창밖 황폐한 도시의 잡음을 차고/울동하는 풍경으로/활주하는 열차/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습관과/봉건의 터널 터널 특권의 장막을 뚫고/피비리 언덕너머 곧/광선의 진로를 따른다/다음 험벗은 수목의 집단 바람의 호흡을 안고/눈이 타오르는 처음의 녹지대/거기엔 우리들의 황홀한 영원의 거리가 있고/밤이면 열차가 지나온/커다란 노동의 불이 빛난다/혜성보다도/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게

- 「열차」에서 -

위의 시도 현실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난이 극복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면은 앞에 인용한 시에서도 분명하듯 박인환 초기시를 지배하는 주된 정신적 양



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박인환의 시가 위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현실주의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현실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현실의 수용이 다만 정서적 상관물로 이용됨으로써 또한 많은 부분에서 순수 문학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 초기시를 통해 볼 때 박인환은 현실주의와 순수 문학주의의 양면성을 지닌 시적성향을 보이며 출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현실주의는 비판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해방후 한국 현실상황과 관련되는 어떤 역사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전후 시의 상상력과 정신 지향

여기에서 편의상 ‘전후시’라고 지칭하는 것은, 1950년의 6.25전쟁 발발 이후로부터 1955년 3월 박인환이 미국 여행을 떠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발표된 시들을 묶어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시로 그 연대가 확인되는 시편은 대략 36편 정도가 된다. 박인환이 남긴 시가 모두 70편 정도임을 볼 때 그의 시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속해 있고, 또한 그것들이 박인환 시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5전쟁은, 36년간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새롭게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대한 질곡의 역사적 체험이었다. 절망 속에서의 벗어남이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좌절로 이어진 6.25의 참담함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시인들의 상상력에 커다란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학적 출발 기간이 얼마되지 아니한 청년기 박인환에게 있어서도 6.25전쟁은 더욱이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6.25가 박인환의 시 세계에 남기 흔적은 비단 위의 작품들처럼 직접 전쟁처를 소재로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전혀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전중, 전후의 많은 작품들에도 사실은 전쟁의 처참함과 그

것이 시인에게 끼친 충격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6.25는 박인환의 정서에 깊고도 강렬한 상처를 심어 주었으며, 그 상처는 그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상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는 한 마디로 답할 수 있다. ‘허무주의’인 것이다.(이동하, 『박인환 평전, 문학세계사, 1986, p21~23』)

위의 인용을 통해 이미 6.25가 박인환의 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로 인해 박인환의 시적 상상력과 정서적 의식 지향의 내용이 초기의 시와 어떻게 달리 변모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6.25가 발발하였을 때 박인환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9.28수복 때까지 적 치하의 지하 생활을 하게 되며, 수복 3일전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딸을 낳기도 한다. 그러다가 1.4후퇴가 임박한 1950년 12월 8일 가족과 함께 대구로 피난을 떠난다. 이때 박인환은 경향신문사 기자로 있었으며, 1951년 5월부터는 육군 중군 작가단에 참가하여 고향인 강원도 인제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1951년 가족들을 부산으로 이주시키면서 여기에서 ‘후반기’동인회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5는 당연히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의 현실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활동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후의 시를 통해 박인환이 보여주는 정신 내용은 전적으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긍정적 전망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에서 인용한 바 이동하는 ‘허무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 창백한 세상과 나의 생애에/종말이 오기 전에/나는 고독한 피로에서/빙화처럼 잠들은 지나간 세월을 위해서/시를 써 본다/그러나 창박/암담한 상가/고통과 구토가 동결된 밤의 쇼윈도우/그 곁에는/절망과 기아의 행렬이 밤을 새우고/내일이 온다면/이 적막의 거리에 폭풍이 분다.

- 「세 사람의 가족」에서 -

(나) 오늘 나는 모든 욕망과/사물에 작별하였습니다./그래서 더욱  
친한 죽음과 가까와집니다./과거는 무수한 내일에/잠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신/어데서나 나와 함께 사는/불행한 신/당신은 나와 단 둘이  
서/얼굴을 비벼대고 비밀을 터놓고/오해나/인간 체험이나/고절된  
의식애/후회치 않을 겁니다/황제의 산하처럼 우리는 죽음을 약속합니  
다.(이하 줄임)

- 「불행한 신」에서 -

(다) (앞부분 줄임) 나의 종말은 언제인가/어두움처럼 생과 사의  
구분없이/항상 임종의 존엄만 앞두고/호수의 물결이나 또는 배처럼  
/한계만을 헤매이는/지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이젠 얼굴도 이  
름도 스스로 기억치 못하는/영원한 종말을/웃고 울며 헤매이는 또  
하나의 나.

- 「종말」에서 -

(라) (앞부분 줄임) 나는 다음에 오는 시간부터는 인간의 가족이 아  
닙니다/영원한 밤/영원한 육체/영원한 밤의 미매장/나는 이국의  
여행자처럼/무덤에 핀 차가운 흑장미를 가슴에 답니다/그리고 불안  
과 공포에 떨떡이는/사자의 의상을 몸에 휘감고/바다와 같은 묘망한  
암흑 속으로 뒤돌아갑니다./허나 당신은 나의 품안에서 의식을 회복  
치 못합니다.

- 「밤의 미매장」에서 -

이상에서 (가)는 전후 암담한 상황 속에서의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  
다. 그 절망감이란 ‘내일이 온다면/이 적막의 거리에 폭풍이 분다’고 예  
감하는 극단적인 것으로, ‘종말’, 또는 ‘죽음’의 극한 상황을 모티프로 삼  
고 있다.

(나) 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욕망과 사물에 작별’하고 ‘더욱 진한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언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와의 만남이다. 이런 면에서 (다)나 (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몇 편을 통해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후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박인환의 시적 정신 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극단적 허무와 절망이고, 이러한 허무와 절망은 1920년대 초기 젊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일제 치하에서 보여주던 퇴폐적 감상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허무와 절망은 초기 시에서 보여주던 어떠한 긍정적 미래 전망도 다시 보여주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인환이 전후시를 통해 보여주는 이상과 같은 정신사적 양상에 대하여 박인환 자신은,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김경린, 김차영, 이봉래, 조향, 김규동 등과 동인 ‘후반기’를 조직하면서 모더니즘 성향의 문학적 의의를 부여하려는 지적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1952년 6월 16일 《주간국제》가 제공한 ‘후반기 문예 특집’에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이라는 시론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자신을 포함한 ‘후반기’ 동인들의 시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광범한 견지에서 현대시를 논의할 제, 폴 발레리나 R.M 릴케, A. 랭보의 세계와 그 방법에 관해서도 언급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현실의 시야에 전개되어 있는 모순과 살육과 허구와 황폐와 참혹과 절망을, 현대의 문명을 통해서 반영할 적에 우리들로 하여금 강요케 하는 것은 ‘황무지적 반동 The waste land’s reaction’이며, 전후적인 황무지 현상고 광신에서 더욱 인간의 영속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현대시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룹 ‘후반기’의 대부분의 멤버는 T.S. 엘리엇 이후의 제경향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될 것이며, 나의 표제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도 엘리엇의 영향을 입은 두 사람의 현대시의 개척자 오든과 스펀더의 단편(斷片)을 소개하는데 조그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상 엘리엇, 오든, 스펀더를 중심으로 현대시의 관제를 논의한 위

의 글을 통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그 첫째는 박인환이, 제1차 세계 대전후의 유럽 정신사와 6.25가 빚어내는 정신사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둘째는 제1차 대전 후의 정신사를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엘리엇의 「황무지」나 여기에 영향받은 오든, 스펀더 등의 시적 과제를 바로 후반기 동인 자신들의 과제로 동일화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하여 셋째로는 박인환 스스로가 자신의 시를 서구 모더니즘 계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상의 몇 가지 언술 내용들은 자신의 시적 경향을 논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박인환 자신이 어떠한 시적 인식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바 있지만, 이러한 언술 내용은 전후의 시를 통해서서는 실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인다. 즉 엘리엇의 황무지가 제1차대전 후의 황폐한 정신 상황을 시적 모티프로 삼고 있지만 그 “풍경은 그 무엇보다도 비를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의 필연적인 전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절망을 절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것이 되겠는데, 박인환의 시를 통새너는 그러한 세계 전망의 꿈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엘리엇가 「황무지」를 통해 다양한 미적 형식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모더니즘이 지닌 방법론적 모더니티를 확립하고 있는데 반해, 박인환이 전쟁을 시적 상징물로 삼은 시편을 통해서서는 그러한 모더니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인환이 지적 사고를 통해 논리화하고 있는 문학적 의지와, 현실 상황이 안겨주는 실제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내재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것으로, 박인환 시가 지니는 정신사적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3. 미국 여행시의 상상력과 정신 지향

박인환이 엮은 『선시집』속에는 <아메리카 시초>편에 11편의 미국 여행시가 들어 있고, 19765년에 간행된 『목마와 숙녀』에는 여기에 한편

이 더 추가되어 있어, 박인환이 남긴 미국 여행시浬洗肝남긴 미국 여행시는 모두 12편이 된다. 박인환의 미국 여행시란, 그가 1952년 이래 대한 해운 공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1955년 3월 같은 회사 소속의 화물선 <남해호>의 사무장이 되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행 과정에서 보고 느낀 내용을 적은 시를 말한다. 박인환의 미국 여행은 전후의 황폐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잠시 현실을 떠나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19일간 주로 화물선이 기항하는 도시 중심으로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이루어진 박인환이 <아메리카 시초>가 박인환 시에 있어서 어떤 정신사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짧은 기간 동안의 여행이고, 또 그 여행의 목적지가 자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행시는 직관적 관찰 내용을 서정화하는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메리카 시초>를 중심으로 그 정신사적 의식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후 박인환의 시는 절대 절망의 극한적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는데, 전후의 황폐화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러한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가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한편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가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한편 6.25전쟁 당시 이른바 우방국으로서 참전한 미국에 대하여, 박인환이 직접 그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 전쟁과 관련지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후자는 박인환의 역사 의식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후자는 박인환의 역사 의식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시초>전편에서 드러나는 박인환의 정신 내용은, 여행자의 고독과 이국적 정서, 그리고 문명 대국으로서의 미국이 드러내고 있는 문명 현상에 대한 부정의식 등으로 요약될 뿐이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 미국 여행시에 대해 갖는 몇 가지의 기대 지평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박인환의 여행시는 그가 체험한 전후의 황폐화 상황

과 그 의식 내용상 연속적이지 못함이 드러난다.

(가) 갈매기와 하나의 물체 /〈고독〉/연월도 없는 태양은 차갑다./  
나는 아무 욕망도 갖지 않겠다./더우기 낭만과정서는/저기 부서지는  
거품 속에 있어라./죽어간 자의 표정처럼/무겁고 침울한 파도 그것이  
노할 때/나는 살아 있는 자라고 외칠 수 없었다./거저 의지의 믿음만  
을 위하여/심유한 바다 위를 흘러가는 것이다// (이하 4연 줄임)

— 「태평양에서」에서 —

(나) 4월 10일의 부활제를 위하여/포도주 한병을 산 흑인과/빌딩  
숲속을 지나/에이브람 링컨의 이야기를 하며/영화관의 스틸 광고를  
본다./... 카아멘 존스...//미스터 몬은 트럭을 끌고/그의 아내는 쿡  
과 입을 맞추고/나는 「지렛」회사의 텔레비전을 본다./한국에서 전사  
한 중위의 어머니는/이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고 내 손을 잡고/  
시애틀 시가를 구경시킨다.//많은 사람이 살고/많은 사람이 울어야  
하는/아메리카 하늘에 흰 구름./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모든 비애와 환희를./아메리카는 휘트먼의 나라  
로 알았건만/아메리카는 링컨의 나라로 알았건만/쏟 눈물을 흘리며  
/브라보... 코리언 하고/흑인은 술을 마신다.(에베레트에서)

— 「어느날」전편 —

(다) 녹슬은/은행과 영화관과 전기 세탁기//럭키스트라이크/  
VANCE 호텔 BING게임./영화관 로비에서/눈부신 백화점에서/부활  
제의 카드가/RAINER 맥주가.//나는 옛날을 생각하면서/텔레비전의  
LATE NIGHT NEWS를 본다./캐나다 CBS 방송국의 광란한 음악/  
입맞추는 신사와 창부./조준은 젓가슴/아메리카 워싱턴주.// (이하 15  
연 줄임)

— 「투명한 버라이어티」에서 —

이상에서 (가)는 여행을 출발하여 태평양을 지날 때, 그 망망한 대해에서 느끼는 고독과, 파도의 거센과, 그것을 보는 소박한 감정을 표출해 내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전후 한국 상황과는 아무런 의식상의 연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의 시는 전편을 인용한 것인데, 특히 “한국에서 전사한 어머니”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한국에서 전사’는 한국전과 미국과의 관계를 말하든가, 또는 한국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등 어떤 역사 의식의 표출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의 주제는 끝연에서 보이는 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흑인 차별이라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다)의 시는 특히 미국 사회의 문명 현상과 그것에 대한 비판과 찬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눈부신 물질 문명을 모더니틱하고 화려한 문명어를 이용하여 그려내고 있다. 결국 <아메리카 시초>를 통해 박인환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여행자의 고독과 이국적 정조, 문명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의 국내 상황에서 벗어난 단순한 여행자의 관점에서, 또는 문명 비판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역시, 위에서 살핀 전후시의 절대절망이 어떤 역사 의식이나 사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자기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 4. 말기 시의 상상력과 정신 지향

여기에서 ‘말기시’라고 지칭하는 것은 『선시집』이 출간된 1955년 1월 이후로부터 1956년 3월 작고하기까지의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을 말한다.

미국 여행에서 귀국하여 피난지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온 이후의 시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여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은 3편 뿐이다. 이 3편도 순수한 창작물이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 3편 중 「세월이 가면」은 어느 술집에서 즉석 창작한



것을 그 자리의 어떤 작곡가가 동시에 곡을 붙여 노래 부름으로써 널리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고, 나머지 두편 중 「죽은 아포롱」은 그가 죽기 3일전 이상(李箱) 추모의 밤에 낭독할 시로, 「옛날의 사람들에게」는 역시 죽기 3일전 작고 작가 추념제에서 낭독할 시로 창작된 것이다. 이러한 몇 편으로 박인환 시의 말기를 차지하는 어떤 정신사적 의미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들 몇 편으로 박인환 말기시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죽은 아포롱」의 주인공인 이상에 대한 박인환의 태도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인환의 죽음은 이상의 죽음을 모방한 것과 같은 인상을 질게 주는데, 전후시를 통해 보여준 절대 절망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상이라는 한 초현실주의적 모더니스트의 극적 죽음과 만남으로써 결국 박인환도 31세의 나이에, 극적 죽음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과 자기 생명을 동일화하는 유희적 예술지상주의의 예술가들이 흔히 보여주는 태도로, 결국 아무런 정신적 탈출구를 찾지 않은 박인환의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도 이런 데에서 기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은 아포롱」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3월 열이렛날/그래서 나는 망각의 술을 마셔야 한다/여급  
 '마유미'가 없어도/오후 세시 이십 오분에는/벗들과 '제비'의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그날 당신은/동경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천당과  
 지옥의 접경으로 여행을 하고/허망한 서울의 하늘에는 비가 내렸다  
 //운명이여/얼마나 애태운 일이나/권태와 인간의 날개/당신은 싸  
 늘한 지하에 있으면서도/성좌를 간직하고 있다.//정신적 수렴을 위  
 해 죽은 '랭보'와도 같이/당신은 나에게/환상과 흥분과/열병과 착각  
 을 알려주고/그 빈사의 구렁텅이에서/우리 문학에/따뜻한 손을 빌  
 려준/정신의 황제//무한한 수면/반역과 영광/임종의 눈물을 흘리  
 며 결코/당신은 하나의 증명을 갖고 있었다/'이상'이라고

- 「죽은 아포롱 - 이상 그가 떠나던 날에」 -

위의 시는 1956년 3월 17일, 이상 추모의 밤에 낭독한 추모시로, 이 시와, 이 시에 관련된 당시의 박인환의 태도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박인환의 정신적 자기 선택과 이상과의 관계를 잘 말해 준다. 그것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의 시를 통해 박인환은 이상이 자신에게 ‘환상과 흥분과’/열병과 착각을 알려준 ‘정신의 황제’라고 찬양하고 있고, 이상의 죽음을 ‘무한한 수면/반역과 영광’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위의 시가 낭독된 ‘이상 추모의 밤’으로부터 시작된 폭음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결국 박인환은 문학적 표본을 이상에게 찾코자 했고, 또한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가 이상의 ‘무한한 수면/반역과 영광’이라는 죽음과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박인환의 시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반역과 영광’의 혁명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박인환이 지닌 모더니스트로서의 혁명적 자기 성취 열망과, 실제 작품간의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 대한 이동하의 다음과 같은 진단이 주목된다.

종의 구호호서만 ‘기성예의 반항’을 내세웠을 뿐 진정한 반항은 한번도 행하지 못하였던 박인환의 처지에서 볼 때 과격한 반항 정신의 유감 없는 실천자였던 이상은 동경의 표적이 될 만한 자격을 십이분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이상은 박인환이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대담한 반항의 흔적을 거리낌없이 남기고 다녔던 바 그것은 입으로만 반항과 파괴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보수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박인환에게 ‘욕망의 대리 충족’과 같은 경험을 갖게 했고 그 경험은 곧 이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해 갔던 것이라고 짐작된다.(이동하, 전계서, pp.83~84)

어쨌든 박인환은 모더니스트로서 자신의 문학이 모더니즘의 갈래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랐고, 그리하여 1930년대 대표적 모더니스트로서의

이상을 동경의 표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박인환의 시를 특히 그 정신적 의식 내용에 초점을 두고 통시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박인환의 시가 지닌 정신사적 본질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6.25전쟁을 고비로 하여 그 이전에 쓰여진 초기의 시와 그 후에 쓰여진 시 사이에 많은 의식 지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쟁 전에는 문학주의적인 것과 더불어 많은 시들이 직접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래에 대해 궁극적 전망을 나타냄으로써 강인한 생명력을 안고 있었는데, 전쟁 후에 쓰여진 모든 시들은 황폐화한 전쟁 상황과 더불어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를 현대 모더니즘의 한 속성으로 사고하려는 지적 노력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상을 동경의 표적으로 삼음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예술지상주의적 의식에 지배되어 생명 회복의 지적 계기를 찾지 못하고 만다. 결국 박인환은 스스로 모더니스트로서의 영광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자기 구원의 철학이나 사상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정신적 황폐화를 보여 주기도 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박인환이 남긴 70편의 시를 중심으로, 상상력 및 거기에 담긴 정신적 의식 내용을 총 시를 중심으로, 상상력 및 거기에 담긴 정신적 의식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살핌을 통해 드러나는 박인환 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상력과 거기에 담긴 정신적 의식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필 때, 무엇보다도 박인환은 전쟁전의 시와 그 후의 시에 있어 크게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쟁 전에 쓰여진 시들은 특히 현실주의적 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미래 전망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후의 시들은 급격히 현실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절

대 절망의 허무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대 절망의 허무주의가 무더니즘의 한 속성으로 이해되면서 지적 논리화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철학성이나 사상성의 결핍, 또는 스스로 빠져 있는 절대절망을 극복하려는 인간적 의지의 부족, 나아가서는 문학과 생명을 동일시하는 지나친 예술지상주의적 사고의 모순, 그리하여 그가 표준으로 삼은 모더니스트 이상(李箱)의 죽음을 모방하는 퇴폐적 정신상황 등으로 이어져 결국 그의 시는 생명 파탄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에 이른다.



**향토문예 제 2 편**

**내린천 댐 건설반대 전국문인詩 선집**



## 인류의 盲點에서

구 상

시방 세계는 짙은 어둠에 덮여 있다.  
이 칠혹 속 지구의 이곳 저곳에서는  
갓가지 위급을 알리고 救急을 호소하는  
비상 경보와 경적이 설새없이 들려 온다.

하지만 온 세상은 기계문명의 利器와  
과학 만능이라는 환상과 도취에 빠져서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을 결단내며  
스스로 지구의 종말이 머지 않다면서도  
실용과 실증과 편의에 마비된 思辨들이  
매미와 개구리들처럼 온갖 요란을 떨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무리들이  
이 전율할 밤을 한껏 眈溺하고 있다.

이 존재 망각의 밤\*, 인류의 盲點에서  
세계는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방향도 중심도 잃고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시인들이여!  
아니, 온 세계의 모든 시인들이여!



그대들이 지니는 그 예지와 精氣로  
그대들이 지니는 그 우주적감각과  
우주적 憐憫을 다함없이 발휘하여

인류의 이 어두움을 밝히자!  
인류의 向方을 비추자!

\* 존재 망각의 밤 -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

## ■ 구상

---

- 46년 사화집<음향>으로 문단 활동 시작
- 저서 『구상문학선』외 70여권
- 57년 서울시문화상 수상
- 80년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 93년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그대 녹색 강을 아는가

고경희

아직 이른 봄이  
예감처럼 오고 있을 때  
목마른 나뭇가지 적시며  
밤새도록 내린 비  
돌부리에 희게 부서지며  
흐르는 강을 아는가

우리 기억 속에 강은  
창백한 낮으로  
살을 베며 가슴으로 흐르고  
굽이굽이 가고 싶은데가는  
길을 잊은지 오래  
타버린 입술 메마른 살갓 부비며  
소리 무르는데 익숙할 뿐

아아 그러나 지난 밤  
마침내 오고야 마는  
기다림의 끝처럼 비는 내리고  
와와 소리치며 목마른 뿌리 적신 물마다  
잊었던 제 빛으로 노래하고

드디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길따라 소리치며 흐르는  
녹색 강을 아는가  
그대.

■ 고경희

---

- 1950년 강릉출생
- 83년 <현대시학> 등단
- 시집 『아홉의 끈을 풀고』, 『사슬뜨기』,  
『창백한 아침』의 다수

# 내린천에 띄우는 이런 편지

고형렬

인제 하늘에 찾아온 저녁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다 돌들이 물에 씻겨 가는 둥근 마음들  
달빛들과 물위에 모여앉아 소근거린다  
자그마한 반딧불을 피워놓고  
금강초롱꽃의 연애를 홍보면서, 그 꽃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두런거리는 말들이  
갑작스레 음악이 되어 달구름 흐르는  
새벽 하늘 속으로 숨는다  
가만히 풀잎들이 물결 소리를 들자니,  
깊은 산 속에 사는 한 소년의 들창 처마에  
내일 아침에 필 나팔꽃에 이슬로 내린다  
저 안개도 어둠도 아닌 밤을 뚫고 내린천아  
내가 어떻게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겠니?

## ■ 고형렬

---

- 1954년 속초 사진리 출생
- 〈현대문학〉 지로 등단
- 시집 『대청봉 수박밭』, 『해청』,  
『마당식사가 그림다』외 다수
- 현재 계간 〈창작과 비평〉사 근무

## 계절관측동물

김기택

참개구리, 무지치, 삿갓새, 종달새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정한 계절관측동물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 봄을 알려주는 동물들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서울 공기, 서울 물, 서울 땅에 못 견디  
1981년 이후 아주 사라졌다고 한다.

나를 보라,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얼마나 튼튼한가.  
아황산가스, 산성비, 발암물질 수돗물이 무차별 쏟아져도  
양복 뜯어지도록 사람들을 밀쳐 지하철을 타고  
두 계단 세 계단씩 지하도 뛰어오르며 출근길을 누빈다.  
드링크제로 피로를 푼 긴장  
스포츠신문으로 스트레스를 몰아 낸 머리통  
알약으로 두근거리는 불안까지 없앤 심장이 있으므로  
새벽부터 밤까지 벡타이 더 조여지도록 뛰어다녀도 끄덕없다.

멸종 후에 남는 폐허 같은 이름들  
갈 곳이 없는 이젠 이름이 될 필요도 없는  
단지 사전속에 글씨로만 남아 있는 이름들  
그렇게 땅 위에서 영영사라져도

울음이나 절규는 커녕 슬픔조차 없는 동물들  
없어져 아주 조용해진 그들의 소리가 몸 속에서 들린다  
침묵보다도 더 낮은 그들 소리에 귀기울이며 걷다가  
귀를 찢을 것 같은 자동차 경적소리를 놓친다  
야이 자식아, 죽고 싶어 환장했어  
성질난 운전사가 아무리 거품을 물고 소리 질러대고  
그렇다, 너무나 튼튼하고 뻘뻘스러워서  
나는 아직 죽는 법을 모른다.

## ■ 김기택

---

- 경기 안양 출생
-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 시집 『태아의 잠』, 『바늘 구멍속의 폭풍』
- 〈김수영 문학상〉 수상

## 내린천은 침묵한다

김란희

내린천 옥빛 물결 굽이돌아 흘러가는  
강마을 강심 싣고 꿈 나누며 사는 동네  
흰 구름 재를 넘으면 강바람이 맞이하고

내린천 황금 물결 산이랑 흘러 흘러  
골 깊은 논, 밭두렁 풍요로운 한 세월  
바람은 예대로건만 물결이 슬렁인다

내린천 고운 물결 태고를 돌아 나와  
비바람 다져넣은 축복받은 천연의 강  
야멸찬 문명의 늪에 갈대로서 있구나.

### ■ 김란희

---

- 서울 출생
- <문예사조> 신인상 등단
- 수향시 회원

## 마을이 사라진다 외 1편

김용택

아아, 밤도 이제 깊을 대로 깊었다

삼십 명의 장정들과  
삼십 명의 아낙네들이  
삼십 채의 지붕 아래 사람들을 거느리고  
천 년을 살았던 마을에  
다섯 명의 노인 내외와  
홀로 사는 몇 명의 할머니들의 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깊고 깊은가  
버림받은 빈 집과 빈 집 터  
묵은 논과 밭 사이로  
달이 지나가며 달빛을 뿌린다  
적막을 견디지 못해 개가 킁킁 짓고  
소쩍새 한 마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울음에 제가 놀랐는지  
울음소리가 꺾인다



초저녁 달도 서산 너머로 가버리고  
밤은 깊을 대로 깊어  
강물이 소리없이 어둔 산그늘로 숨는다  
올해는 어떤 눈이 묵는가  
올해는 어떤 눈에 모를 못 내는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저 산골짜기까지 올라가다  
힘이 부친 백발노인들이  
빈 눈에 주저앉아 아득하고  
몇 마지기 산 속 밭은  
산이 잡아먹어 갈 수 없는 밭이 되었다

삼십 명의 장정과  
삼십 명의 아낙네들과 그 식구들이  
어기여차 살며  
저 산 꼭대기 눈에서  
저 강변 눈까지  
모를 다 내고

하얀 달빛을 밟으며  
달빛 속에 웃음을 싣고  
징검다리 물소리에 웃음소리들을 보태며  
개구리 우는 논길을 돌아올 때도 있었다.

밤은 깊을 대로 깊어간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한마을이 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다

아아, 밤도 이제 깊을대로 깊었다.

## 농민들은 농사철에 죽지 않는다

오늘 이웃 초상집에 가서 웃놀이 3천원 댔다.

텃 밭 11월 들판을 지나 저 산아래 환한 불빛들이 보이는 상갓집 마당에서 평생 농사꾼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농사꾼으로 죽은 고인에게 맑은 소주 한 잔 권하고 절 두 번하고 내가 국민학교 때 담임했던 어린 상주 셋에게 절 한 번하고 지푸라기 깔린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생미 나리 들어간 흥어찌개에 소주 두 잔 하고 새우젓에다 돼지고기 몇 점 찍어 먹고 연탄불로 만든 모닥불에 몸 돌려 녹이고 손도 짹 펴서 녹이고 서너 동네 어른들과 웃놀았다.

마루가 좁아 마루에 영호만 놓고 뜰방은 허물어지고 좁아서 마당에 다 절하는 곳 만들어놓고 마다이 좁아 이웃 텃밭 비닐 하우스 속에 벌려놓은 헌 덕석 육판에서 두 모로 엮어서 개로 간 놈 한 모 개로 잡고 옷 하나 해서 피로 모자리에다 갖다놓고 어찌고 저찌고 날라고 헌 놈 잡고, 날리고 헌 놈 잡아 이겨 돈 2천원 댔다.

다시 한번 놀아 쉽게 2천원 따서 천원 개평 주고 소주 한 잔에 김치 없애 돼지고기 한 점 꿀꺽 삼키고 어둔 들길 걸어 집에 간다.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어머님 천원 주고 널일 전주 갈 때 차비 할까?

이 애런디 진통제 살까? 아니, 소화제도 다 떨어져부렀지?

아, 술은 얼큰하게 올라오고 돈은 적은디 험 일은 되게 많네. 험일이 많아서 기쁘디, 아이쿠 이 돌맹아, 조금 어둡다고 날 몰라보냐? 내 발

길 안 보이난 말이다. 아이고, 여긴 한수 성님네 밭도랑물 나오는 디지. 건너뛰자. 여그는 어딘가 웅덩이가 있지. 아, 여그구나. 하마터면 빠질 뻔했네. 제기랄, 여근 삼쇠 어른네 묵은 논다랭이지? 여그는 동환이 양반네 논두렁길 아녀.

불빛이 보이는구나.

산아래 아득한 불빛이.

어둑어둑 느티나무도 보이고, 와! 물소리도 들리네 그려.

이따금 이 길에서 돌아가신 양반이랑 마주치곤 했지. 지게 지고 마주 오면 뻔히 알면서도 “어디 갔다 오세요”하면 “논에”라고 뻔한 대답하며 비켜가던 철순이 양반. 아직 죽을 때가 안되었는데 불쌍한 철순이 양반. 느티나무 아래 마을회관 집에서 말없이 살다가 느티나무 큰 가지 찢어져 집 부서지자 빈집에 이사 가서 살았지.

병원에서 쫓겨오자 성경책 들고 봉고차 타고 교회당도 열심이더니.

농사꾼은 농사철에 죽지 않고

일 다 해놓고 한가할 때 죽는다.

사람들은 어둠을 둘러쓰고

십일월의 들판처럼 텅 빈 죽음을 찾아

문상 간다.

먼 마을 불빛들이야  
산 아래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나지만  
그 불빛으로 길 찾지 않는다.  
눈에 익은 논둑길 붓도랑길 따라 걸어가  
초상 마당에 들어서서  
어둠을 벗고  
절하고 술 마시며  
왔는가 왔는가 자네도 왔는가?  
인사하고 옷판이 벌어지면 비집고 들어앉는다.

단돈 천원이 없어  
어깨 너머로 옷판을 바라보다  
개평이라도 얻으면  
쭈꾸 들어가 어깨 비비며 개걸간에 열내다가  
어깨에 닿은 어깨가 어깨에 익어  
돌아다보면  
멋쩍게 웃던 그는 죽었지 죽었어.  
때 지난 잠바에 키 큰 철순이는 죽었어.  
갈수록 허전해지는 어깨 추스리며  
어둔 들 건너 서러운 불빛에 눈길 거두고

철순이는 죽었지.

가난이야 맨날 가을 논밭 언저리

마른 지푸라기 같았지.

어둠도 가져가지 못한 지긋지긋한 가난.

일어설 수 없는 가난,

마당과 뜰방과 빈 헛간 구석구석 어둠을 몰아내며

여기저기 두서너 개씩 불을 밝혔지만

부엌에 넘어질 듯 쌓인 연탄 몇 장과

밝을수록 남루한 살림살이들만,

서러운 살림살이들만 흰히 드러난다.

밤새워,

밤을 새워 불빛들은

저 들을 비추지만

누구에게도 길잡이가 되지 않는다.

저들의 어둠을 한치도 쫓지 못하고

3천원씩 4천원씩 잃고 따 가지고

한기 드는 추위를 못 이겨

식은 고기 몇 점에 소주 몇 잔씩 걸치고

비척비척 집에 가는

저 움크린 사람들의 길까지  
밝히지 못한다.  
그의 죽음까지는 죽어도 닿지 못한다.

오늘 초상집에 가서 웃느라 3천원 뺐다.  
이것 살까 저것 살까 집에 오는 길  
어둠 속에서 불쭉불쭉 초상집 문상 가는 어른들을 만난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어둠 속의 얼굴들.  
죽은 철순이 양반 같은 얼굴들이 간다.  
일 다 해놓고 일 없을 때 죽은 철순이 만나러  
일 없는 길을 간다.

■ 김용택

---

- 1948년 임실 출생.
- 82년 『창비 21인 신작 시집』으로 등단.
- 시집 『섬진강』, 『맑은날』, 『꽃산 가는 길』외 다수

## 두탄연의 열목어

김재황

시린 물에 눈을 씻으며  
너는 또 여름을 맞는구나  
밤마다 보고픈 산천이 어른거려서  
차마 잠들지 못하는 충혈된 눈  
씻고 또 씻은 은빛 몸이  
자홍색 무늬의 열병을 앓는다  
맑고 찬물에 꿈도 살아 있기에  
너는 여기 터를 잡았는가  
오, 보고 싶은 열목어여  
자연이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너는 심연 깊이 숨어 있거라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뜨거운 눈빛을 보이지 마라.

### ■ 김재황

---

-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당선
-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
- 한국기독교 문인협회 감사
- 시집 『민통선이며, 그 살아있는 자연이며』외 다수



# 인제, 겨울강 · 1

김창균

마침내 여기에서 모은 생은 얼어붙고  
그 강의 입구까지 나와 있는 홀천같은 집들.  
이곳에선 빙어 눈알 같은 자손들이 모여  
다시 강을 이루며 흘러가고  
한 울림이 다른 울림 손잡고 물의 손구멍 트는  
인제, 겨울 강.

나  
더 어둡기 전에  
실핏줄 허영게 터진 저 강에  
힘을 버리네.

## ■ 김창균

---

- 강원 진부 출생
-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 현재 속초상고 교사

# 용화산

길명희

요즘 그는 심한 두통을 앓고 있다  
봉우리마다 이마에 물수건 없듯  
“용화산에 포 사격장이 웬 말이나”라는  
머리띠를 이마에 질끈 동여맸지만  
현기증은 좀체 가실줄 모른다

겉보기엔 위엄 있는 자태  
흐트러짐 없지만  
골수까지 파고드는 통증  
서서히 빠져나가는 핏톨  
불치의 골다공증 환자가 되어 가는데  
포만감 모르는 포크레인 식욕

도래할 미륵 세계의 위함이 아니더라도  
56억7천만년의 생인테  
아픈 육신 끌고 그 긴 세월 고통이라니  
허벅지 별건살 그대로 드러낸 수치감  
초록 신부의 재처럼 주저앉고 싶지만  
문병 오듯  
삼복 더위에도 현수막 들고 찾아와  
이마에 허리에

붕대처럼 감아주는 이웃들 있어  
용화산은  
미륵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은 한몸이기에  
못 사내들 설새 없이 들락거리고  
뺨뚫린 구멍이 도원경인 듯  
오르가즘에 취해 황홀해 할 때  
예언이라도 하듯 그 구멍에  
찬바람 횡 하니 불고  
마지막 남은 저고리 썩 부여잡는  
악착같은 손길

말채찍 휘두른  
상처처럼  
산허리 끝없이  
감고 있네.

■ 길명희

---

- 강원 화천 출생
- 강원 문학 회원
- 〈시조문학〉 천료

# 나는 웃고 싶어요

구찬회

까아만 밥풀에 얹아 누운 강물은  
먹물같은 가슴으로 물고기떼 되보내고  
멀미에 몸져누운 물 붉은 울음 울었어라.

섬, 호수, 개울가에  
산자락 골짜마다  
별똥벌레, 반딧불  
아련한 추억들을  
문명은  
자연의 외침을 한 움큼씩 도려낸다.

## ■ 구찬회

---

- 〈시조문학〉 등단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현재 춘천 성결교회 전도사

## 고 향

민 영

예전에는 나에게도  
패랭이꽃 피는  
고향이 있었더니라.

고추잠자리 날아다니는  
마당가에서  
맨발의 누이는 줄넘기를 하고,  
명주실같이 여윈 어머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더니라.

씨 익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그 집.

나에게도 고향은 있었더니라  
전쟁의 불길이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까지는!

### ■ 민 영

---

- 1934년 철원 출생
- 1959년 <현대문학> 지로 등단
- 시집 『냉이를 캐며』, 『영경퀴꽃』외 다수

## 再活·3

- 용화산 느릅나무

박기동

용화산 느릅나무 몇 그루  
두드러라, 푸른 불이 뚫고 나온다.  
폭포를 곧게 서게 하고 길을 구리처럼 구부려놓는  
그대의 힘으로, 북한강을 꼭대기로부터 흐르게 하고  
꺾어진 팔들이 다시 움터 살아 나오게 하는.

기어서라도 가야지  
네가 기다리고 있는 동굴 안으로.  
너의 안에는 향기 없는 꽃, 숨 없는 바람이 살고 있다지.  
때때로 자리 옮기는 사막도 꿈틀대고 있다지, 물혹을 지니고  
깊은 사막 속으로 뚫고 가야지, 강 밑으로 돌을 안고 건너 본  
사람은 안다.  
내 속에 켜지는 불, 물 속의 불, 눈 뜨고 돌을 안고, 건너야만 한다.

### ■ 박기동

---

- 강릉 출생
- 〈心象〉 신인상 등단
- 시집 『漁夫 김판수』와 다수
- 현재 강원대 교수

# 물

박민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아침에 사립문 열고 나와  
문득 내가 바라본 앞 개울 작은 물길은  
다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이 아니었다.  
크고 작고 모나고 비틀어진 이 돌 저 돌  
감싸 어루만지며 쉬임 없이 속삭임 들려주는  
앞 개울 작은 물길은 위에서 아래로  
몸을 낮추어 허리 숙이며  
한숨 가득한 세상 그림자 그것마저  
모두 받아 안아  
아플세라 가슴에 품고 가나니  
아침에 사립문 열고 나와  
문득 내가 바라본 앞 개울 작은 물길은  
다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이 아니었다.

## ■ 박민수

---

- 춘천 출생
- <월간문학> 신인상 등단
- 시집 「강변설화」외 다수
- 평론집 「한국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 내린천 댐건설 반대

- 우리는 고향의 꿈을 지킨다.

박웅진

TV에 나오던 환경 파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여 아물지 않은 상처, 천형(天刑)으로  
민족(民族)의 명산(名山) 설악의 응지(雄志)를  
다시는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인가  
내린천이 내 고향이라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 많은 꿈들을  
방황하게 할 수는 없다  
조상도 마을도 비켜서 가야하는  
콘크리트기둥 댐이 웬말인가  
자연의 어머니시여  
썩고 병든 젖을 물려주셔서서는 아니됩니다

간밤에는 푸른 깃발이 맑은 하늘에  
펼터이는 대지(大地)의 꿈을 잉태하시던  
내린천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산의 은밀한 내면의 모습을 지키시어  
나무와 돌과 풀꽃이 그대로 있게 하소서



맑고 정겨운 바람소리 마음속에 가득한데  
여기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고향을 지키겠습니다  
결코 댐의 건설은 헛된 망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는 총 쫓기합니다.

## ■ 박웅진

---

- 공군 사관학교 졸업(4기)
- 한국 월정문인협회 회장
- 명예 문학박사
- 명예 경영학 박사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역임
- 국제라이온스 309-J지구 총재 역임
- 충청문학상, 순수문학상, 국제아카데미 문화대상 수상
- 시집 『박웅진 시선집1,2』외 다수

# 열병 앓는 토종 소나무

박유석

이땅의 토종  
소나무  
그들이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나는 곳곳마다  
외제 수입 프리미엄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 구간  
금수강산이  
온통  
빨간불 경고등.

## ■ 박유석

---

- 흥천 와동 출생
-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시 당선
- 강원아동문학상 · 강원문학상 · 현대아동문학상 수상
- 동시집 「꽃이되면」, 「어머니의 강」, 「잠 못 이루는 산」외 다수
- 현재 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장, 춘천소양초등학교 교장

# 藥泉가는 길

박인옥

길손들이 채 깨지 않은 아침  
부신 햇빛을 어깨로 털며  
약수 찾으러 가는  
자갈길 옆에 핀  
달개비 꽃.  
낮이 설던가요  
컴포우즈블루  
꽃이 맘에 들던가요

雜草에 지나지 않는 그 꽃을  
패랭이꽃과 어우러 꽃비녀로 꽃으니  
꽤나 어울립니다.

큰물져 끊어진 징검다리 손잡아 건널 때  
이 땅에 단단하게 두 발 붙이고 사는 일과  
심장이 가슴속에 숨어 있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 ■ 박인옥

---

- 경기도 안양 출생
- <현대문학> 등단
- 시집 『그 새벽 안개 속으로』, 『달아나는 숲』, 『헬렌의 추억』, 『꿈꾸지 않기 위해서』외 다수
- 현재 한국 펜클럽 회원, 한국문협경기도지회 사무국장, 큰나무출판사 대표

## 물밑 땅 마을 이야기

박종헌

마른 젖가슴 흘치마 말아 한 손에 쥐고  
후이 후이 손사래치던  
이제는 오지 말거라  
할아버지 산소도 이제 찾지 말거라  
흙담은 물에 잠겨 진흙뻘로 밟히고  
천성이네 대청마루 들쭉문이 느티나무 뿌리에 걸려 삭고 있구나  
어딘들 정 들 곳 있겠느냐  
누군들 남았겠냐  
뒷산 상등성이는 시뻘건 황토울음을 울고  
풀꽃씨 흘날림은 산모퉁이 돌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얗게 하얗게 눈꽃으로 날리는구나  
내 뜻인게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푸른 산 내린 물을 찰박이다가  
그 많은 강 이름 다 두고 내린천 되었을  
물밑 땅 마을 속에 출렁이는 하늘처럼  
거꾸로 살아가는 수물민으로  
푸른산 뼈꾸기 되어야지, 전설이 되어야지  
애야, 이제는 오지 말거라  
흘적삼 작은 어깨가 빗물처럼 울어도  
애야, 이제는 울 것 없다.

■ 박종헌

---

- 〈현대시학〉 등단
- 3인 공동시집 『습작시대』, 『형성시대』
- 현재 속초고 교사

# 내린천은 말이 없다

원종 박종화

태고적 할아버지가 하늘 열어  
환인 환웅 단군 할배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 흐르고 또 흘러  
맑고 푸르게 이웃들 기름진 땅을  
촉촉하고 넉넉하게 품안아 적시고  
점봉산 방태산에서 힘차게 모여  
산천초목을 어루만져 세월 따라  
말없이 흘러 산다래 산머루 산철쭉  
산민들레 달맞이꽃 피고 지고  
다람쥐 오소리 산노루 산토끼  
모가지 슬픈 사슴과 소쩍새 뭇새들과  
산천어 열목어 산매기 꺾지 쏘가리  
함께 시시때때로 춤추고 노래하는  
엄청 살기 좋은 강이라 순수한 눈빛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오지게 지켜왔듯이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지켜야 하리 본디 그대로  
조상의 뼈와 살이 살아있는 혼불이  
모여 흐르는 내린천이야 자손만대  
이어 이어서 아리아리 맑고 푸르게  
지켜져야 하리라 지켜져야 하리.

## ■ 박종화

---

- 한국문인협회 삼척지부장
- <관동문학상> 본상 수상
- 문학세계 문인회 상임이사
- 시집 『두타산 들국화』, 『사랑멀미』외 다수

# 맑고 고운물 흐르게 하라

박형호

오대산에 발원하여  
목마름 풀어주는  
영약의 샘이 있지  
물과 기암괴석과 소나무 어우러  
풍광이 으뜸이라  
내린이라 이름하지

너도 참 보았던가  
반도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을 적셔주는 푸른 허파를!

삼백리 구비구비마다  
조약돌이 거울같이 드러다 뵈도  
은어떼가 황금같이 반짝거리고  
희귀종 열목어가 오르락거린  
내린천의 해맑은 선경을!

물길 따라 꿈길 더듬으며  
청산유수와 같은  
시를 자아내고  
생명의 푸른 노도 휘저었었지



그런데 말이다  
그 물길 막아놓고  
푸른 물결 가둬놓고  
생태계 모두 수몰시켜놓고  
한강수야 뱃노래나 부르잔다

물은 생명의 핏줄이라  
흐르면 살고  
고이면 썩는 것을  
너도 뻔히 알면서도  
천혜의 젓줄을 끊어버리잔다

저 강물  
푸른 줄기 있기에  
이 강산 푸르게 뻗어나고  
우리 예 이렇게  
줄기차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저마다 저리할 곳  
승열히 꽃을 피워  
저리도 다정히 미소짓거늘!  
그렇듯

빼어난 기암의 산이 있고  
질푼 바다가 있고  
바람도 강을 스쳐 흘러가거늘!

자연은 소중한 것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는  
진정한 환경은 없는 것이니

아서라!  
어두운 눈길 거두어버리고  
찬연히 흘러내린 생명의 젓줄  
온누리 굽이치며 흐르게 하라  
더욱 맑고 고운 물로 흐르게 하라  
부신 맥동으로  
자손만대까지 흘러내리게 하라.

## ■ 박형호

---

- 1938년 나주 출생
- 계간 <시세계> 등단
- 경찰대학교수 역임
- 시집 『바람아 물결아 떠도는 구름아』, 『세월하나 더해갈수록 짙어가는 그리움』

# 內麟川

서충규

方臺川을 휘돌아  
하추 하담 상담  
고사 원대 합강까지  
아혼 아홉 구빋길

太初의 신비를 간직하고  
누천 년을 흐르는 內麟川

유리알 같이 맑은 淸情水에  
걱지 쏘가리 똑지 모래무지

기인강변 찢한 철쭉 洋落이루고  
냉장터 모래사장, 낚시, 족대, 川獵

연인들의 드라이브 낭만 미래의 다짐  
젊음의 호연지기 생이 파닥이는 곳.

강원인의 젓줄 소양강의 發源地  
피아시의 맑은 물 한석산의 솔바람이  
껍질을 벗겨내니 선녀와 나뭇꾼이네.

영동, 영서를 잇는 합강대교에서  
내린천이 시원스레 손짓을 하네.

## ■ 서충규

---

- 인제 출생
- 월간 <문학세계> 등단
- 현 내린문학 회원

# 세상엔 온통 쓰레기만 보이더라.

—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마치고

성희직

세상사람들 곤히 잠든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단한 날마다의 노동은 견뎌낼 수 있다  
여름철이면 파리떼와 구더기 득시글거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 지독한 악취도 견뎌낼 수 있다  
겨울철이면 달리는 청소차에 매달려  
온몸을 난도질하는 칼바람의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이따금씩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직업과 신분에 대한 업신여김까지도  
우리들은 다 참고 견뎌낼 수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감정을 느낀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분노를 느낀다

도로마다 넘쳐나는 피서차량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다 휘 던져버리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세상  
우리들도 이럴때는 분노를 느낀다  
냉장고에다 가구며 값비싼 옷가지들  
아직도 멀쩡한 온갖 생활용품들  
내집에서 쓰는 것보다 나은 물건들, 쓰레기차에 실으며

우리들도 이럴때는 분노를 느낀다

정부에서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열리고  
이런 쓰레기는 이렇게, 저런 쓰레기는 저렇게  
온갖 처방과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총알받이는 누구인데  
전술을 모르고, 智將 德將도 없으면  
전쟁터에서 죽어나는 건 결국 졸병들 뿐!  
우리들도 이런 때는 분노를 느낀다

골목마다 유원지와 피서지마다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온갖 쓰레기들  
썩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악취를 풍기는  
하는 생각, 하는 행동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쓰레기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삼천리강산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 3일을 하고 나니

세상엔 온통 쓰레기만 보이더라  
이땅엔 온통 쓰레기들뿐이더라  
큰. 일. 났. 다

■ 성희직

---

- 시인
- 강원도의회 의원
-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 시집 『광부의 하늘』외 다수

# 내린천 연가

손흥기

## 1. 내린천 사람들

술도 잠도 다 깬  
오밤중에 쓰린 속 타는 가슴  
냉수 한 사발로 깨어나서  
달빛 시려운 봉창문 열고  
툃마루에 나와보니  
보름달은 하냥 좋아서 고살길을  
밝히는데 이 밤에도 저 강은  
칭칭히 흘러, 흘러서 가는구나.

인제땅, 자갈 많고 설움도 많은  
땅에 코박고 사는 서럽디 서러운  
농투사니로 태어나서  
소똥처럼 밟히면서도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조상 대대로  
대물림한 가난을 타박도 하지않고  
따비발 몇 뼤기 보태기 위해  
오뉘월 삼복더위에도 열 손가락은  
참나무 잉걸처럼 갈라 터졌지



허기져 일어서다 넘어져도  
놓지 못한 한 움큼 찢레순들이  
찢레꽃으로 몇십 번이나 피었다 지고  
눈물로 따먹던 참꽃더미 울울한  
저 산과 강길 굽이굽이 채이던 설움,  
저 강물은 또 얼마나 아득히 흘러서  
천리만리 떠났겠느냐.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가난으로 고단하게 남아있지만  
조상님네 뼈가 묻힌 이 땅은  
떠날 수 없는 땅이구나  
자식놈들 태를 묻은 이 땅은  
버릴 수 없는 땅이구나.

보름달은 하냥 밝아서  
봉당 가득 밝히는데  
깡마른 양가슴마다 불지피는  
내린천 사람들.

2. 합의서에 도장 찍고  
- 어디로 간다요

열 사나흘 남짓 남은  
정월 대보름, 이 설 세고 나면  
이제 어디로들 가야 한다요.  
마을회관 담벼락에 갈겨 써놓은  
댐건설 결사반대 투쟁구호에  
반짝, 겨울 햇살에 아직도 쟁쟁한데  
저기 점봉산 가마봉 너머로  
하루해가 구불텅 기울어 갈 때  
밥짓는 연기가 서리 서리 머리를 풀면  
안개처럼 초가지붕 덮기도 하고  
꿈길처럼 당산나무 휘어감기도 하는  
그림같은 우리동네,  
깔 망태기 한 짐 그득 짊어지고  
지개목발 장단 맞춰  
흙에 살리라 콧노래도 흥겨웁던  
양짓말 뒷버덩 남겨두고  
이 겨울 가고 나면

어디로들 간당가요.  
메밀국수 둘러먹던 사랑방에는  
시렁 위 메주덩이 갈라진 골짜마다  
허연 꽃을 피우고 꼬시랑한  
당신의 늙은 냄새 아직도 서러운데  
조상님네 유택은 또 어찌하고요  
텃밭가 엉켜 쓰러진 방동사니 쪽대머리 위로  
잔설만 심란한 이 삼동에  
부지깽이 꽃을 땅 한 뼘 빼기 없이  
삐겨대는 허재비 몸동아리로  
허위허위 어디로들 가야 한대요.

■ 손흥기

---

·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작품활동 시작

# 내린천 댐 건설을 규탄

원영동

백두대간 흘러서  
설악산 뺄어나고  
오대산 우뚝서서  
내린천이 북으로 역류한다.

강원도 인제땅은  
우리나라 오지 중의  
으뜸가는 산마을.

물도 공기도 맑고  
짐승과 버리지도 많고  
인심도 원시 토속적인데.

여기 내린천을 막아  
역사를 묻고  
생명을 앗아  
원시 환경을 죽이려 한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겨레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고  
죽음으로 댐 건설을 반대한다.

■ 원영동

---

- 한국문인협회 이사
- 현대시인협회 부회장
- 한국 농민문학회 회장

# 내린천

이경우

나는 외로웠던 개구장이  
그대 가슴에 꼭꼭 숨어  
살고 싶어요

잘 왔다며 내 손 잡고  
그대 나를 숨겨 둔 채

고향 샘물 먹여 주고  
눈썹 이슬 닦아주면

너무 행복해 어쩔 줄 몰라  
여기가 하늘이라 크게 말하지요.

## ■ 이경우

---

- 1952년 거창 출생
- 월간 <문학세계> 등단
- 한국월정문인협회 사무국장
- 문학세계문인회 이사
- <푸른시와 사람들>시 낭송 클럽 상임 이사
- <서울 시낭송 클럽> 회원
- 시집 『삶을 움직이는 이유들』, 연작시 <명퇴야제의 고발>

## 허무제 · 38

— 청성곡淸聲曲을 들으며

이수화

슬프니이다  
슬픈 音色은  
눈에 선하니이다.

대들보에 목매달아  
사무치는 女恨이  
눈에 선하니이다

참으로 삶고 고와서 홀로라도  
살고픈 건 산골짜기 저 혼자 졸졸졸 밤낮없이  
노래하며 흐르는  
물소리니이다.

### ■ 이수화

---

- 1939년 서울 출생
- <현대문학>지로 등단
- 자유시협, 현대시협부회장 역임
- <시문학상> <포스트모던>지 작품상 수상
- 시집 『칸타타 코리아』 『허무제』 등 편저 20여권
- 현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국 문협 감사

# 내린천의 절규

이은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서울을 위한 것인가

소양댐 물만큼이나  
막혀서 고인 서러움의 질문이다

더는 기다리고 바램이 아닌  
분노와 저주일 것이다

뒷날 후손들이 원하는 땅을  
오늘 지켜서 넘겨주기 위함이다.

## ■ 이은무

---

- 1940년 흥천 출생
- <현대문학>지로 등단
- 시집 『낮은 소리로』, 『생의 갈피에서』, 『핏줄』, 『밤뚱』외 다수



# 물 없는 바다

조영미

아무도 오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저 바다는 입다물고 있다. 사람들이 던져두고 간 빈깡통이며 음식 찌꺼기들이 잠플처럼 바람결에 몸을 사리고, 낮은 산등성을 올라타는 바다 안개는 산이 좋다 한다. 갑자기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생각뿐, 나는 옷을 벗을 수 없다. 희멀건 살갓을 그대로 보였다는 분명 먹히고 말 테니까. 참을 수 없다. 바다를 품을 수 없는 이 가슴이 차라리 터져버렸으면. 손바닥을 펴고 한껏 내리친다. 파다다, 파아다아다악 깜짝 놀라 튀겨 오르는 저 갈매기.

그래 너도 산으로 가거라. 물 없는 산머리로.

## ■ 조영미

---

- 1972년 서울 출생
- 1993년 <자유문학>으로 등단
- 제3회 서울 시인상 수상
- 녹색시인회 회원
- 시집 『선명한 금』, 『사람 사람아』

# 산(山)길을 가다가

이은방

솔바람 물소리 틈운  
원시림 숲속을 들다

사라진 절터에서  
끊긴 인적 주위 보고

빈 골짜기  
한 오십리길  
적멸(寂滅)궁에 들었니라

시원의 향기로 남은  
퇴락한 정적을 깔고

황금새가 날아 앉아  
피안등(燈)을 쪼아댄다

불현듯  
밀려온 노을자락  
산 그림자를 끌어 덮네.

## ■ 이은방

---

- 1940년 충북 옥천 출생
-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 <시조문학> 천료
- 한국시조문학상, 노산문학상, 한국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수상
- 시집 『다도해 변경』, 『물빛 고인 하늘』, 『바람꽃 우는 소리』, 『백두여 천지여』외 다수
-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 풀 꽃

이성선

맑은 마음을 풀꽃에 기대면  
향기가 트여올 것 같아  
외로운 생각을 그대에게 기대면  
이슬이 엉킬 것 같아  
마주 앉아 그냥 바라만 본다.  
눈맑은 사람아  
마음맑은 사람아  
여기 풀꽃밭에 앉아  
한나절이라도 아무 말 말고  
풀꽃을 들여다보자  
우리 사랑스런 땅이 숨소리를 듣고  
애인같이 작고 부드러운  
저 풀꽃의 표정  
고운 눈시울을 들여다보자  
우리 가슴을 저 영혼의 눈썹에  
밟히어 보자  
기빠서 너무 기빠

눈물이 날 것이네  
풀꽃아  
너의 곁에 오래 맨발로 살련다.

## ■ 이성선

---

- 강원 고성 출생
- <문학비평>, <시문학>으로 등단
- 시집 『하늘문을 두드리며』, 『새벽꽃 향기』, 『절정의 노래』, 『벌레 시인』외 다수
- 정지용 문학상, 한국 시협상, 시와 시학상 수상

#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이상국

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개울물이 밤새 닦아놓은 하늘로  
일찍 깬 새들이  
어둠을 물고 날아간다

산꼭대기까지  
물 길어 올리느라  
나무들은 몸이 흠뻑 젖었지만  
햇빛은 그 정수리에서 깨어난다

이기고 지는 사람의 일로  
이 산 밖에  
삼겹살 같은 세상을 두고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나는 벌레처럼 잠 들었던 모양이다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이슬이었을까  
또 다른 벌레였을까  
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 ■ 이상국

---

- 강원 양양 출생
- <강원일보> 신춘문예, <심상> 신인상 등단
- 시집 『내일로 가는 소』, 『우리는 읊으로 간다』외 다수
- 현재 민족문학작가회 이사, 민예총 강원도지회장

## 무엇인가를 가진 자들에게

이영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그토록 후손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몸으로, 순수로, 아우성으로  
지키려는데 지켜 가려는데  
그토록 힘으로, 억압으로, 밀어 부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아, 보라. 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소수의 권세가들을 위해  
산 등성이가 대머리처럼 벗겨져 있는 골프장들을  
그러고도 모자라  
청정, 천혜의 이 지역마저  
수장하려 드느냐, 매장하려 드느냐  
우리는 묻노니  
무엇을 향한 충성인가  
무엇을 향한 이권인가



무엇을 향한 건설인가  
우리의 뜻과 돌아서 가려는 사람들은.

## ■ 이영춘

---

- 강원 평창 출생
- 〈월간문학〉 신인상 등단
- 윤동주 문학상, 강원도 문화상(문학), 경희문학상 수상
- 시집 『중점에서』, 『시지프스의 돌』, 『귀 하나만 열어놓고』, 『난 자꾸 눈물이 난다』외 다수
- 현재 한국문협강원지회 부지회장, 춘천 발산중학교 근무, 한림전문대 출강

# 내 고향 美山寸에는

이 정

I.

내 고향 미산촌에는  
오월 목련이 핀다네  
흩어지는 꽃잎따라  
아쉬움 채우러 오시게  
멀리 지평선 없어도  
산허리 타고  
여름 오는 줄도 모르게  
늦 칠썩이 한창이라네

꽃 질 때 꽃 피는  
비 개일 때 비오는  
내 고향  
비탈밭 이랑마다  
종달이로 뜨는 노랫가락  
어깨춤 덩실덩실  
農舞한번 쳐보게나

지평선

하늘 끌어당기는 아스라한 땅의 유혹인가

산촌에 산 그림자  
우물 속에 뜨는 하늘이 있을 뿐이라네

내 고향 미산촌에는  
사월 잔솔 밟으며  
뒷북치는 사람들이 살고  
사시사철 하늘 푸른  
솔바람이 불고 있다네.

■ 이 정

---

-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 현 내린문학회 회원

# 물뱀이기

- 내린천

이충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가겠네 물길은 사람들을 따라 나서며 소리치네 산맥은 동해 쪽에 바짝 몸을 붙여 세로 누비고 내려가면서 큰 소리로 일러주셨네 기린사람들은 모두 산에 올라 산뱀이기하고 골짜기로 내려가 물뱀이기하라네

그때는 모두들 어리석고 어리석어 입도 뻥끗 못하고 주눅이 들었었네 아랫말 가로리 남전리 관대리 두무리 사람들은 일괄 주장시키는데도 쳐다보기만 했었네 물뱀이기 물뱀이기

머리 좋고 잘 난 자들아 너희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송침 금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몰랐겠지 지금도 우리 기린 사람들은 몹시 어리석고 생각이 없다고 말하겠지 그래 우리는 산천을 목숨줄로 알고 산다 산길과 물길로 서로를 지켜가며 산다 서로 가난하고 없으면서 서로 부자이며 편안케 살아왔다 모든 일에 조심하고 흠치고 빼앗지도 았았다 너희들도 발대산 북쪽으로 다 와봐라 물뱀이기 물뱀이기

내 목숨줄 끊겠다고 안된다 안돼 내려가야 할 길과 올라가야 할 길을 다 막아 모두를 잃겠다는 거냐 가난해도 마음 편히 살며 하늘땅 주신대로 모두 함께 살자 우리 인제 사람들은 주신대로 자연답게 살고 싶다 이제껏 우리는 하고싶은 말마저 다 할 수 없어서 막걸리잔만 들었다 놓았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물뱀이기 물뱀이기

참싸리꽃 피나무꽃 필 때쯤 한번 와봐라 짬뽕나무 눈잣나무 이노리

나무 한 번이라도 눈여겨 보았느냐 내 목숨줄이며 네 목숨줄이기도 한  
내린친의 여메기를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물댁이기 물댁이기 벗어 줄  
것 다 주었는데 아주 목숨줄 까지 당겨가겠다는거냐

두릅 떡취 곰취 더덕 참나물 고사리 가양취 싸리버섯 송이버섯 피꼬  
리버섯 느타리버섯 다 죽었는데 눈을 뜨고 금강초롱의 아침과 게느삼  
이 저녁을 찾아보거라 내 죄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땅을 지키고  
있다는 죄밖에 없다. 옛부터 기린사람답게 살아온 죄밖에 없다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야 콩 감자 수수 메밀 깨끗한 물뿐이다 너희들보다 더  
잘 먹는 거야 고비 머루 다래 으름뿐이야 요사이 우리도 무심이를 먹  
기 힘들어졌다

인제사람들은 살아가는 길이 힘들면 다리뎀 팔고 잠깐 쉴 곳집 한칸  
이면 된다 물의 길을 막지 말라 결국 물길을 끊고 나면 사람이 갈 곳이  
없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며 쉬임없이 산다 물댁이기 물댁이기.

## ■ 이충이

---

- 1943년 목포 출생
- 〈월간문학〉으로 등단
- 제2회 운동주 문학상 수상
- 제5회 자유시인상 수상
- 시집 「깨끗한 손」외 다수
- 한국녹색시인회 회원

# 아프고 싶지 않아요

이순자

내린천에 봄이 오면  
살금 살짝 새순 트고

파르라니 물빛속에  
실밥 같은 고기떼가

닷새 장 어머니 발끝에 앞서가던 내 고향.

미역 감던 벌거숭이  
그 애들 다 어디 가고

나물 캐던 방천가엔  
몸살 앓는 신음만이

요람 속 가슴 헤치며 메아리져 눕는다.

---

## ■ 이순자

- 〈시조문학〉 등단
- 강원시조문학 동인

## 고사동에서 보내는 편지

이창준

사슴이 백년묵어 기린이 되었다는  
할머니 마을 고사동에  
가을이 석류알처럼 붉게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번 다녀 가신다기에  
산나물도 많이 말려 두었습니다.  
머루, 다래, 돌배나무술도  
매깔 좋게 익혀 두었구요.  
집안 어른들이 이번 추석엔  
형님이 무슨 수가 있어도  
꼭 다녀가셨으면 합니다.  
선산땅이 내린천담 건설로  
물에 잠길지도 모르는데  
건교부에서 나라 녹(綠)을 받아 먹은 지가  
30년 가까이 된 집안 장손이  
손을 놓고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지방 높으신 분들도 다 삭발하고  
아랫말 석기형님댁은  
소값 파동으로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도  
마지막 남은 비탈밭 지키겠다고  
농사일 작파(作破)하고

댐건설 반대투쟁 했습니다.  
국토(國土)의 반을 막아 놓고도  
책임있는 윗분들이 그것도 모자라  
천혜의 청정(淸淨)지역을 또 막겠다니  
가슴아픈 일입니다.

형님, 이번 가을엔  
힘든 걸음이지만 오셔서  
고사동 바위산에 널어둔  
토종 벌통을 활짝 열어 보시겠습니까.  
자생력이 강한 벌떼들의  
붕붕대는 소리를 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고사동 - 내린천변에 있는 옛 마을 지명. 현재는 고사리라 함.

## ■ 이창준

---

- 인제 원통 출생
- 현 내린문학 회원



# 산과 강 그리고 사람

이충재

산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헛기침만 하곤 그냥 그렇게 앉아서  
바람소리로 마을 안을 잉잉 서성거리고

강은

또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물고기떼 서로서로 갈렘질하며  
징징거리는 심호흡으로  
다만 자신의 노동을 신에게 알리는 기도하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고  
푸석푸석한 신작로가 흑면지를 연신 퍼올리며  
동에서 서로, 사방 분주하여 어지럽고  
한발자국 내디딜 수가 없다

산과 강은

잉-잉, 징징 거리며

존재의 존재 곁에서 기다림을 노래하고  
시계 초침의 꺾이는 소리는 자울자울 거린다  
세상 끝은 들마꽃만개한 돌다리목 어디쯤 될까.

## ■ 이충재

---

- 강원도 횡성 출생
- 시집 『나무와 아이들』외 다수
- 녹색 시인회 회원

# 內麟川 너 永遠하라

— 댐 建設 計劃에 붙여

오정진

江은 흘러야 自己召命을 다 한다  
不斷히 길을 열어 제갈길을 가면서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어  
萬物에 生命을 붙여 넣는다

때문에  
江이 흥겹게 어깨춤 추며  
흘러가면  
森羅萬象이 모두 生氣에 넘치고  
파헤치고 막아  
썩고 病들면  
萬物도 썩고 病든다

보라!  
어리석게도 生命의 母胎 內麟川을 막아  
코 앞의 效用을 取하려 하지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萬里를 날아도  
三藏法師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듯  
大自然의 理法을 한 치도 어기지 못하고

벼락보다 무서운 災殃만  
불러들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身命을 던져  
너를 天然의 모습 그대로 지켜 나갈  
決意를 다진다

太古의 神秘속에  
구비구비 칠십리를 휘돌아  
그 물메아리 골을 넘치는  
內麟川!

祖上이 代代로 너와 더불어  
살아 왔듯이  
우리 또한 네 품에서 살다가  
子孫萬代에 물려  
흐르게 하리라

內麟川 너 永遠하여라  
그리하여  
森羅萬象을 끊임없이 안아 키우리라.

■ 오정진

---

- 인제 출생
- <한맥문화> 신인상 등단
- 인제문화원장 역임
- 시집 『혼자 불러본 노래』

# 도리깨

— 내린천 부평 할매

윤영희

소양강댐 건설자는  
삼족을 수장하여도  
24년전 고향 잃은 부평 할매는  
가슴속 빨장게 멍이 들텐데  
이제 와서 돌이키면 뭘 하나

몇 푼 안되는 보상금 받아  
김부리 비탈밭 일구고  
조상묘 이장하며  
한번 더 쓸어 내렸던 목마름  
나라에 좋은 일이라니 참고 살아왔는데  
수장할 놈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제병 훈련장이니 포 사격장이니  
김부리 내주고 경운기에 꽤짜집 얹혀  
쫓겨 나온 만 1년도 안된 지금  
자식새끼 서울어디 막노동자로 내보낸 뒤  
내린천변 폐가 한 채 얼어 몸만 디밀었는데  
한탄 할 이 절규는 내린천 댐이라니

인제가면 ‘댐’뿐이라니 원통해서 못살겠네

이제는 쇠잔하여 손 놓고 몸  
염병할 내팔자에 오래 살면 뭘하나  
낮 들고 도끼 들고 이번만은 막아야지  
내린천댐 건설 운운 자는  
삼죽을 주장하여도  
부평 할매 간절한 목마름으로 절규하며  
내 새끼 회귀할 이 길만은 지켜야지.

■ 윤영희

---

-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 내린문학 회원

## 오산천 하구에서

조광원

철 늦은 봄비는 내리고  
하구까지 힘겹게 흘러온  
오산천은 숨이 차서 울지도 못한다.

갈대 숲을 빼앗긴 하구  
순결한 갈대숲 대신  
인간 양심이 버린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을 방불케 한다.

우리의 양심에다  
상처만 남기고 떠난 철새들,  
폐오수 사이에 남겨진 새둥지만  
늦은 봄비에 젖는다.

희뿌연 안개 속에  
더럽혀진 갯벌 멀리  
천변의 수많은 공장 굴뚝들.

아무말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봄비에 젖은 채 씹어 가는  
인간이 만든 윤간(輪姦)의 현장.

아랫배에 힘을 주며 일어서려다  
오산천 하구는 기어이 주저앉는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이다  
무더위와 함께 씹어 갈 삶 위에  
폐허되는 삶의 모래사장 위에  
인간의 양심도  
씹어 가는 쓰레기도  
장마비는 휩쓸고 갈 것이다  
우리의 삶과 어두운 오산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 ■ 조광원

---

- 한국문인협회 화성지부장
- 유네스코 경기도협회 이사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수필집 <아내가 아름다울 때>

# 麒麟은 날마다 꿈을 꾸다

정정조

기린이 뛰어 놀게 하자  
가장 신성한 생명의 백두대간  
내린천 맑은 물이 굽이돌아  
합강을 어루만지고  
소양호 쓰디쓴 기억들을 보듬어 주는  
초식동물의 천국

설악에서 십이선녀의 흰 가슴처럼 눈꽃을 피게 하자  
용대리 백담에서 솟구치는 용은 천 년을 살게 하자  
진동리 처녀림엔 봉황이 깃을 치게 하자  
가장 선한 기린의 발걸음으로 인제를 다독거리 주게 하자

동쪽 산자락 진동리에서 서쪽 호숫골 관대리까지  
북쪽 향로봉에서 남쪽 가득봉을 따라  
기린은 첨단의 순수를 꿈꾸며 살아왔느니

20세기 썩은 자본주의를 먹고사는 하이에나를  
내린천 푸른 물에서 노래부르는  
열목어의 햇살 고운 심성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끼 한 포기, 조약돌 하나, 양지꽃 한 뿌리도  
또 다시 개발의 미명으로 수장하여서는  
가장 아름다운 증오가 역사를 기록할지니

초롱초롱한 금강초롱꽃  
麒麟의 꿈속에서  
마음껏 이슬을 먹게 하여야 한다.

## ■ 정정조

---

- <시조문학> 등단
- 현재 한국문협 강원지회 사무차장, 화천고교 교사

# 환경詩 · 1

— 비닐꽃

정연휘

비닐꽃이, 허연 꽃이 또는 꺼먼 꽃이  
상가(喪家)의 지등처럼  
도시의 거리의 뒷골목에 흐드러져 피고,  
봉황산 산자락 산허리  
도토리나무 싸리나무 잡목림에,  
두타산 정상주목 철쭉나무 가지에  
낄낄낄 귀신 울음소리로  
소리내어 웃다가 울다가  
그래도 기운이 넘쳐 펄럭이고 있다.

내 피부 내 허리에 부스럼으로  
내 정신에 악령으로 파고들어  
펄펄 신열을 일으키는  
이 거리에서 저 거리  
저 산에서 이 산, 시들지 않는  
피고 피고 피기만 하는 꽃으로  
우리들의 죄가 종횡무진  
질 줄 모르는 악의 꽃으로 피어서  
지천에 펄펄 펄럭이고 있다.

## 환경詩 · 2

— 휘파람

원 목소리로 휘파람을 분다.  
병이 깊은 아픈 도시를 벗어나  
도시의 인근 무명의 산에서  
나의 마음이 아파  
이 세상 내려다보고

그렇게 휘파람을 분다.  
아린 마음을 뱉는 소리이다.  
타락한 가슴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험박과 술수를, 사악함을,  
가방에 챙겨 나오는 직업이다.

그렇게 휘파람을 분다.  
병들어 썩은 세상의 몸에서  
아니, 나의 몸에서 썩은 피고름  
삼 천 바가지를 퍼내는 소리이다.

### ■ 정연휘

---

- 삼척 출생
- <문학정신> 등단
- 한국예총 삼척지부장
- 삼척문협 시분과 위원장
- 시집 『해문밖에서』, 『술 숲에는 바다가』

# 이런 숲을 만들려면

— 진동계곡에서

장승진

숲에 들어본 사람만 아네  
숲속에 들어  
숲의 말을 들어본 사람만 아네  
이 세상 실로 소중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기로 불타는 그윽한 눈동자를  
숲을 아는 사람만 아네

온종일 밀리는 자동차에 갇히고  
사람 숲에 부대끼다 기막혀  
늦은 밤 아파트촌 어린이 놀이터  
작은 그네에 걸터앉아  
그대 숲에게 전화를 걸었네  
마음이나마 나무들 촘촘한 산속에 들면  
다시 청청하게 살아 나올 것 같아  
그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네

그런데 어느날 나의 오래된 숲에게서  
전보가 왔네  
애절한 나뭇잎 전보지가  
허공을 땀뿔아 발밑에 떨어졌네

그날 진동계곡엔  
눈보라에도 꺾꽂하던 나무들이  
산을 부여잡고 일제히 참매미 소리로 울고  
개구리와 풀여치 다람쥐 도롱뇽  
돌틈의 가재와 모래무지 눈물이  
조용히 내린천을 흘러 내렸네

이 숲을 허물어 댐을 만들고  
집집마다 에어컨을 켜지만  
그 서늘함이 이 숲을 당할까  
나중에 이런 숲을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가능한 일이거나 할까  
사랑을 아는 이만 사랑할 자격이 있듯  
숲을 아는 이만 숲을 세울 수 있네  
숲을 위해 싸울 수 있네  
그리고 메마른 세상에서  
함께 살아 남을 수 있네.

■ 장승진

---

- 홍천 출생
- 〈심상〉 신인상 등단
- 현재 양구 해안중학교 교사

## 배회하는 합강(合江)

조해숙

굽이굽이 휘몰아치는 거친 물살 헤치고  
산나리꽃 피는 산 노을  
소꿉친구 어깨동무에 그리움만 더해  
등 굽은 바람 쉬어 가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개똥벌레 파란웃음  
떨 듯이 터지는 별  
강물에 뛰어든 달무리를 붙잡아 보면  
초막집 노부부 길어진 한숨  
헤진 눈물 닦아내고,  
합강(合江)에서 만나 합장이나 하자던  
열목어의 깊어진 골짜기에 물안개 피어난다.

### ■ 조해숙

---

- 66년 고창 출생
- <농민문학> 등단
- 한맥문학 회원
- 내린문학 회원



# 망초꽃밭을 지나며

지영희

키 넘은 망초꽃들이 키들거리며  
삼포리 오호초등학교 담을 돌아  
잡풀 무성한 산자락에  
한 발 이루어 살고 있다  
경주 산내면 생식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살게 제발 내버려 달라며  
사람들이 알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는데  
언제부터  
갓 내린 햇빛을 생식하며 살았는지  
저마다 흰하다  
알았다. 내 암 말 얹으마  
홀깃 한 번 주는 눈빛도 독이 될까봐  
옆도 안보고 내려오는데  
아름다움은 숨겨도 먼 빛을 내는지  
홀연 그림자가 앞선다.

## ■ 지영희

---

-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등단
- 한국문협 회원
- 영북문학 회원
- 고성 오호초등학교 교사

# 관대리 사람들

최관용

72년 소양댐이 생긴 후  
고향을 수장시킨 관대리 사람들.  
땅이 있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  
멀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렇지도 못해 고향 언덕에 집을 옮겨 짓고  
40여가구 옹기종기 오순도순 모여 살다가,  
댐물이 에워싸고 마을을 고립시키자  
살 수 없다 모두 떠나고  
현재 15가구만 있는 오지마을에  
사는 관대리 사람들, 수몰 직전까지는  
160여가구나 됐던 관대리 였는데  
옛날 많던 이웃 친지들 다 어디가고  
가구수가 1개 班도 안되는 관대리.  
학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는  
관대리. 장을 보러 가려면 하루에 다섯 번  
건네주는 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로 가야하는  
관대리. 버스도 안 다니는 관대리.  
논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농산물을 내다 팔 길이 막막해  
오지마을 청년들 도시 떠났다가

도시 생활 적응 못하고 다시 오지마을로  
되돌아 와 젓소 키우며 사는 관대리.  
집집마다 울타리도 없는 동네 관대리.  
집집마다 차가 없을 정도인 관대리.  
농가 10여 가구에 젓소가 2백여 마리나 되는  
관대리. 그림같은 마을 관대리.  
부자마을 관대리, 그러나  
다시 외국산 우유가 수입되면  
관대리의 그림같은 낙농업도  
외국산 우유에 잠기도 말겠지.  
그리고 오지마을로 돌아 온 젊은이들  
도시에 나가 정처 없이 떠돌고  
서울 사람들만 그림같은 동네에  
그림같은 별장 짓고 살겠지. 수몰지역 이주민,  
관대리 사람들 또다시 고향 땅에서  
쫓겨나도 상관 없는 서울 사람들만  
관대리에 와서 울타리 치고 살겠지.

#### ■ 최관용

---

- 〈작가세계〉를 통해 시로 등단
- 강원일보 월간국 기자

# 툽

최광호

툽을 든 사내가 나무에 오른다  
봄날, 간판을 가리거나 전깃줄을 치솟는  
가로수는 잘려 나간다  
심한 충격 뒤에 영혼은 이미  
엎드려 올 책상마저 없는 법  
새들도 그의 애인이 아니다

처음 이 도시에 나무를 심은 자들은  
단 한번에 물을 퍼붓고  
이렇게 속삭였다  
<무력무력 자라 다오, 도시를  
푸르게 푸르렙렙하게 푸르통통하게>  
나무는 그 말을 믿었다

그것이 실수인 것이다  
잘 자란 가로수는 도시의 종기 같은 것으로  
미관상 양팔을 내주어야 했다  
무성한 잎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집 정원에 나무를 심고

실내에서는 화분도 가꾼다

물이 올라 푸른 가지에  
시퍼런 톱날을 들이미는 사내  
마구잡이로 잘려 나가는 가로수들  
봄날, 윤간 당하는 처녀 같다.

■ 최광호

---

- 속초 출생
- <강원일보> 신춘문에 당선
- 현재 민예총속초지부 사무국장

## 점봉산(點鳳山)

- 이제 다 잊으라 하였네

### 최단천

나는 지금에야 알겠네  
돌산을 넘어서야 겨우 알았네  
점봉산 1,424m 너른 가슴속  
이 커다란 자유의 호흡을 맞추었을 때  
내가 바로 숨쉬고 바로 사는 것을  
젊은 날 첫사랑, 설악에 미쳐서 거친 숨소리  
헐떡거리며 온통 설악에 거들먹거리면  
점봉산이야 오색 한 귀퉁이에서  
약수나 떠 마시던 곳 아니냐  
내 열정 아직 불타고 있지만  
억센 인파에 밀려서 북새질 교통에 치어서  
비바람에 쫓겨서 다시는  
설악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산은 조용히 큰고래골 지나 주전골 넘어로  
십이담 십이폭포를 흘리며  
나의 슬픔 씻어 주었네  
그 물 숨어 흐르길 줄 알고  
그 물 가슴 넘쳐 구렁하며 달래줄 줄 아는  
생왕(生旺)환히 보겠네  
정상에 오르면  
산은 설악산 모든 것을 구름 속에서 꺼내 보이네

서북릉 따라 안산, 귀뚜기 청봉, 소청, 대청 가리키며  
 이제 다 잊으라 하였네  
 그리고 가슴에 품은 크나큰 봉황마저  
 까마득히 날려서 무소유의 사랑을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천년(千年)을 지키는 노송을 기루어내어  
 내 숨소리 붙여 보람을 주었네  
 그 보드라운 기화요초(璣花搖草) 향기속에  
 십이담 십이 굽이굽이 폭포를  
 산죽은 산죽으로 산철죽을 산철죽으로  
 속세(俗世)로 내려보내 골골마다 속속들이  
 눈곱때라도 씻고 또 씻어 공수(拱手)로 받들라하였네  
 나는 지금 비로소 알겠네  
 점봉산 품속에 안겨들면  
 우리들 첫사랑 뜬 봉황도 아득히 솟아올라  
 점점(點點)으로 사라지는 원시림 점봉산이 되어  
 십이담 십이폭포로 한세상 돌아오고 있음이여.

## ■ 최단천

- 1943년 함남 안변 출생
- 〈문예한국〉 등단
- 단국문학상, 한국문인산악회 문학상 수상
- 시집 『호박꽃 초롱에 술을 부어 마시니』, 『고조선의 마늘여인』, 『산시』외 다수

# 내린천은 한강의 어머니

최돈선

한강은 태백산맥에서 태어난다  
북으로는 북한강  
남으로는 남한강  
그 두 줄기의 젓줄이 한강의 깊은 뿌리,

그래서 한강은  
도도한 흐름을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다.

북한강은  
태백산맥 깊은 곳  
인제의 내린천이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강.

그러니 내린천은 한강의 어머니요  
이 나라의 생명줄인 것을,  
한강을 키우고 한강을 살찌게 하고  
한강을 살아 숨쉬게 하는  
내린천,  
그 맑은 물이 바로 이 나라의 숨결인 것을.

그런데



그 내린천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  
겉없는 한강을 신선한 생명줄을  
끊으려는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라.  
다리는 잘라도 살 수 있지만  
머리를 자르면 살아남을 자 그 누구인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뽕뽕 묶어 버린다면  
어찌 살아남을 자 있으리.  
내린천은 바로 한강의 머리,  
내린천은 바로 한강의 젖꼭지.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 법  
젖꼭지가 막혀 상처를 받으면 고름이 나오는 법  
그 고름이 흘러  
이 나라의 심장부를 관통한다면,  
만약 그 고름을 우리가 마신다면,  
우린 모두 병들고 시들어  
끝내는 쓰러지고 말리.

그리하여

내린천은 흘러야 한다.  
한강의 영원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야 한다.  
흐르는 물은 그대로 흐르게 하라.  
맑고 신선한 이 나라의 생명줄에 입을 대고  
얼음같이 찬 물을 마시게 하라.

한강은 내린천으로 하여  
꿈꾸고  
내린천으로 하여  
영원하다.

내린천이여  
네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흐르는 역사를 배운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어머니의  
젓가슴으로 하여  
우리는 이 나라의  
튼튼한 뿌리가 된다.

## ■ 최돈선

---

- 인제 남면 출생
- <강원일보>, <월간문학>,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문단 데뷔
- 시집 『칠년의 기다림과 일곱날의 생』, 『허수아비 사랑』 산문집 『외톨박이』 등



## 지구를 살리는 작은 씨앗

최복형

아름다운 우리 땅  
깨끗한 우리 물  
맑은 우리 공기  
맑고 푸르른 우리 자연.

검약하는 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일  
내가 하는 작은 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일.

환경을 보호할 사람도 나  
환경을 오염시킬 사람도 나  
사람의 참모습은 여러가지  
환경을 먼저 보호하는 참모습.

물이 살아 숨쉬는 소리  
물고기가 잠자는 소리  
흙이 속삭이는 소리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깨끗한 금수강산  
우리의 자연은 세계 제일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나  
지구를 살리는 작은 씨앗.

## ■ 최복형

---

- 흥천 출생
- <월간 아동문학> 신인상 등단
- <시조문학> 동시조 천료
- 한국 아동문학 이사
- 동시집 『편지 나라 우체통』외 다수
- 춘천남부초등학교 교사

# 흐르는 것은 저대로 흐르게 하라

최병헌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사람 살 곳 못된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땅에  
나는 태(胎)를 묻었나니

낮은 곳은 눈을 뜨고  
높은 곳엔 발 일구어  
씨 뿌리고 가꾸면서  
살아 있는 모두와 더불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주고 받으며  
정(情)하나로 살았거늘

누가 시샘하는가?  
저리 순하고 여린 가슴에  
칼을 꽂는자 누구인가?  
힘을 믿는자들은 힘에 의해 정복됨을

두려워 하라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산하(山河)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흐르는 것은 흐르게 하라.  
흐르는 것은 저대로 흐르게 하라.

■ 최병헌

---

- 인제 출생
-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 현재 인제군청 근무
- 시집 『이야기가 그리운 날』

## 저질의 시대

최창우

진동계곡에 양수발전소가 생기고  
식물학자는 도난당한 식물도감을 찾기 위해  
도하 신문에 도난품 광고를 내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냈지만  
그가 찾은 것은 우유빛 진동계곡 하류에 떠내려가던  
죽은 열목어의  
아가리에 가득 찬 토사 한 줌.

진동계곡에 양수발전소가 생기고  
삼, 늑대, 목도리, 날담비  
하늘다람쥐, 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  
짐승들은 인근 암자스님이 써 붙여준 생명표  
부적을 아직 꼬리에 나풀거리고 나다니고 있었건만  
점봉산 심마니들은 오래전부터 그 전설을 엿보고  
때로 산중에서 짐승들이 새끼낳고 광경을 목도하고  
그들 또한 사람 새끼들을 낳아 키우고  
더러는 서울유학을 보내기도 하였건만  
진동계곡에 양수발전소가 생기고  
금마타리꽃잎이나 한계령풀잎에 구르던 물방울들이  
불도저, 페이로더, 착암기 같은 중장비로

토막나고 미열이 오르고 얼룩이 저서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혹은 표창형으로  
좌충우돌 두부모처럼 잘린 수줍은 바위 사이로  
외롭게 검은 눈을 내리깔고 흐르고 있다.

진동계곡에 양수발전소가 생기고  
백두대간에 대침이 박히고  
남대천에 사는 연어들은 이사를 서두르고  
촌노처럼 어눌한 주목들은 개성을 잃고  
몸통만 남아 단으로 묶여 있고  
우리 조상들과 누대의 평화를 같이해 온 짐승들은  
토벌된 공비들처럼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 ■ 최창우

---

- 서울 출생
-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
- 한국 월정문인협회 회원
- 현재 재정경제원 사무관



## 내린천

최인홍

돌을 들치면  
가재 기어나오고  
하얀 고무신 속  
잡은 송사리만큼이나  
반짝이던 웃음  
따뜻한 바위에 등 비비며  
물을 노래한 동심이였다

순복이가 건넌 강가에서  
발목 적시며 퍼올리던 모래  
강물에 뿌리고  
등짐보다 무거운 발걸음  
친구 떠난 강가에서  
온 몸으로 뜨던 물수제비  
부서진 만큼 부드러운 모래에  
이름을 쓰며  
강물의 깊이를 깨달은 사춘기였다

삶의 무게 이끌고 강가에 서면  
묵묵히 대작해 주고

한 줌 재로 남은 친구  
안아 주던 깊은 가슴  
세상 버틸 수 있는 끈으로 잡고  
함께 흘러야 할 남은 생이다.

■ 최인홍

---

- 강원 양양 출생
-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 현재 철원 김화고 교사

# 자연은 자연대로 있게 하라

황금찬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아니다. 아니고 말고  
자연은 인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주는 자연의 고향이고  
자연은 전 인류의 고향이다  
이제 병들어가고  
대 우주가 병들어 가고  
자연이 또한 병들어가고 있다

사람의 두뇌와  
그 손끝으로 만들어 내는  
꿈상스런 기계과학들이  
오늘의 우주와 자연을 병들게 하고  
또한 죽어가게 하고 있다.  
대우주를 창조한 신의 영역을  
엿보지 말라.

그 앞에 경건히 뜻을 모아  
섬기고 받들어야 하느니  
우주가 병들고 자연이 눈을 감으면  
그날이 오기전에  
인류는 마지막 문을 닫으리라.

물은 만년의 물길로 흐르게 하고  
수목은 천년의 수명을 다하게 하라  
학은 백년을 물을 밟다 떠나도  
물은 청자빛 그대로 남지만  
사람은 하루를 머물다 가도  
그 앉았던 자리의 3배 만큼의  
자연은 이미 병들어 있나니  
아! 사람아, 손을 씻어라  
그리고 마음을 씻어라  
고향이 병들어가고 있다.

고향을 묻지말라  
고향의 어머니는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우주가, 자연이, 그리고 내 고향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들이 갈 길은 어딘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자연은 생명의 고향이다.  
아! 사람아 —.

## ■ 황금찬

---

- 1918년 속초 출생
- 〈문예〉, 〈현대문학〉으로 등단
- 시집 『현장』, 『산새』, 『한강』외 다수
- 시문학상, 월탄문학상 등 수상
- 예술원 회원

# 이 새를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함동선

10월에 와 겨울 나고  
3월에 북으로 가는 철새  
개펄과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사라지면서  
세계적으로 겨우 수백 마리가 남아 있는 희귀조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흰웃 입은 사람이 좋아 온몸이 하얗고  
짜짖기 때가되면  
뒷머리에 노랑 장식 깃이 솟아나고  
앞가슴에 띠가 생긴다  
건너편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흘러가면서  
그림자를 만든다  
밝은 빛일수록 그림자가 짙은 샛강에  
주걱처럼 생긴 길고 넓은 부리를 휘저으며  
물소의 먹이 찾던 저어새  
이제  
간만에 따라 물이 났다가 바다가 났다가 하는  
개펄이 살아나고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살아나면  
뽕매기 소리처럼 가슴에 남아 올리는 저어새의

날갯짓이

문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미명이 되어

뿌옇게 흐르던 안개를 걷게 할 것이다.

■ **함동선**

---

- 황해도 연백 출생
- <현대문학> 등단
- 예술원 회원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內麟川

— 내린천 댐 웬 말입니까

한용운

푸른 꿈을 이슬로도  
목 추기지 못하는 아픔  
하늘 가슴에 담아  
〈內麟川 댐〉  
그 한숨을 파랗게 짜내는  
천년 푸른 이끼

무정치 못한 풍상을 이고  
물 무늬 파란 꿈만을 그리며  
오늘도 흐르고  
흘러 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누 천년 흘러 온 내린천

물 푸른 치마폭 자락에  
맑장개 떠 노는  
열목어, 금강모치, 새코미꾸리, 꺾지,  
통가리, 쉬리, 돌상어모래모지, 묵납자루,  
돌마자, 배가사리, 독종개, 새미,  
갈겨니, 참종개, 가는돌고기 떼들



어느 날 인가  
오염된 탁류속에  
한 맺힌 세월을 가두고  
등 굽은 피라미떼 설움을  
그 누가 아실까요

수입개방 농심으로  
면면히 잊혀간 고향사람들  
그리워서인지  
늙은 배나무위에  
갈까마귀떼만  
싫게 울고 있어라.

■ 한용운

---

- 인제 출생
- 〈한맥문학〉 신인상 등단
- 내린문학 회장

## 내린천 외 1편

허 림

친구여  
나를 나대로 내버려두게  
흐르는 것은 흐르게 하고  
구르는 것은 구르게 하고  
울릴 것은 울어 노래가 되게 해주오  
수달이 막는 물줄기야  
열목어가 살아가는 발시린 계곡 사이야  
전설이 휘감긴 고향을  
오래오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오  
아니, 고향을 그려 달라는  
아이들의 눈빛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내린천으로 흐르게 해주오  
원시의 꿈속에  
반달곰의 울음과  
오색딱다구리의 나무 찍는 소리가  
푸른 햇살 속으로 울려나도록  
그 뿌리 적시며  
오직 흐르는 것은  
막힘이 없이 살아 흐르게  
친구여  
나를 나대로 내버려두게.

## 꿈에서

할머니댁에 놀러온 정민이가 오줌을 찼다 한밤중 멀거니 일어나 ‘엄마 바지가 왜 젖었지’한다

꿈을 꾸게 분명하다

무슨 꿈일까 저 또래의 기억을 더듬으면 나도 오줌을 찼는데  
그래서 키를 쓰고 소금말이나 동냥했는데…

그 녀석은 껌보이에 빠져 있다 죽고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다  
내장을 다 들어내도 우상처럼 용감한 무적맨이 나온다 말도 끈은  
채 밥도 거른 채 무적맨이 되어 돌진한다 불과 두달만에 시대의  
유물 속으로 사라진 꿈들 로빈훗이 되고 흥부가 되고 착한 나무꾼이  
되겠다던 꿈이 완전 분해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킬러로  
복제된다 이 세상 헤쳐 나가려면 저 정도의 킬러는 되어야하는데  
끝끝내 살아 남아 그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할텐데……

또다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불 위에 그려진 지도가 그 공화국  
이길 기대해 본다.

### ■ 허 림

---

- 강원도 홍천 출생
-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
- 〈심상〉 신인상 당선
- 〈시맥〉 동인

**향토문에 제3편**

**제3회**

**'97년 환경 문예공모 입선집**



## 환경을 위한 기도

제3135부대  
김성진

지금 내 주위를 감싸주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변함 없기를 바라기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나니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우리들의 작은 보살핌으로 큰 기쁨을 누리도록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게 하소서  
아름다운 산과 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됨을  
맹세하고 맹세하나니  
거룩한 그 자태 영원하시기를.....  
한줌의 탐스러운 흙과  
가슴을 두드리는 신선한 공기와  
평화로운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 빛 맑은 물이  
항상 우리를 살찌울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소서  
아낌없이 주는 숭고하고 거룩한 은혜에  
우리들의 맑은 순수한 사랑의 손길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영원히 보존하겠나이다.

## 봄산을 오르며

인제남 초등학교  
신혁수

봄산에 오르며  
꽃들과 이야기 나누었지요.

여러색  
향기로운 꽃들이  
참 아름답다고

흐르는 냇물과도  
이야기 했지요.

냇물의 마음이  
참 깨끗하다고

멋지고 커다란 바위와  
이야기 했어요.

멋진 모습 언제나  
간직해달라고.

봄산이 내게  
부탁했어요.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을  
꼭 지켜달라고.

굳게 약속하며  
산을 내려왔지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마을로  
꼭 만들겠다고.

##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린 초등학교  
이봉로

아이들이 심은  
작고 어린 나무

비구름이 도와주고  
햇님이 도와줘서  
작고 귀여운 꽃  
피우지요

추운 겨울내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않아  
겨울을 이겨내지요

시간이 흘러흘러  
크고 멋진 큰나무 되면  
아이들이 매달린  
아픔을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나  
여름 햇빛 가려  
시원한 그늘 만들어  
아이들에게  
안겨준다

그 속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도란 도란 들려오고  
추억을 되살리며  
나무는  
더  
커간다.



## 하늘색을 모르는 아이들

제6883부대  
황 철

불현 듯 이런 생각을 해 본다.  
하늘이 어디 푸른 것 뿐인가?  
그렇다고 노을이 어디 붉기만 하나?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물감을 앞에 두고  
이름을 외운다. 공식을 세운다.  
푸른색 더하기 흰색은 하늘색.  
우습지?  
원래 나의 하늘은 그렇게 빈약한 것이 아니었어.  
화내고, 웃고, 골똥히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구름에도 가는 길이 있는  
한 10년쯤 후에 내 아이가 묻는다면  
이렇다고 해야 하나?

여름밤 옥상에 쪼그리고 앉아  
몇 안되는 별을 세어 본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생각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을 마음껏 노래하던 운동주 한 사내

별하나에 사랑과 추억과 어머니를 부르던 행복한 사내

내가 만약 저 밤하늘을 보고  
어머니를 떠올린다면 얼마나 큰 불효인가?

그렇게 가는 시를 버린다.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다시 생각 한다.  
채 영미. 투명한 것은 늘 자신을 취하게 한다던 여인  
투명한 것이 있나?  
결국 투명한 소주에나 취해 꿈을 꾸겠지.  
푸른 하늘 투명한 강 바닥의 꿈을.

## 지금도 옛날처럼

인제 초등학교  
이지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옛날 뒷산에  
호랑이가 살았데요

“떡주면 안잡아먹지.”하고  
나오는 동화속 무서운  
호랑이가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옛날 앞산엔  
꽃사슴이 살았데요.  
옹달샘에서  
물을 먹고갔다고는  
예쁜 꽃사슴이요  
하지만 지금  
앞산, 뒷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남은건 쓰레기더미와  
오염물질

내 호랑이 친구, 꽃사슴 친구  
누가 데리고 갔나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호랑이 친구, 꽃사슴 친구를  
찾아 주세요.

## 무언의 소리들

원통 중학교  
이세인

### <하나>

나는 바람입니다  
그 먼 아주 오랜 옛날부터  
향기로운 풀내음에  
어우러진 삶의 기쁨까지도  
맑은 공기 동무되어  
끝없이 드넓은 대지 위를  
휘몰아 다닌 바람입니다.  
두메 산골 풀숲에서  
높이 솟은 빌딩 숲 사이 사이까지  
새소리 물소리 가슴에 보듬고  
싱그러운 추억을 많이도 만들었던.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향기를 잃고 죽어 가는 바람입니다

### <둘>

나는 시냇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조약돌 친구 얼굴도 바라보이는

나의  
작은 몸놀림에도  
파들짝 달아났다 다시 돌아오는  
그리운 친구들 모여 살던  
꿀짜기 옹달샘에  
다시 가고 싶어 하는  
나는 시냇물입니다.  
살던 곳 떠나 굽이굽이 돌아다니며  
신기한 모습을 많이도 보았지만,  
살기 좋아진 세상에  
잊혀지고 소외되는 우리네 자연은  
그 옛날 정겨운 이들이  
소중히 아껴주던 마음이  
눈물겹도록 그리운,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들의 주검을 안고 사는  
시냇물입니다

<셋>

나는 들꽃입니다.  
산모퉁이 그늘진 곳에서도  
웃는 얼굴로  
지나가던 사람들  
말없이 반겨주던 들꽃이랍니다  
거목이 되어가던 옛 친구들 웃는 모습이  
흐르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말없이 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말없이 슬픔을 읽어내야 하는  
서러운 들꽃입니다.  
언젠가 활짝 웃던 그날이  
다시 오리라는 희망을 간직한 채  
요즘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벌이지만 글썽요.....  
들꽃의 슬픔을 얼마나 헤아려 줄런지요

<넷>

나는 소리입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지나쳐 온  
그간의 일들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그들의 슬픔어린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잠시 잊고 지낸 자연의 고마움을  
다시 깨달았다고  
앞으론  
잊지 않고 그들을 지켜나가겠노라고  
살짝 일러 주세요  
잊혀진 웃음을 다시 되찾고  
그들은  
우뚝  
일어서겠죠?

## 자연의 호소

신남 중학교  
김소미

넷가 가면  
한 움큼 고사리 손 모아  
파아란 하늘, 푸른 숲 삼키던 때  
한 모금 한 모금 시원했던 냇물

산에 가면  
둥그렇게 고사리 손 모아  
이쪽 산, 저쪽 산과 얘기 하던 때  
반가운 듯 대답했던 메아리 소리

이젠...  
한 움큼 두 손 모아 살펴보아도  
아무것 하나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이젠...  
둥그렇게 두 손 모아 얘기 해 봐도  
살려 달라 애원하는 메아리 소리 뿐.



## 그런 자연을

기린 중학교  
박선희

꽃이 없고  
나비가 날지 않는  
들이 있다면

나무가 없고  
산새가 울지 않는  
산이 있다면

물이 없고  
고기가 뛰놀지 않는  
냇가가 있다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을...

나비가 날고  
산새가 울고  
물고기가 노는  
그런 자연을...

우리손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자.

## 군에서 느낀 우리의 자연

제8690부대  
김완욱

12월 17일 뽀뽀꾸은 머리를 드러내고 어색해하던 나는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 도착했다.

미지의 곳으로 향하는 갑갑한 마음을 달래주듯 하늘에선 비가 추적 추적 내렸다. 그나마 차갑지만 시원했던 공기가 내 가슴을 뽕 뚫리게 해주어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다.

102보충대에서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로 가던 첫날 어찌다가 보이는 도심속의 작은 산이 아닌, 기세좋게 뻗어 있는 산들이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져 있어 앞으로 남은 내 군생활을 연상케 했다.

차갑다. 차갑다.

12월 강원도의 물과 공기는 뼈속이 시리도록 차가워 그렇지 않아도 얼어있던 내 마음을 더욱 굳어버리게 했다.

신교대에서의 6주는 나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간이었고 그것은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도심속에서 살아오면서 관찰자로서만 느꼈던 자연이 아니라 신교대라는 드넓은 교정에서 육체로, 직접 내뿜으로 부대낀 자연 환경은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느끼듯 신비로웠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파아란, 투명 수채화를 그려놓은듯 잡티하나 없는 파아란 하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구름같이 시커멓게 층을 이루어 햇빛마저 가리워 버리는 도심의 하늘

에 익숙해 있던 나는 마치 눈이 나뻐던 사람이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세상이 갑자기 환해 보이듯 눈앞에 펼쳐진 깨끗한 하늘에 눈이 아플 정도로 시렸다!

아주 어릴적 시골에서 살았던 나는 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펌프질을 하여 물을 퍼올리던 기억이 있다. 그 때 - 지금으로부터 15년전 - 까지만 해도 땅에서 퍼올린 물을 아무런 부담없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의 실태는 수도물도 의심스러워 각종 정수기가 불티난 듯 팔려나가고 게다가 사먹는 생수까지 생겨난 것이다.

물을 팔다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옛날 길가던 선비에게 버들잎 하나를 띄워 수줍게 우물물을 떠주었던 그런 여인네를 이젠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신교대에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너무나 차갑다 못해 뱃속이 뜨거워지는 그런물을 마셨을 때의 상쾌함이란.....

누렇게 이끼가 낀 돌들로 가득한 시커먼 물만 봐오다가 너무나 깨끗해 바다까지 들여다 보이는 강원도의 하천을 접할때 이렇게 잘 보존해 온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고픈 마음이 든다.

신교대에서의 가장 큰 놀라움은 깨끗한 공기였다.

도심속에서 생활할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목이 아프고, 눈도 따갑고, 정말 숨통이 턱턱 차오르는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신교대에서 지내는 6주 동안 참 많이도 걷고, 뛰어 다니면서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상쾌함에 몸의 구석 구석 세포까지 되살아 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들이쉬면 들이쉬는 만큼 탁트이는 가슴은 도심속에선 절대로 느껴볼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특히나 나는 기관지 천식이 있어 공기에 민감한 편인데 6주 동안의 생활에서 정말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걸 매일 매일 새삼스레 느끼곤 했다. 특히 체력단련 시간들 중에 땅에 누워 파아란 하늘과, 멀리 보이는 초록빛 산,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하천을 느끼며 맑고 차가

운 공기를 들이쉴때면 아! 이대로 이 자연속에 파묻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했다.

겨울에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건 ‘눈’일 것이다.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다 못해 사람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은 정말 깨끗해 먹어도 될 정도였다. 도심에서 보여지는 시커먼 때가 묻은 그런 눈을 볼때는 옷에 묻을까 우산도 쓰고 별 유쾌한 기분을 느낄수 없었는데 신고대에서 첫번째 눈을 맞이했을때 여자 친구와 뒹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것도 한 순간 며칠은 계속해 내리는 눈에 결국엔 질려버렸다.

신고대를 퇴소하고 89포병 대대로 전입 오면서 넓고도 깨끗한 부대 환경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악으로 둘러싸인 지대이면서도 넓고 평평한 지대에 있는 우리 부대는 겨울이 지나 봄에 접어들면서 푸르른 나무들과 풀들로 가득차 깨끗한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청명한 느낌을 풍긴다. 또한 매달 시행되는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에는 전 대대인원이 부대 안과 밖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더욱더 훌륭한 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간부님들도 같이 발벗고 나서서 실시되는 이 행사로 인해 부대 및 주변의 자연은 더욱더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군에 온 이후로 가장 자연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식물의 날’때였다.

식목일 전 후 며칠동안 주둔지 전체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꽃과 나무도 심고, 어떤것은 옮겨 심기도 하고 어떤것은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면서 부대 환경을 다시금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각 분과별로 심은 나무에 꼬리표를 달아서, 나무를 심어 놓은 이후에도 신경써서 가꿀 수 있도록 했다.

아직은 작고 꽃도 없는 묘목들에 불과하지만 고참들의 말에 의하면 여름에 펼쳐지는 나무와 꽃들의 황홀경에 부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한다.

얼마전 애인이 부대에 면회를 와주어 외박을 나가게 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구름위로 걸어다니듯 애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느닷없는 비명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애인이 길에 펄쩍 펄쩍 뛰어가는 개구리를 보고 소릴 질러댄 것이다.

“야! 그깟 개구리 하나 보고 뭘 그리 놀라냐?”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나도 청개구리 같은건 맨손으로도 잡을수 있는데 저 개구린 왜 배가 저렇게 빨개서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무당 개구리를 보고 놀래버린 애인에게 있었던 일화다. 비가 내린 날이었기에 부대앞 마을도 온통 개구리 세상이었다.

길을 걸던 애인은

“우와! 이 많은 개구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동네는 개구리만 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개구리가 많았다. 문득 시골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논 이쪽 저쪽을 뛰어 다니며 개구리를 잡아다가 뒷다리를 구어먹던 기억, 벼잎에 붙은 메뚜기를 잡아다 친구들과 구워먹던 기억들.

점점 오염되어 가는 환경속에서 기억 저 한 귀퉁이로 떨어져 가던 것들이 새록 새록 되살아나서 굳었던 땅에 비가 내리듯 내 마음을 적셔 주었다.

항상 뉴스나 신문 한 쪽을 차지하느 환경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그 오염정도는 더해만 가고 있다.

도심 속에서 살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이 곳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깨끗한 자연 환경에 놀라며 다시금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곳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구석 구석 모두가 옛날 ‘금수강산’이라 불렀던 그 때로 돌아갈 날이 언젠가 올거라고 희망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의 군생활도 멋지게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펜을 놓는다.

## 서화천 물고기

서화 초등학교  
전 진

나는 서화천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약 3년쯤에만 해도 내가 사는 강은 정말 살기좋은 강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미꾸라지, 메기, 붕어, 바가사리, 달팽이, 우렁이, 탕가리, 그뿐인가요?  
바위 밑에는 가재들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지요.

날씨더운 여름 날 오후면, 동네 개구장인들이 모두 벌거숭이가 되어  
텀벙텀벙 물장구를 치구요.

나는 여러 친구들과 물속에서 누가 빠르냐 수영시합을 벌리며 즐겁  
게 놀았습니다.

물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방망이 소리가 장단을 맞췄지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수도물이 아니라 강옆에 있는 샘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했지요.

그래서 샘터도 항상 사람들로 북작거렸습니다.

우리강은 그뻘 정말 맑아서 우리는 맘껏 물속을 헤엄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맑고 깨끗하며 우리들의 집터인 강물이 언제부터인가 달라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 둘 늘어나고 사람들이 너나없이 자가용을 타기 시작  
하면서 였나봐요.

어느 날 내친구가 병이 났어요.

글쎄, 사람들이 생활하수를 우리들이 사는 강으로 마구 흘려보내서  
우리들이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내 친구들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어떤 친구들은 서화천을  
떠나 버렸습니다.

또, 남아있는 내 친구들도 건강한 친구가 드뭅니다.

모두 아프고 어떤 친구는 등뼈가 굽어 있거나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는 이제 친구도 많이 잃었구요.

우리는 언제까지 서화천에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이곳으로 수영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곳 강물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강들은 얼마나 더 더럽다는거죠?

이렇게 우리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한대요.  
사람들은 참 바보같아요.

우리들이 살 수 없을 만치 더러운 물을 아무리 소독한다해도 그 물  
을 마시고 살면 인간인들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의 편리함만을 위해 세제도 평평쓰고 음식  
물 찌꺼기도 마구 버리고 또 어떤 양심없는 사람은 아무곳에나 버리면  
안되는 공업용 폐수마저 몰래 강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늘 똑똑한 척하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위생, 위생하면서 어  
떻게 자기의 건강과 가장 관계된 물의 소중함은 그렇게도 모르는지요.

그래서 우리 서화천에 사는 물속 친구들은 너무나 답답해요.

마음도 몸도 모두요.

우리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많은 친구들과 힘차게 물속을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고요?

그럼 서둘러 주세요. 급하다니까요.

## 죽음의 문턱에

인제종합 고등학교  
오은정

이젠 나도 서서히 죽어감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내 몸이 서서히 썩어감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내게서 멀어진지 오래고, 난 혼자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콜록콜록, 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애, 날 좀 살려줘.”

어디선가 애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앞에서 등이 이미 휘어있는 작은 물고기가 눈물을 떨구며 내게 애원하고 있었다.

“미안해.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너도 눈으로 보듯이 내 몸은 이미 썩어간지 오래고, 널 쉬게 할 만한 안전한 공간이 없어”

“왜 인간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존중해주려하지 않는걸까... 친구야, 네 맘 충분히 이해해. 마음으로 날 생각했다는 것 기억할게. 다음에 만날땐 우리둘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자. 좀 더 깨끗한.....”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을 감고 물위로 떠오르는 어린 물고기의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내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난 또 한번 죽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내 눈으로 내 두 눈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마음 아팠지만 달래줄 사람없고 눈물을 흘려야 닦아줄 사람도 이젠 없다는 것을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전에 이곳은, 그리고 난 이렇게 않았는데... 예전엔.....

불과 한달 전만해도 난 우리나라에서 ‘청결강 진’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지녔고 수 없이 많은 강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 내 자신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다. 그렇게 영예스런 이름을 얻고난뒤 내



주위엔 수 없이 많은 친구들로 뭉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즐기면서 즐거운 하루 하루를 보냈다. 적어도 사람들이 오기전까지는…….

‘청결강 진’이라는 영예스런 이름으로 마스크를 타고난 후, 그 주 주말 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날보기 위해 여름의 푸르름을 만끽하기위해 가족들이 연인들이 날 찾아왔다. 어린아이들의 물장구치는 동심의 순수함이 좋았고, 무엇보다 나와 친구들과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날 행복하게 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다 내걸을 떠나고 난 뒤, 난 아픔으로 시달려야 했다. 내 주위는 쓰레기로 난무했고, 먹다남은 찌꺼기로 내몸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은빛 물고기 은비도, 사자 모양을 한 돌 사석도 푸르름을 자랑하던 풀 청비도 내게 숨쉬기가 곤란하다며 호소를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다. 그날밤 우리 모두는 악취에 그리고 오물에 시달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앓아야만 했다.

사람이 싫었다. 아니 인간이 싫었다. 인간들이 날 찾아왔다고 좋아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앓았고, 또 다시 주말을 이용해 찾아온 사람들로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떨어야 했고, 시달려야 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은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고,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채 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다음주 찾아온 사람들은 무슨 청결강이 이러냐며, 그냥 돌아갔고, 난 사람들의 수모를 고스라니 당해야만 했다.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 버렸다. 불과 한달만에 일어난,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겐 인간용으로 대단한 혁명이었다.

인간들은 모두다 똑같이 이기적이다. 즐길줄만 알고 뒤처리를 할 줄은 모르니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대해 준다면 우린 더 많은 인간들에게 더 좋은 휴식처가 되어 주고자 했는데, 우리들의 꿈은 인간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다. 이기적인 인간들로 인해……. 지금의 날 보면서 ‘청결강 진’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직접 보지않은 사람은 모른다.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수 없이 목격하면서 아무런 도움조차 줄 수 없었던 나의 쓰라림을 이것은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의한 결과이고, 다시 인간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난 확신한다.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걸보니, 나도 친구들을 따라갈 시간이 다 된것같다. 이제 영원히 검은 강으로 흐르리란 걸 난 안다. 이 한마디만은 남기고 싶다.

‘난 인간들때문에 친구들을 잃고, 나 역시 죽어가고 있노라고…….’

## 작은 파수꾼

인제남 초등학교  
고상순

통곡 분교장 근무를 명함.  
강원도 춘천군 남산면 통곡리.  
학교 이름만 들어도 좁은 마음이 쓸쓸해지는 초미니 학교.  
전교생 9명이 마치 한집 아이들처럼 오순도순 한 교실에 모여앉은  
근무지.

통곡 분교장을 찾아가던 날은 유난히도 겨울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  
었다.

버스에서 내려 지나는 이에게 학교를 묻자 그는 말없이 턱으로 앞에  
있는 산을 가르켰다.

그 산을 넘으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겨울내 쌓였던 눈위도 종일을 두  
고 내린 비로 꼬불꼬불한 산길은 아예 진흙 구덩이였지만 어찌겠는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가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쯤엔 아예  
여름날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의미없이 쫄랑 그 비를 다맞은 내꼴은  
말이 아니었다. 정영 잊혀지지 않을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고생  
끝에 내가 부임한 통곡리는 아직도 흡사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  
히 보존하고 있는 곳이어서 인심 또한 그 옛날 그 시절과 조금도 변함  
이 없이 생쥐모양으로 나타난 나를 마을분들은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그날부터 난 그들이 날 반겨준 만큼의 친절과 호의를 갚아드리리라는  
생각으로 온몸을 작은 나의 동지 통곡분교에 던지기로 작정했다.

학교환경, 교육시설, 교구확충, 학습 및 특기지도, 지역사회계몽, 자

연보호에까지 말이다.

워낙 부족한 것이 많은 학교라 무엇에서부터 손을대야 할 것인가로 망설이던 어느날 우연히도 여름이면 물고기를 겨울이면 개구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이 계곡으로 자연석을 채취하려고 온 사람들로 마을은 계절마다 한차례씩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예외없이 자연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중을 헤아리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이면 그들은 소위 시내부근에서 생수라고 길러가는 계곡의 물보다도 더 맑은 학교앞 개울물로 세차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벌려 학교 앞 개울물이 중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를 흥분케 했고 마침내 내가 보다 본격적으로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본분을 가리지 않는 한 시민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렇다할 직함이 없이 무명인 내가 내고장 자연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실천에 들어가기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과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었고 더러는 터무니없는 험박으로 위협해 오는 이들과 외로운 싸움이 무척이나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당신이 뭐냐? 네놈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짜식, 목이 달아나고 싶은게지.

야, 임마! 이 개울물 네것이나? 네가 돈주고 샀느냐 말이야.

야, 이 친구 뭘 모르는군.

선생이면 아이들 글이나 가르칠 것이지 이 돌 그리고 이 나무 네것도 아닌걸 가지고 왜 극성이야.

그리고 차 한두대 목욕시킨다고 이 개울물이 금방 하수도 물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봐! 당신 그렇게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 놀고간 다음에 휴지줍고 쓰레기 말끔히 청소하라구. 간단한 일을 가지고 뭘 야단이야.

참으로 어이없는 사람들이었다. 어찌하여 선진국의 바캉스, 피서 문화는 그리도 빨리 배웠으면서 그들이 공공시설이다 자연사랑, 자연보존의 정신은 못배웠던지 하여간에 그들과의 끝없는 싸움은 몇년이나

계속되었고 때로는 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일방적인 패배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3년여에 걸친 외로운 전투에서 비록 상처투성이긴 했지만 난 백의종군의 의의를 찾았고 고집스럽게도 승전의 기를 올릴수 있었다.

지금 난, 그곳을 떠났지만 지금도 해마다 그곳을 찾는 단골 놀이꾼들은 그곳을 들릴때마다 “그 극성스런 선생 어디로 전근갔소? 어디로 갔는지 그 동네 또 꽤나 시끄럽겠구먼. 하긴 그 선생말이 맞긴 맞아.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곳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는거 아냐?”

하고들 지금 그 학교에 근무중인 선생님을 붙잡고 말을 걸어 온다니 말이다.

그렇다. 그때가 바로 고비였다. 당시 만에 하나 오직 그들과 대항할 작은 반항까지 없었다면 지금의 그곳에 그 수려한 경관 그리고 그 맑은 개울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슴 깊숙히 심어줄 수 있었을까?

빈 농약병 하나를 버릴때도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내게 전해준 감사패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그 조그마한 분교장에서 그 조그마한 힘으로 권력과 금력으로 중무장한 대전투 요원들의 당당한 위세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그날의 일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럽기만 하다.

작은 승리가 있었던 그날들은 지금 생각해도 정영 신바람나는 날들이었다.

우리의 자연에 어찌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단말인가!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어찌 나와 너를 가릴 것인가. 것보다는 수 많은 구호와 캠페인과 행사. 작지마 우리 모두가 자연사랑의 심신이 필요하다.

목이 터져라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웅변보다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소중히 하는 실천, 그 실천만이 우리의 자연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몇년전에 떠나온 작은 마을에서 작은 내가 전개했던 작은 사례를 되새겨 본다.

## 방태산 휴양림을 다녀와서

기린 초등학교  
이지영

며칠전 우리 가족은 방태산 자연 휴양림에 소풍을 갔었다.

제작년 봄에 갔을 때는 길도 좁고 몹시 험했던 것 같은데 휴양림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길도 넓게 잘 다듬어져 있었고, 넓은 주차장에다 알프스 산에나 있을 법한 나무로 지은 집들도 여러 채 지어져 있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불과 2년 남짓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니 인간의 힘은 무한하다는 걸 실감했다.

“엄마, 이런 건 왜 만드는거야?”

그냥 두어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텐데 통행에 편리하도록 산을 깎아 내고 나무를 베어 내어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문명이 가져다 주는 피해라고나 할까?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이를테면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에 뒤따르는 공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란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이 사회에 필요악이라는 뜻인 것 같았다.

어디선가 빠꾸기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소쩍새 울음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매미들의 합창소리도 들렸다.

오랫만에 들어보는 소리였다.

새들의 노래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답게 느껴진다. 새들은 항상 즐겁

게 노래부르는 요정들의 화신인가 보다.

장대처럼 쪽쪽 자란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트럭을 세워놓고 점심을 먹었던 낙엽송 밭에는 나무들이 간벌되고 그 사이사이에 벤치와 자판기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도 변했네.”

우리 가족은 합창하듯 동시에 말이 나왔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뜻인가. 도시의 공원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런 것을 바로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인가 보구나.”

어머니께서는 한 말씀 하셨다.

이야기하면서 걷다보니 어느새 마당바위에 도착했다. 비가 오고 난 뒤라서인지 맑은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것 같았다. 동생과 나는 손으로 물장구를 쳤다. 물은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깊은 산속을 흘러흘러 오느라 더운 빗물이 다 식어졌나 보다.

“어, 그런데 폭포가 어땠더라?”

분명 마당바위 가기 전에 언덕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폭포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산을 깎아내서 언덕은 없어지고, 폭포는 그냥 있어도 예전처럼 높아 보이지가 않았다.

이상했다. 같은 폭포인데도 그렇게 느낌이 달라지다니.

물안개 위로 무지개가 서는 장면을 인화지 위의 작품으로 나타내려 애쓰시던 사진작가들의 그 때의 뒷모습이 아직 내 기억속에 선명한데 어쩐 그렇게 되었을까.

낮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좁던 길이 넓은 길로 변했구나.’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길옆 바위 뒤쪽으로 다람쥐가 한 마리 보였다. 긴 꼬리를 세우고 앞발을 들어 주위를 살피는 그 다람쥐는 낮선 환경이 웬지 불안하게 느껴지는가 보다.

‘다람쥐네 집은 안전할까? 집이 혹 파헤쳐지지 않는 않았을까? 새끼들

은? 먹이는 충분할까?……’

내 의문은 자꾸 꼬리를 무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화제를 나누고 계셨다.

“이 나무라도 그냥 보존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내린천 어딘가에 댐이 막아지고 이곳 마저 물에 잠긴다면 이 원시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까지야 다 잠기지는 않겠지. 잠긴다해도 장마 기간 때만 한시 적일거라는 얘기도 있더군.”

“이 고장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사람들은 뭐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산이나 나무들이야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이 고장엔 어딘가에 댐이 세워질거라고 어른들께선 걱정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 어른들의 도 다른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양댐이 세워질 때처럼 집과 농토를 고스란히 물속에 남겨두고 타향에 떠나가 살면서 수장된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올 수 있다니 정말 믿고 싶어지지 않는 일인 것이다.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때론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는 것인가 보다.

‘다람쥐야, 집을 잃었다면 좋은 집을 다시 짓고 예쁜 새끼 많이 낳아 다음에 올때 더 많은 다람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산새들이 너희들을 잘 지켜줄거야.’

나는 다람쥐에게 못다한 인사를 하면서 개운치 못한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따라 휴양림을 내려왔다.



##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린 고등학교  
전희선

오늘은 일요일. 모처럼만의 휴일을 맞아 사촌동생과 놀아 주기로 마음 먹었다. 앞마당에 돛자리를 펴놓고 동생과 이런저런 책을 들고 나와 앉았다. 높은 건물들에 둘러 쌓여 지내온 내게는 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다. 항상 그랬다는 듯 짙은 파랑색의 자기 모습에 태연하기만 하다. 그런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무심코 지나쳐 버린 봄을 뽐내는 듯했다. 여섯살난 동생이 그림 공부책을 펴고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꽃, 곤충, 동물... 정말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음. 그건 나비.”

“우리 지에 잘 아네? 그럼 이건 뭘까?”

“그건. 개구리.”

“이건 뭐더라?”

“응? 이게 뭐야?”

“이거 몰라? 메뚜기잖아.”

“메뚜기? 메뚜기가 뭐야?”

‘이럴수가’

농촌에 사는 아이가 메뚜기를 모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 내 모습이 이상한지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동생. 마당을 쓸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다.

“아버지. 지에가요 메뚜기를 모른데요. 이상하죠?”

“메뚜기라. 글썄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왜요? 농촌에서 사는데 모를 수도 있다구요?”

“그래. 희선이는 요즘 메뚜기를 본적있니?”

“음. 글썄요. 못 본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풀이 있는 길가에서도 흔히 봤는데…….”

“그래. 그러니 지애가 모를 수 밖에 없지 않겠니?”

“그런데 언제부터 었을까요?”

“몇 년전 신문에서 메뚜기를 보기 힘들어 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 언제 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너무 무관심 했구나.”

“아니. 그런데 이젠 볼 수 없는 메뚜기를 왜 책에 실었죠? 어머! 이거 88년도 책이예요. 그럼 요즘 책에는 메뚜기가 없겠네요?”

“그렇지도 모르지?”

“그럼 요즘에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잠자리나 나비도 몇 년 후에는 책에서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떡해요?”

“희선이는 왜 그것만 걱정하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거니?”

“그거야 당연히 농약 때문이죠 아빤. 고등학교 2학년이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세요?”

“그래. 그런데 희선이의 그 당연히란 말이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아니 왜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알거다.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그건 다 알면서 자연의 고마움이나 필요성을 무시해 버린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였을까?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가는건 메뚜기 만은 아니지. 천연 기념물인 열목어, 장수하늘소…….”

“아! 요즘 개구리 보기도 힘들어진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 먹어서 이젠 법으로 잡는 걸 금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개구리를 잡아 먹기 위해 몰래 전기나 약을 사용해서 잡잖아요.”

“그뿐만 아니지.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자주 보듯 정화시설에 들어가

는 돈을 줄이기 위해 공장폐수를 몰래 강가에 버리고 그러다 걸리게 되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돈보다 벌금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서슴 없이 말하고들 하지.”

“맞아요. 양심들도 없나봐.”

“그렇게 버려진 폐수로 인해 물고기들이 때 죽음을 당하고, 등이 굽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피해가 오는 것임을 인간은 무시하고 말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조금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품들로 인해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그렇게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게다.”

“그치만요 아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오염되어 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며칠전에 내린천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본걸요? 그리고 일회용품 보다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구요.”

“그래.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는거 아니겠니?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만은 않단다.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힘쓰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의 의식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맞아요. 그럼 메뚜기도 다시 볼 수 있겠죠?”

“아빠는 그러리라 믿는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애에게 그리고 먼 후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것이기에 꼭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씩씩한 웃음을 지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신 아빠, 아빠도 아마 지금 이렇게 아픈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자연, 그건 인간과 동물, 식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안식처이다. 인간은 그런 자연을 조금의 이익과 조금의 편리를 위해 마구 파괴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되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건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야 함을 뜻하는 것일게다. 우리의 후손에게 차가운 철재들과 생명없는 시멘트 벽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컴퓨터 영상으로 밖에 꽃과 나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너무나 맑은 하늘 아래에

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물려 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아들, 딸이 아닌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그럼 훗날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들도 다시 볼 수 있겠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동안 벌써 몇시간이 지나갔다.

“희선아, 점심먹자.”

어느새 점심시간이다. 지애와 나는 뛰어 방으로 들어갔다. 꽤 오랜만에 먹어보는 라면이다. 모두 다 먹은 걸 보신 후 설것이를 하시려는 엄마.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닌가?

“엄마. 안돼요. 그냥 버리면 물이 오염되잖아요. 공장폐수도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겠지만 마구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도 만만치 않다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셔야겠네. 이것도 작은 환경보호니까요.”

## 창밖을 내다보자

제9067부대  
최성모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기억이 틀림없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 시절은 내가 4살을 갓 넘겼던 겨울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머니와 함께 방에 누워 있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해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할까? 싶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를 지극히도 아끼셨던 아버지의 작은 정성탓이 아니었던가 싶다.

아버지의 두 팔에 안겨 난간으로 나간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아름다움 이었다.

세상에... 아름다움이란 의미도 몰랐을 나이에... 아마도 너무나 큰 놀라움을 느꼈었나 보다.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던지 온통 흰색의 세상이었다. 난간에 주먹만한 얼굴의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 시선을 그쪽으로 주목 시키려 아버지는 애쓰셨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즐겁게 웃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아버지께서 눈사람의 받침 어디를 손가락으로 떼어 내 입에 넣어 주셨다. 당시 내가 좋아 했었다고 말했던 솜사탕을 먹는 느낌이었다. 내 이름을 크게 부름에 저기 골목의 끝을 보니, 당시까지 총각이었던 삼촌들이 자신들의 키보다 큰 눈덩이를 굴려고 있었다. 아마도 그때가 세상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 아니었던가 싶다.

18년의 세월이 흐른 셈인가? 내 나이 22살... 지금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고 있다. 나는

이 강원도에서 아주 질려버릴 만큼의 눈을 만났다. 정말이지 아주 질려버릴 만큼의…… 입대전, 서울에서 생활을 하며 한뼘 정도 쌓인 눈을 폭설로 생각했던 나에게 이 강원도의 겨울은 내가 4살때 느꼈던 기분 이상으로 충격 이었다.

그리고 지난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한 요소가 작업중 목이 말라 쌓인 눈을 뭉쳐서 사과처럼 베어 물었던 것이었다. 어린날 마냥 시큼하고 달콤한 맛은 아니었지만 머리털이 빠진다면, 2세에 영향이 있다며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서서 내리는 눈을 피하기 바빴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경험들은 나에게 충격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모자람이 없었다.

환경보호라…… 참 편한 얘기를 이끌어 내기에 무리가 없음은 분명한데 막상 또 깊게 생각하자면 답답하고 안타까움만 쌓이는 현재의 심각함이다.

급성장이란 도약을 계속 하느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것들이 너무나 많다. 내 기억은 눈도 먹고, 개울가에서 고기도 잡고, 그 물을 떠 마시기도 한데, 현실이란 그것들을 불가능한 행위로 묶어 놓았다. 금지요소가 되어버린 우리의 지난날. 웬지 지나간 것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가?

쓰레기를 줍지 않는 아이들… 나는 가끔씩 종이 뭉치를 길에다 떨어뜨려 놓고 사람을 기다린다. 나는 그 쓰레기와 같은 종이 조각들을 약속한 사람이 나보다 더 신경써 주기를 바라곤 한다. 그러다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나가다가 그 종이들을 주우며 날 아주 쾌심한 눈으로 흘기는 듯 하면 나는 어찌나 그 아이들이 고맙고 감사하던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가장 화가나는 순간은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가지 못할 때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늘 자신들만을 생각하나까…

앞장서서 무엇을 실천하는데 어색한 우리 나라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찌 꺼려하는 사람들…

환경보호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다 가깝게 존재하지만 그 말의 실천은 그 어느 나라보다 먼 나라. 나는 그런 사실과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다.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한다면 내 고향 서울에서도 눈덩이를 뭉쳐 먹을 수 있을텐데... 요즈음은 시골도 오염되었다고들 한다. 나는 아니라고 믿고싶다. 그것까지 인정한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쭉 빠져버릴 것 같아서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군인이다. 총을 들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내 작은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서 내 주변의 소비되는 자원을 막아 흐르는 물이라도 적은양의 오물을, 또는 소각되어 어두운 연기를 줄여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여 가꾸고 치워가는 부대와 부대 주변의 탁한 모습들을 없애 가는 것도 나라를 지켜가는 모습이 아닐까 - 싶다.

머리와 팔에 환경보호, 환경보전 등의 띠를 묶고 운동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만해도 지금까지의 행위를 뒤돌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무 미안하게도 금새 잊고 말았다. 그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뱉은 말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손짓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들었다. 아마도 그의 좌우명이 아니었던가 싶다. ‘눈은 게으르나 손은 부지런하다. 그 손과 같은 삶을 살자’..... 이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현수막과 전단과 사람들의 목소리와 TV광고가 깨끗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누가 이야기 하겠는가? 오히려 그 행위에 소비되어진 물자들이 자연을 해치는 쓰레기가 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모순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다. 내가 태어났고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묻혀야 할 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규칙과 질서는 이후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질서 속에서 느낀 책임감이란 오랜 후 내가 결혼을 해서 갖게된 자식들의 손을 잡고 눈으로 뒤덮힌 세상을 내 어릴적 시절에 가졌던 경이로움으로 아이들에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주고, 솜사탕같은 눈사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것 같다. 생각해 보

자. ‘아빠, 하늘은 왜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모습을. 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다.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의 손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지런을 떨어보아야겠다. 내가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비를 들고 골목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개울에 있는 오물을 건지는 것도 아닐테지만, 작게... 아직까지 한장의 파지도 만들지 않았다는 데에, 금일에는 조금의 음식 찌꺼기도 남기지 않았다는 데에, 커피를 마시고 종이컵을 분리수거했다는 그러한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손을 걸어 부치고 대청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함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다.

그 이전의 우리의 마음속의 있는 작은 숲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할 것임은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을 듯 싶다.

마음이 깨끗하면 주변의 환경들도 깨끗해 진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싶다.

문득 바라본 창 밖의 푸르름이 그렇게도 반가울 수 없었다.



## 솔밭에서의 하루

기린 초등학교

이명섭

나는 이제 전학 온지 한달 가까이 되어 간다. 그런데 열흘전쯤 봄 소풍을 갔었다. 언제나 소풍은 즐거운 것이지만 이번에 소풍가는 장소는 좀 멀어서 약간은 힘든 점도 있었다.

소풍장소는 궁동 유원지라는 곳으로서 내가 살던 곳과는 아주 달랐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르고도 푸르른 내린천이 감싸주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래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자 상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자극하였다. 힘들지만 온 보람이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다른 재미있는 게임과 경기,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보물찾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열심히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벌써 세개 이상 찾은 아이들도 있었고, 한 두개 정도 찾은 아이들도 보였다.

나는 열심히 보물을 찾았으나 쓰레기만 찾을 뿐이었다. 그때 쓰레기가 어찌나 많던지 보물인가 하고 보았던 것이 한 스무개 정도 되었는데, 전부가 쓰레기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보물을 많이 찾은 순서대로 상품을 주셨다. 어떤 아이들은 여섯개, 또는 다섯개를 찾아 상품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의 기분은 몹시 씁쓸하였다. 물론 보물을 많이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곳에 널려있던 쓰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곳에 쓰레기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도록 방치하는 어른들은 무슨 생각으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지 이해가 안되었다.

그렇게 무심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언젠가는 이곳도 대도시의 산이나 강처럼 오염되고 말텐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옛날 속담이다. 쓰레기도 자꾸자꾸 버리면 더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얼마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하천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이것도 비양심적인 어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물의 정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질 오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면 큰 벌을 주는 그런 제주도 있다고 한다.

자전거를 차보다 많이 이용하는 ‘독일’에서는 에너지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환경 보호도 되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여기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심지어는 보행자 신호등에 자전거의 신호가 따로 있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 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곳도 제대로 연결 되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나는 새로운 소식도 얻고, 살아가는 지혜도 배울 수 있어서 뉴스를 자주 본다. 뉴스 가운데 제일 흥미있는 기사는 역시 환경에 관한 것이다.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기사는 기분이 좋아지고 수질 악화 등의 기사는 뉴스를 본 후에 마음이 몹시 답답하기까지 하다.

또 나는 엄마께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로 감지말고 비누로 감으세요. 그리고 설거지할때 세제를 쓰지말고 쌀뜨물로 하세요. 또 세탁기를 사용할때도 세제를 많이 쓰시지 마세요’라는 등의 주문을 가끔 한다. 물론 나도 환경을 잘 지키지는 않지만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때문에 엄마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다.

요즘은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됨에 따라 환경도 나날이 오염 되어가

고 있다.

엄마, 아빠께서 옛날 어린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실때 나는 그시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옛날에는 도랑에서 가재도 잡고 물장구도 치며 재미있게 놀았으며 또 겨울에는 흰눈을 먹기도 했다. 요즘은 눈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자연이 이렇게 오염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다. 옛날보다 환경이 많이 나빠졌어도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하다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텐데…….

‘나 하나 짬이야’라는 생각보다는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모범을 자기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생각이 널리 퍼지면 환경은 물론 요즘의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선진국 국민의 마음가짐이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꿔게 하여 전세계에 우뚝 설 자연 선진국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 녹색환경반 이야기

원통 중학교  
손진숙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3, 4, 5, 6학년 모두 다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녹색환경반’을 했다.

녹색 환경대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모여서 쓰레기를 주웠다. 그리고 가끔씩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주위를 청소하기도 했다.

선생님들과 청소를 할 때에는 모두들 ‘녹색환경반’의 옷을 입고 20ℓ의 쓰레기 봉투 여러개를 가지고 민예단지까지 걸아가며 쓰레기를 주웠다.

길의 쓰레기는 장갑을 낀 손으로 주웠고, 시냇물의 쓰레기들은 집계를 가지고 주웠다.

쓰레기를 주우던 중 눈과 발을 보니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작은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선생님, 이것들은 어떡하죠?”

“어머머... 그런 것들이 왜 있지?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해 놓아서 그런가 보구나...? 자동차 부품들은 우리가 정리하기 힘들니까 초소에 계시는 경찰 아저씨들께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우린 계속해서 청소를 하자”하시며 청소를 하자고 하셨다.

“왜 사람들은 교통 사고가 난 후에 그 자동차 부품들을 치우지 않았을까? 그것들을 치웠다면 보기도 좋고 자연보호도 되었을 텐데...”하

며 중얼 거렸다.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며칠후 우리들끼리 한계1리, 2리, 3리 이렇게 3분단으로 나누어 청소를 하였다.

한계1리에 조장이었던 나는 부조장과 함께 우리조를 이끌었다.

녹색 환경반을 할때에는 빨간 모자와 함께 녹색 조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맘에 들지 않아 조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입지 않았다.

그런 날 보시던 엄마께서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진숙아,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을 입어야 할 것 아니겠니?

또 진숙아, 네가 한계1리 조장이라 했지? 그렇다면 조장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너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러니 빨리 옷 갈아입고 가거라!”하시며 야단을 치셨다.

하지만 엄마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몰래 몰래 엄마의 꾸중 속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발걸음이 가볍지 못했지만 약속 장소로 갔다.

우리들은 약속 장소에 모두 모여서 장소르 시작했다.

이곳 한계리는 설악산을 가는 길이고 공기와 물이 맑은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물론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물론 관광객 덕분에 우리의 고장이 발전하기는 하지만 쓰레기와 음식물을 함부로 버려서 자연 환경이 많이 오염되지 있었다.

또한 그것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버린 담배꽂초가 너무나도 많았다.

어른들은 “자연보호, 자연보호”하면서 우리들에게 자연 보호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말로만 그럴 뿐 어른들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우리말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우리 어린이들이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니 어른들이 너무나 미워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도 청소하지 말고 놀

자”라고 할 아이들이 아니었다.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들이 어른들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어떤 언니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다가와서는

“너희들 청소 너무 열심히 하네...! 정말 고맙다. 여기서 청소하는 아저씨가 좋아 하시겠다. 너희들 처럼 착한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지구가 살아있는 것일지 모르겠구나. 언니가 여기 가게집에서 일을 하거든. 너무 너희들이 귀엽고 고마워서 음료수 하나씩 줄게. 자, 마시고 열심히 해라.”하시며 예쁜 목소리로 말씀 하셨다.

우리들은 “네!”하고 대답을 하고 다시 또 청소를 했다.

어른들께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세상어딘가 곳곳에 이 가게집 언니 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언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른들의 불평, 불만을 깨끗이 지웠다.

우리는 음료수를 먹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고, 1 ~ 2시간 후에 쓰레기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하여 쓰레기장에 버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여쭙어 보았다.

“아빠, 오늘 친구들과 쓰레기를 주웠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주워보니 어른들이 버린 담배꽂이가 제일 많았어요. 왜 어른들은 담배를 피고 난 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는거죠? 우리들에게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단다’라고 알려 주면서 말이에요.”

“그래 진숙이가 오늘 청소를 했다고...? 아주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담배꽂이가 제일 많았다고 했지...? 이 아빠가 어른들을 대표해서 진숙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구나. 어른들은 아마도 ‘나 하나 짬이야...’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려야... 진숙이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앞으로 자연보호를 하도록 하마.”

“네...”

내방에 들어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겠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어른들도 말로만 ‘자연보호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온 나는 초등학교 ‘녹색환경반’을 이어서 중학교 ‘녹색환경대’를 하고 있다.

## 더러운 강물

인제 초등학교  
문소라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와 동생은 아빠께 산이나 강가로 놀러가자고 즐라 댔습니다. 그러자 아빠께선 꽤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신바람이 난 나와 동생은 수영복과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차를 타고 강가에 도착하며 멀리서 강가를 보니 물이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동생과 물속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 순간 동생과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구요?

물이 오염되어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울상이 된 동생과 나는 물이 지저분하다고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께서도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어린시절 때는 물이 아주 깨끗했는데…… 요즘은 물이 아주 색이 더러워졌구나.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소라는 머리를 샴푸로 감지? 비누로 감으면 샴푸보다 좋은 점은 없지만 환경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데……”

농약, 세제 등 많은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화학물질들이 생기고 난 후에는 물이 많이 오염 됐다. 아마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이것들 때문일거야.”

하시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나는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나는 많이 후회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머리를 샴푸로 감지 말아야겠다고……  
이런일을 신천하기 위해 나는 한 번 비누로 감아 보았다.  
머리결은 조금 뺏뺏했지만 샴푸로 감은 것과는 별차이가 없었다. 그  
래서 나는 또다시 한 번 다짐 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 역지사지

인제종합 고등학교  
송지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하나라도 놓칠까 산 하나가득 머금은 모습이 더 푸르러 보인다. 오래도록 목마름에 지쳐있었을텐데…… 그래, 많이 마셔라. 온 몸이 흠뻑 젖을만큼.

사실 난 나무의 목마름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건 며칠전에 읽은 그 책 때문이다.

시인을 꿈꾸는 나무-

그 나무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인간의 감성으로 호소하는 나무의 고통, 행복, 사랑..., 난 눈을 돌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곳에서도 시인을 꿈꾸는 나무와 똑같은 심정으로 행복보다는 고통을 담은 묵언의 호소를 하고 있을 생물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 생각이 허위의 과장된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해 왔고 또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은 생활공간을 넓히기 위해 자연만의 영역을 침범했고 편리함을 찾기위해 자연의 모습을 바꾸어 왔다. 내가 10년도 훨씬 넘게 살고 있는 이 곳. 인제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이나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침범이니 다른 한쪽에 피해가 있다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 피해자를 얘기해 볼까?

인제에서 속초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에 검문소가 있다. 그리고 그 검문소 맞은편 산이 그 피해자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큰 나무도 많았던 푸른산을 민둥산으로 만든것으로도 모자라 산 한 면을 깎아 내리고 있다.

나무가 많아서, 낙석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제의 국도중에서 그나마 위험성이 적은 곳이었는데…… 붉은색의 흙과 잔뜩 쌓아놓은 돌들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 상처투성이의 온 몸을 드러내고 있어야 하는 산은 어떨까? 그 산이 소송을 한다면 사람들은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로지 인간을 위한 이유였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더욱더 보기 싫은 곳도 있다. 시내버스를 타고 원통으로 가다가 눈에 띄인 개천!

산업폐기물로 채워져 버린, 그래서 흐르는 물도 폭을 좁혀야 하는 개천. 가끔씩 눈에 띄는 녹슨 철근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을 정당화시키려는 우리 자신의 양상한 양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들의 양심!

그 양심의 양상함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한계를 가지려는지 정말 화가난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산을 깎아 내리고 개천을 메꾸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만 즐겨보자고 한 순간의 기쁨을 느껴보자고 휴양림이라는 이름의 그럴 듯한 자연파괴업소를 차린다는 사실이다.

숲 속 곳곳에, 바위틈새 구석구석에 철근을 꽂아 놓고, 나무의 잔 가지 하나에도 철사를 꿰어 이름을 적어 달아놓아, 좁은 오솔길에 통나무를 박아 계단을 만들고, 손을 대어 훼손시켜 놓고 무엇이 그리 좋다고 웃고 떠드는 것인지……. 내 말은 사람들의 쾌락 그 자체를 타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면 될 것을 굳이 구멍을 뚫어가며 상처를 내고 오랜 아픔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싫다.

휴양림을 만드는 의도는 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자연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나쁠 것이야 없지 않은가? 하지만 사람의 편익에 맞게 자연을

고친다는 것은 나무가 이름표를 달아 달라고 했을리도 없고 바위가 구멍에 다리를 끼워 편하게 건너기를 바랬을 리도 없고.

자연의 오랜 아픔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들으면서 왜 반복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환경보전이라는 말! 내 생각엔 그리 큰 일이 아닌 듯 싶다. 어찌다 세상이 잘못되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일로 인식되어버린 것 뿐이다.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쓰레기 덜 버리고 더 즐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그 일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연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 훼손할 자연범위의 몇 십, 몇 백 배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휴양림에 사람들만을 위한 설치를 -게다가 자연을 훼손시켜가며 설치해야 한다면 더더욱 -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정복하는 것, 지배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소유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자연을 소유하려 했고 지금의 많은 실수들도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논리력으로 잘못 정의된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라는 법정스님의 말처럼 환경을 소유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경과 친하려고 아픔을 주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마음일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라면 더 이상 고민할 일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 화가 난 하이에나

기린 중학교  
홍지현

옛날 어느 숲속에 여러 동물들이 살았어요. 청소부 하이에나, 왕인 사자와 왕비인 호랑이, 알미운 여우, 피많은 토끼, 미련한 곰 등 많은 동물들이 살았어요.

지금처럼 하이에나는 다른 동물들이 먹고남은 찌꺼기를 먹는 숲속의 청소부였어요. 그래서 알리라는 하이에나는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그중 여우인 끼순이가 제일 놀려댔어요.

“너의 아버지는 청소부라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구나! 얼레리 폴레리.”하며 놀려댔습니다. 알리는 아버지께 먹이 구하는 방법 등을 배우느냐고 어려서 부터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녀야 만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겹고 힘들어 하시던 알리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알리는 어머니 얼굴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자신은 커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알리가 기빠하며 갈곳이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아주 더럽고 고약한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아무 동물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곳은 동물이 살 수 없을만큼 더러운가요? 아버지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없기 때문이야.”

알리는 왜 이곳엔 하이에나가 살지 않았냐고 꼭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곳을 치우자는 말씀을 듣고 치우고 여쭙보기로 하였습니다.

상한 것도 많아. 다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아 이곳 동물들이 모두 이동한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알리는 ‘이때다’하며 왜 이곳엔 하이에나가 살지 않느냐고 여쭙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땀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도 옛날엔 하이에나가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자꾸 놀리자 화가나 떠나버렸단다. 그 후 쓰레기는 점점 늘고 그것을 치울 동물이 없게 되었지. 그때 동물들은 모든걸 깨닫고 그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멀리 떠나고 없었단다. 그러다 그 음식 찌꺼기들이 썩자 냄새가 나고 점점 더러워져 참다 참지 못하는 동물들이 떠나 갔단다. 그래서 결국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 너도 다른 동물들이 놀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 할 필요는 없단다. 그들은 아직 우리들의 중요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알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먹다 남은 찌꺼지를 먹지않아 하이에나의 중요성을 깨달아 놀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알리의 생각에 놀라시긴 했지만 대찬성하셨습니다.

알리와 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숲속으로 돌아가자 다른 때처럼 똑같이 놀려댔습니다. 알리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찌꺼지는 먹지않고 열매나 풀 등을 먹었습니다.

점점 쓰레기가 늘어나자 놀리던 동물들이 왜 안먹느냐고 소리를 꺽 꺽 질러댔습니다. 그럴때면 알리와 아버지는 태연하게 “당신들이 하두 놀리길래. 이제는 그 더러운 찌꺼기나 먹는 청소부는 그만두고 이렇게 살거요.”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면 그러라지. 자기만 배고 풀 테지! 흥~’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하이에나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으니 알리는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모두 다 치웠습니다. 그후로는 놀리는 동물도 하나없었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알리는 예쁘고 착한 헬리라는 하이에나와 결혼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잘 살았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사회에 많다면 오염이 덜 되겠죠!

## 걸으면 낫는 병

제9067부대  
고성훈

아침부터 한국이는 배가 아팠다. 약을 먹고 엄마가 아무리, 쓰다듬어 주어도 배는 계속아팠다. 한국이는 며칠전 목이 많이 아프고 비실비실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병원에 꼭 가야했다. 한국이는 병원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엄마의 등에 얹혀서 집을 나서는데 옆집 일본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일본이는 열심히 축구공을 차다가 한국이를 보았다.

“어디 아프니?”

“응”

“배가 아파”

일본이를 뒤로하고 한국이는 엄마의 등에 얹혀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크나큰 ‘요괴의 집’처럼 느껴졌다. 한국이는 눈을 꼭 감았다.

“어디가 아프니?”

“배가 많이 아파요.”

“자, 옷을 좀 건어볼까.”

청진기를 한국이의 배에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았다.

“띠띠뽕뽕 부르릉 팡...”

“한국이 배속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있구나.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 이렇게 아플 수 밖에”

한국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혹시 한국이 목도 많이 아프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의사는 한국이의 목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한국이 목구멍에 자동차 매연이 가득차 있어. 공장 굴뚝에서 연기도 많아 나는데…… 아이구 목이 시꺼멓게 변했어.”

한국이의 눈에서 눈물이 찢끔거리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죠.”

“으아앙…”

“의사 선생님 요즘 제 아이가 힘도 없고 자주 빈혈기를 느끼는데 그것은 왜그렇죠.”

한국이의 엄마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혈액검사를 해 봐야겠네요.”

“자 혈액검사 좀 할까.”

한국이의 혈액을 뽑아간 의사는 5분쯤 있다가 들어왔다.

“선생님 어떻죠.”

“이거 큰일났어요. 한국이의 혈액에는 너무 많은 폐수가 섞여있군요.”

이제 한국이와 엄마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국이는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줄도 모르고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한국이 좀 살려주세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한국이를 낳게 해주세요. 수술을 하면 되나요 선생님.”

“안됩니다. 한번의 수술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꾸준히 한국이가 노력하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국이와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한국아”

“네. 의사 선생님”

“한국이는 집하고 학교하고 얼마나 멀지.”

“버스 두 정거장쯤이요.”

“그럼 꼭 걸어다녀야 한다.”

“엄마가 차 태워줘요.”



“아니! 꼭 걸어다녀야 해. 그래야 너의 병이 난단다.”

“그리고 한국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거품많은 음식도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젠 거품이 많거나 너무 비싼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야해.”

“그리고 물은 꼭 끓여서 먹니?”

“아니요.”

“앞으로는 물도 꼭 끓여서, 정화시켜서 먹어야 해요.”

“그럼 나올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거품있거나 비싼 것들은 아끼면서 물도 공기도 깨끗이 한국이가 사용한다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단다.”

“자 저기 일본이를 볼래.”

“며칠전에 일본이는 다 망가지고 부러져서 이 의사선생님을 찾아왔었단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더니 저렇게 건강해졌잖니. 한국아 너도 니가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단다.”

“네. 의사 선생님”

“그래 한국아 꼭 건강해져서 다시 만나자.”

“한국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그리고 맑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 소중한 나무

제6883부대  
김성훈

옛날에 환경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마을을 중심으로 넓게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마을 앞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그 뒤로는 기름진 흙으로 가득찬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매년 농사는 풍년 이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여 마을 사람 또한 인심좋은 평화롭고 살기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 했었습니다. 환경이란 마을엔 마을 사람들 중 특히 착한 김씨네와 그중 악독하기로 소문난 박씨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네 집만의 큰 아들이 콘돌이라는 새를 잡아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논 하던중 콘돌을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김씨네 집안 사람과 왜 돌려보내 주느냐! 이런 귀한것은 값어치가 있다며 마을에 두기 바라는 박씨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다툼끝에 고집이 센 박씨네가 이겨 콘돌을 박씨네 집에 잡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운을 잃더니 급기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새가 죽은 이후로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여름엔 비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 해 두 해 힘들게 지은 농사가 비 때문에 점점 시들해져 가고 먹을 것도 없어지니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더욱 큰 걱정은 장마때면 집들이 잠기고 떠나려가 잘못도 없어도 물에 휩쓸려 죽는 사람들 또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네를 닷하며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박씨네만 닷할 뿐 답답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이때 김씨네 둘째 아들이 “산이 험벗어 있으니 강위를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 홍수를 막는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비가 그치는 데로 산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땀 방울이 늘어 갈수록 벌거벗고 있던 산들이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나무를 다 심은 사람들은 빨리 자라서 홍수를 막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새를 죽게한 박씨네는 마을에서 인심을 잃어 살 수 없게되자 어느 날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작던 나무들이 자라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을 또한 숲들로 둘러쌓인 경치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김씨네 둘째 아들도 마을을 이끌어 가는 최고령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 덕분으로 농사도 지으면 풍년이고 또 나무를 베어 내다팔아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몰난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숲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 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숲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씨네 둘째 아들 이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아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 오게 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전씨네가 땀감을 내다파는 벌이가 꽤 짹짹해지자 욕심을 내기 시작 했습니다. 벌이가 짹짹 하다는 소문이 마을에 짹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무를 베어 내다팔기 시작 했습니다. 산의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푸르던 산들이 벌건 몸을 조금씩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과 사실을 알게 된 김할아버지는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보다는 나중에 있을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이자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직접 겪은 마을의 홍수 사건과 나무의 소중함에 대해 얘기하며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커녕 더 많이 돈을 벌기위해 서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할아버지는 혼자서라도 나중에 있을 일에 대비해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 베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산은 험벗고 마을 사람들의 욕심은 높아만 갔습니다. 이윽고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여느해와 같이 비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물이 크게 불기 시작 하였습니다. 집은 물에 잠기고 마을 사람들도 한 돌씩 휩쓸려 죽게되자 그때서야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해왔던 곳으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피신 시켰습니다.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의 평화롭던 마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다시 나무를 심고 아껴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의 환경파수꾼

서화 초등학교  
류안나

미래 2140년내 쯤에는 동물들만이 사는 곳이 생기고, 동물들 역시 지능들이 아주 많이 발전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타임머신을 만들어 냈다. 수 많은 노력과 고생으로 20여년간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틀 날 타임머신 완공식을 하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와아아아!”

하는 큰 환성소리와 함께 넓은 초원은 동물들로 가득히 메워졌다.

“자! 자. 조용히들 하세요. 에…… 저로 말씀 드릴것 같으면 이 넓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의 자리장 이올시다.”

자리장이 말을 시작하지 초원에 모여든 동물들은 조용해졌다. 다시 또 자리장은 “우리들이 그동안 수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20여년간 만들어 낸 타임머신, 완공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모두 한 발 앞으로 가서 서 준비하신 가위로 줄을 동시에 끊어 주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 둘 우르르 몰려가 줄을 섰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동시에

“찰칵”

하는 가위질 소리가 나고 타임머신 구경에 나섰다.

“자, 자 모두 자리에 그대로 서 주십시오. 타임머신은 자리장인 저와 초원의 맹수 호랑이 하늘의 왕 독수리 개울 속에 가재가 가장 먼저 타

겠습니다”

자리장, 호랑이, 독수리, 가재가 타임머신에 올라탔다.

“자, 그럼, 안녕!”

하는 소리와 함께 ‘뽕!’ 하며 타임머신이 사라졌다.

“어? 어! 여기가 어디야?”

하며 타임머신 안이 시끌벅적 해지며 서로가 내리려고 할때 자리장이  
“그럼, 제가먼저.”

하며 잼싸게 밖으로 나왔다. 밖은 완전히 천국인것 마냥 아주 맑은  
개울, 파릇파릇 새싹이 돋은 풀숲, 높고 푸른 하늘 등이 너무나 아름답  
고 한 마디로 환상적이었던 것이다. 개울에선 가재가

“야호! 나의 낙원은 바로 이곳이었던거야! 내가 왜? 미쳐 몰랐지?”

하늘에선 독수리가

“이곳 하늘은 나의 천국이야!”

아주 넓고 푸른 풀숲에서 호랑이가

“이곳이 바로 나의 보금자리 였던것 같아!”

하며 신이 나있을때 자리장이 세마리의 동물들을 끌고 다시 타임머  
신을 타자 모두가 아쉬워 했다. 다시 또 ‘뽕’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시  
대로 왔다. 그 시대는 좀전 시대에서 조금더 거슬러 내려온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내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내린 동물  
들인 모두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시커멓고 까만 물, 초원은 없고 아  
스팔트 길, 까만 연기와 매연으로 뒤덮힌 하늘 아까 그곳과는 전혀 딴  
판이었다.

“세상에! 이 더러운 물좀 봐!”

“이 하늘은 어땡고?”

“나의 보금자리인 풀숲은 오데로 갔나?”

동물들의 한숨은 자꾸만 나왔다. 그리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동물들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에게 너무  
나 끔찍한 일이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자리장이

“어때?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내가 왜 너희들을 가장 먼저 타임머신  
타게 한 줄 알아? 그것은 너희가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2140년대 땅에

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자연을 가장 많이 훼손하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곳의 100년 후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있던 그 시대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땅이 100년이란 세월을 거처가며 조금씩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것 같아.”

“그래, 맞아.”

하며 자리장은 말을 이었다.

“자! 이제 우리땅이 얼마나 힘들게 가꾸어 져서 소중한 곳인지 알겠지?”

하자 동물들 셋은 모두 합창을 하듯이

“네!”

하며 많이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진짜의 시대로 돌아와서 자리장과 세 동물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와 환경 파수꾼으로써 활동하고 점점 더 아름답고 즐거운 시대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갔다.

**향토문에 제4편**

**향토문에 기고편**





## 꿈꾸는 씨알

한용운

한낱  
푸른 생명이고저

행여  
돌발, 가시떨기위에  
흠 뿌려저도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꿈

눈 감으면  
천상의  
그 분이 웃으시고

더욱  
좋은 것으로  
제(祭) 올리시라 하올제

오직  
낮아진 마음 밭  
울 곧게 갈아  
사랑만 심으시란다.

## 세월을 살고 또 갈때

사랑을 건네주고  
아픔을 나누던  
마음 문 열어  
줄줄이 엮어놓은 그리움일랑  
다 이야기 하지 않았나

풀잎 적시는 이슬  
하얗게 말리는  
세월을 가리고  
눈물 내리는  
빈손

다 살고  
또 갈때

남은 외양간  
녹슨 호빗자루 하나 걸어놓고  
바람 따라  
그 누군가는 떠나가야 하리.

## 석류 꿈 앞이

한심 하기는  
요즘  
나 어린것들까지  
애비 없는 애를  
마구 쏟아놓는 세대인지라

그 부끄러움  
뉘 알까마는

새파란 풀내음 날때  
빨간 점 하나  
가슴속에 숨기고  
몰래 푸른 하늘만 그리다

이슬로 삭이는  
꿈,  
속 앞이

질 푸른 저 그리움  
더는 어쩔 수 없어  
핏물을 쏟아놓듯  
꿈알을 셋 빨강게 토해 내는가.

## 韓 龍 雲

- 강원 인재 출생
- 江原문학, 광솔시 낭송회, 한맥문학회, 三浦문학회원
- 한맥문학 신인상으로 문단등단
- 內麟문학회 회장
-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지역후원회장
- 수상 : 81 대통령 표창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고향재단 밝은사회 선행 모범가족 금상

강원 새마을 미담상

弘盛社 작품공모 우수상

- 현재 인재읍사무소 근무
- 인제군 인재읍 상동1리 43의 1번지  
(내설악타운 102동 403호)

☎ (작) 0365-461-2303

(자) 0365-461-2623

## 그리움보다 한 번 더 찬란한 고백

윤영희

달맞이 꽃 달맞이 꽃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새벽에 피었다 이름처럼  
화려하지 않는 너를

스물한살 모든 光明을 잃었어도  
꽃꽂한 꿈을 꾸고 사랑을 꾸고  
외로움보다 한 번더 쓰라렸던  
너의 시련 너의 고통  
너의 의지 모두를 사랑한다

온종일 비가 내리고  
오늘처럼 외로워 지면  
그리움 밀려드는 창을 열고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네 숨결  
네 목소리 사랑한다

가슴은 텅 비었어도  
단 하루살다 시든다해도  
그대 슬픈 두준에 두볼에  
따뜻한 눈물이 되어줄 달빛이 되리라  
한 번더 찬란한 사랑이 되리라.

# 光明

— 귀정에서 —

눈을 감고 소리여행을 떠나는  
그녀의 벽찬 가슴 속에  
비온 뒤의 연초록 솔잎은  
한 하늘씩 피우리다

우리가 못가진 것을 위하여  
한자락 안개 속에 피웠다가  
매일밤 그녀의 꿈속에라도  
아낌없이 보이리다

그리고 저 해변에 솟아오르는  
불덩이를 이글 거리게 하여  
두 눈에 가슴에 박동이게 하리라  
천사의 눈을 뜨게 하리다.

수필

## 외길인생

서충규

십 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한다.  
내가 걸어온 이길은, 손꼽아 헤아려보니 세 번을 바뀌는 세월이다.

제일처음 시작 했을때는 나이도 적었을 뿐 아니라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면서기 처음엔 다 그랬듯이 산능선 토끼길을 계속 걸어야만 했던 하늘밑 첫동네 산동(山洞)지역을 담당하면서 부터 어려운 일은 계속되었다.

제일먼저 부딪긴 것이 잠종신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가치 아래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아 부었던 때이다.

누에씨를 강제로 농가에 배분하다보니 5일마다 있는 장날에는 여지없이 가지고 나와 반납을 하게되고, 그것을 또 싸들고 산동출장을 나가야 했고 온갖 실랑이를 벌이기를 수도없이 반복하고나면 누에씨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새까맣게 기어나오게 되어 온통 비상이 걸리게 된다.

할당된 목표량을 소화 못시키면 엄청난 고통과 책임 추궁을 당해야 했다.



얼마나 곤욕을 치렀던지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 뒤에 가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이렇게 「누에씨」가 아니라 「눈물의 씨앗」으로 변해 버려 그당시 유행어로 떠돌았다.

또한 단위 면적당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식량증산 시책을 폈다.

「남의쌀 먹지말고 내가 지어 내가먹자」라는 간판을 써 재배단지마다 내세우고,

병충해 공동방제, 퇴비증산, 피사리, 통일벼 확대재배, 종자갱신, 한해대책, 쌀상황실 운영 등 정말 눈코 뜰 사이없이 돌아가는 밤낮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젊음을 불태우며, 지역사회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내 한 몸바쳐 일하겠노라고 온 신명을 다 바쳤다.

맥류 월동관리를 위해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생들이 동원된 보리밭기 일일봉사며, 농경지 확장을 위한 발돋움기, 또한 '74년도의 강원도 정 제1의 역점 사업이었던, 화전정리 사업은 잊을래야 잊을수가 없다.

담당 이주민에 대해서는 전출에서 이주까지 현지를 따라 다니면서 이삿짐은 물론 주민등록 전출입까지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런 갖은 시련을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같은 해 함께 출발했던 이모읍장, 박모부면장, 문모계장은 벌써 정년 퇴임을 하셨다.

그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온 우리 곁에 있는 산 증인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미 50~60대가 걸어온 길은 아주 험난하여 호적등본을 먹지(복사용)를 미롱패지 사이에 겹겹이 바쳐 일일이 써야만 했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집의 호적등본 발급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다.

한문 글자를 잘못 쓴 사례도 많다.

성(姓)의 申(신)을 甲(갑)으로, 天(천)을 文(문)으로 등.

공문 시행도 가리방원지를 사용해서 등사를 했다.

40대부터는 타자기가 보급되면서 공무원 교육에 타자가 필수과목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각종 문서 시행은 타자기에 의했다.

40대이후세대 부터가 컴퓨터 시대로 돌입하였으며 급속히 사회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런세월의 변천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부정 공무원 숙정도 지켜 보았다.

겉으로는 무슨 허울좋은 구호들을 내걸고, 무엇이 잘 되어가는양 하지만 내부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그렇지 못한 단면도 있다고 본다.

나는 오래전 「訓示」라는 제목으로 강원일보에 투고를 한적도 있다. 아침과 아부로 출세하려 하지말고 주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당시 반응도 무척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공직의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을 피워 보기위해 '91. 9. 15 서울에서의 한맺힌 사연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다.

전국에서 구름같이 몰려온 인파가 모여고(某女高)의 교정에 새벽부터 모여들어 정문에서 파는 문제지를 사보느라고 야단들이다.

나는 누구들과 같이 학원에서 업무를 제치면서 공부한적도 없다.

평상시 그대로 근무 다하면서 새벽을 이용해 맑은 정신으로 책을 열심히 본 것 뿐이다.

1차라고 하는 오전시험(헌법, 행정법)을 마치고는, 오후의 2차(행정학, 지개론)는 자의(自意)전, 타의(他意)전 보지 않았다. 그 다음 연도인 9.6일 시행에도,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내무부 장관이 교부한 응시표를 가지고도, 1차는 면제이고 2차만보면 되는데 - ?

2년을 이렇게 되풀이 했다.

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볼 때 세상 모두가 미움계만 느껴지며 내자신이 한없이 바보스런 생각이 든다.

順理란 얘기도 믿을 수 없는 우리사회인 것 같다.  
우리 인간은 간사하고, 임기응변이고 표리부동하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얘기도 있다. 권모술수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빨리 오르면 빨리 물러나야 하고 조금 늦는다고 할 뿐이지 언제인가는 다같이 만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근면, 성실하게 正道를 걷고 싶다.

앞서 밝힌 그런 「꽃」이 되기 이전에 남이 인정해 주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위해 오늘도 「외길인생」을 말없이 걷고 있다.

이제까지 움추렸던 추위속을 박차고 일어나 동해의 붉은 해가 용트림하는 응비(雄飛)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혔던 봇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리듯이 응어리진 한을 풀면서, 또 원대한 포부를 갖고 영롱한 아침이슬처럼 맑게 미래를 향한 밝은 글을 쓰면서 오염되지 않은 꽃봉우리, 뭉게구름 피어나듯 토실토실 아름다운 이런 「꽃」을 피워 보리라.

## ■ 서충규

---

- '48년 강원출생
- '97년 문예사조 수필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 '97년 문예세계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 내린문학 회원
-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
- 강원공무원문학회 회원

## 그림자

지암 장정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7반 갯골

☎ (0365) 461-0580



그림자

1.

「너네 엄마가 철학박사라며?」

3교시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나가시자 아이들은 예외없이 소란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중학교 입학한 지도 어느새 삼개월째 접어드는 수요일 점심 시간이었다. 나는 도시락 가방을 꺼내 지퍼를 내리며 창문 밖 교정의 풍경들이 아직도 낯설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덕대가 내 책상에 걸터앉으며 느닷없이 물어왔다. 무슨 중요한 혐의라도 발견한 수사관처럼 마치 심문조사였다. 녀석과 나는 학예부장이었던 중현이가 전학가는 바람에 공석 중인 자리를 놓고 이른바 보궐선거라는 경선을 치를 후보자 관계에 있었다. 걸핏하면 자기네 형이 해병대 헌병 중사라는 자랑을 나에게 무려 일곱 번씩이나 했던 녀석이다. 어떤 아이는 이십 번도 넘게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얼마나 지켜줬던지 한번만 더 들으면 백 번째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너네 엄마 철학박사 맞아?」

호기심 많은 민기 녀석이 어느새 나타났는지 옆에서 출썩대고 나섰다. 녀석은 덕대와 단짝이었다.

일순 나는 뒤통수를 한방 맞은 낭패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반장 김준모 이 새끼가? -

철학박사라는 말을 퍼뜨린 장본인은 반장 녀석이다, 라는 것을 나는 전광석화처럼 직감했다. 아침 조회 후 선생님 지시로 반장이 설문지를 걷은 바 있었다. 그 때, 반장이 이상한 눈빛으로 부모님 직업란을 유심히 보길래 은근히 마음 졸였었는데 우려했던것 대로 그것은 어느새 아이들 사이로 오가며 퍼진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어쩐지 가까이 하기가 싫은 녀석이었다. 물론 선생님의 신임 아래 반장으로서 학급의 일들을 처리하는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녀석이 주관하는 방식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었다. 학예부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꽤나 까다롭게 굴었다.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지지가 과반수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적 차원에서 공정한 투표로 결정짓자는 거였다. 거기다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선생님 입회하에 치루자며 하루를 미룬 거였다. 어찌면 녀석은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에게 상대후보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 제공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써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점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도 점쟁이라는 칭호에 대해선 뭔가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점쟁이란 흔히 잡신을 섬기며 잡신에 의존하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호로 서원(誓願)을 세워 고통과 번뇌 속에 사는 중생 구제를 위해 보살행을 닦는 불자(佛子)라는 거였다. 그래서 그런 걸까, 우리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를 선녀보살님이라고 불렀다. 간판에도 역시 선녀보살 철학관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만으론 부족했던지 철학박사, 대한역술인협회 ○○지부장 따위의 어딘가 품위있어 보이는 직함을 주로 사용했다. 그것은 응접실 벽면 액자 속에 큼직한 낙관이 찍힌 협회증과 등록증이 그 품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항상 제시되어져 있다. 어머니에게 있어

서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신령한 힘  
 으로 운영되고 작용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신도라고 일컬어는 고객  
 층이 우선 전국적이었다. 누구라면 알만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더러  
 있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삼재라는 것에 든다고 했  
 다. 때문에 흉운(凶運)은 막고 길운(吉運)은 터주는 방편을 씌으로써  
 삼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였다. 즉 이런 경우, 어머니의 신령한 힘  
 과 부적과 주술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고객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  
 는 영적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 수 없  
 는 힘이 어머니에게 있었다. 이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좀 불안하  
 게 만드는 요소인데, 점 보러 오는 손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말하는 거였다. 마찬가지로 점 보러 온 손님 또한 신통하게도 어머니  
 의 반말을 그대로 수긍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 반말하면 어떡해요.”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 심히 걱정스러워 묻기라도 하면, “목숨 줄에 매  
 달린 자에게 목숨줄을 붙잡은 자가 말을 좀 놓았기로서니 넌 그게 뭐  
 가 이상하다고 그러니.”라는 애매한 정당성으로 일축해 버리기가 일쑤  
 였다. 어쨌든 고객 앞에서의 어머니는 산과 같은 존재였다. 중년의 여  
 인으로서 세련되고 기품있는 태도와 말씨, 그리고 보수적인 면이 옛보  
 이게 하는 치장되어진 듯한 도도함이 이를테면 어머니의 상품이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적인 일들에 대한 생활방식은 지나치리만큼 자유분  
 방했다. 하다못해 나에 대한 관심 조차도 자유분방했다. 네식대로 하거  
 라였다. 무엇 하나 간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식 어머니식대로  
 였다. 아버지를 다섯 명 씩이나 갈아치운 것만 보아도 어머니식 자유는  
 분명 보수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듣기 좋게 표현하자면 서구식으로 진  
 보된 자유랄 수가 있었다. 몇 달 전, 삼 년이나 넘게 같이 살아온 아버  
 지를 자기 성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절교해 버릴 만큼  
 개성 또한 유별났다. 대개의 아버지들이 어머니식 자유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그뻘 가차 없었다. “쌍놈에 인간, 꼴에 가장家長 좋다는  
 건 알아가지구…… 어느 자리라고 넘보고 있어, 넘보고 있긴. 당장 내  
 눈 앞에서 없어져!” 그 때마다 공통된 어머니의 말이었다. “어휴, 지독  
 한 여편네. 그래 혼자 잘먹고 잘살아라.” 그 때마다 공통된 대개의 아

버지 말이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나는 그로 인해 날카로워진 어머니의 성질이 누그러질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눈치나 살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였다. 속절없었다. 그렇듯 어머니의 자유와 직업과 직함의 괴이한 그림자 아래서 나는 열악한 정서의 회오리를 운명처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말 해봐, 짜샤, 정말 철학박사야?」

덕대 녀석이 다시 추궁했다. 무지막지하게 생겨먹은데다 반에서 덩치가 가장 크고 힘이 세다는 원시적 방법으로 주도권을 녀석은 약간 채신머리없이 장난을 좋아하지만 뭔가 궁금한 일이 한 생겼다 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근성이 있는 놈이었다. 그래서 거머리라는 별명으로 점차 악명이 높아가는 놈이었다.

「.....」

갑자기 나는 말무니 막혀버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직함이 철학박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억지가 내포되어 있으나 통상 그렇게 불림으로서 굳어진 직업적 명칭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역술인협회 회장 혹은 선녀보살 등이 현재 불리는,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명칭들이었다. 그러나 왜일까, 불현듯 철학박사라는 직함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질문을, 아니, 들어나고 있는 약점을 회피하려는 비굴한 저항감 때문일까.

어머니 직업으로 인해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소외감을 질경질 정 씹어 삼키며 외톨이로 지내야 했던 초등학교 시절은 나에게 있어서 한 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다. 세상 모든 것과 친화할 수 있는 평등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되어진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생활의 몫이란 항상 향냄새가 음울하게 젖어있는 가정과, 허울뿐인 자유의 별판에 버려진 헌신짝 같은 무관심이 내 몫이자 삶의 일상사였던 것이다. 그다지 즐겁지 않은 풍족한 용돈으로 낭비를 취미 삼으며, 반복되는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만화방, 뒷골목 전자오락실 등을 어슬렁거리며, 나는 마치 그렇게 정해진 음식식물처럼 어둡고 음습한 환경에 순응하는 수 밖에 없었다. 덧붙혀 봤자 군소리에 불과하겠지만 내게 있어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이란 아주 먼 나라의 얘기 정도일



뿐이었다. 정말이지 지루하고 지루한 지옥의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고 하지않던가. 내게도 한 가닥 빛이 찾아와 주었다. 밝은 희망의 빛으로,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가 어느 날 내게 뜻밖의 행운처럼 문득 찾아온 거였다. 그것은 중학교 입학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진 열쇠로써 내 발목에 채워진 지옥의 족쇄를 풀어주는 획기적이고도 희망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써 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다소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로 통학해야 할 만큼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나에게서는 무척 기분좋은 일이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만큼은 어머니가 점쟁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알 까닭이 없다는 점 또한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종의 진보된 상황에서 얻어지는 눈뜸이라고나 할까. 그런 계기로 통해 나는 자유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상태, 그런 상투적 결과에 있는 자유가 아니었다. 마음에서 환히 열리는 자유였다. 마음에서 환히 열리는 평화였다. 자유이고자 바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자유의 의지로 화해 거기 있었다. 거기서 나는 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내 자신을 당당히 내놓을 수 있었다. 추구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결과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 나의 장점이래야 풍족한 용돈과 남아도는 여과생활과 눈치로써 썰싸게 판단하는 순발력이 고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외로 절대적 권력의 힘을 내게 부여하는 값진 에너지가 되었다. 대다수의 반 아이들은 이미 나의 장점에 매수되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방과후에도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햄버거 파티가 약속되어져 있었다.

그토록 값지게 얻어진 자유와 평화였건만, 그러나 지금 반장녀석으로 하여금 내 꿈과 희망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인 것이 아닌가.

「혹시, 허위 기재한 거 아냐?」

뭔가 굉장한 흥미 거리를 발견하기라도 했다는 양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거머리가 민기에게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민기녀석이 유난히 반질거리는 눈동자로 나를 맹렬하게 쏘아보기 시작했다.

「너 새까, 허위 기재했지.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뻔해. 철학박사가 그렇게 혼하다면 나도 철학박사 하겠다.」

거머리가 으박지르듯 다시 말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거머리 녀석의 목소리로 인해 주변 아이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했다. 거머리 녀석을 지지하는 몇몇의 놈들이 낄 것을 보면 이것은 각본에 짜여진 의도적인 수작임에 분명한 일이었다.

「뭐야, 뭐?」

녀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내 자리는 금방 수라장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아직 정확한 서열이 정해진 바 없지만 녀석들은 유치하게도 거머리녀석의 덩치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재네 엄마가 철학박사라고?」

「부모님 직업을 허위 기재했대나봐.」

「히히, 정말 웃기는 놈이네. 철학박사가 무슨 구멍가게 주인같은 직업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

나는 반장에 대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증오심을 억누르며 녀석의 자리를 원망 서린 눈길로 건너다 보았다. 간 곳 없었다. 맥이 탁 풀리면서 아쉬움 하나가 자포자기적 기분 속으로 사무쳐왔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대한역술인협회 회장이라고 쓰는 건데.－

설문지에 부모님 직업란을 적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었다. 학교에서 왜 이런 걸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지... 어머니의 직업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항상 난감한 의식에 갖혀 고민하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점쟁이라고 정직하게 쓸 수 없었다. 아니, 내 안의 무엇인가가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것은 어머니의 명예에 관한 일이기도 했지만 내 상상에서라도 불명예스럽다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시절의 점쟁이 아들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집 근처에서야 아직도 점집 아들로 통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 중학교에서 만큼은 결단코 더이상 점집 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빈칸으로 남겨 놓을 수도 없는 일. 고민 끝에 나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철학박사라는 직함과 대한역술인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선정했다. 그래봤자 본질이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지만, 품위있어 보이는 직함을 사용하려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은 알것 같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는 대한 역술인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은 거창하긴한데 역술인이라는 단어가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어 제쳐 놓고, 철학박사라는 직함이 웬지 학술적이고 운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선택했던 거였다. 그리고 어머니 <철학박사>라는 사실이 다만 선생님께서 철해 놓을 파일 속에 묻혀 영구히 드러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넣었다. 작고 희미한 글씨로.

하지만 이토록 빠르게 불상사가 초래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으랴. 더구나 내일 학예부장 자리를 놓고 거머리 녀석과 한 판의 결전을 치러야 하는 판국에. 좀 고리타분 하더라도 대한 역술인협회 회장이라 쓰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테니까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장을 낀 골목길이나 마을 어귀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학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를리 없는 아이들이 철학박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모를리 없다는 사실을 마치 생각지 못했던 거였다. 부질없는 생각인줄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못내 아쉬워 했다. 대한 역술인협회 회장이라고 쓰는 건데. 그것은 그리 흔히 쓰이지 않는 직함이므로 나처럼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헛사리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붙는 녀석들의 기세로 봐선 어물어물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인 거야!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아득히 울려 왔다. 천지간에 나와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너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네 세상을 특별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틈만 나면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던 말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란 말인가. 어머니가 점쟁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들통나면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되돌아 가야 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특별하게 특별하란 말인가. 슬픈 일이지만 이렇듯 철저히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나는 특별한 수가 없는 존재로서 다만 특별한 거였다. 정말이지 분하고 억울한 존재로 특별할 뿐이었다.

그렇게나마 특별한 나는 이러한 귀찮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을 알고 있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나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방법이었다. 분노나 흥분 따위를 일체 끊어버려야 하며 그 상황에 나를 냉정히 맡겨 버림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하는 이름하여 해체술이었다.

「누가 그래?」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론 물어보나마나한 말이겠지만 거머리에 게 태연히 되물었다.

「반장이 그러더라.」

「개가 말한대로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나는 약간 짜증 섞인 어투로 시인하고 말았다. 덧붙혀, 귀찮게 굴지 말라는 뜻의 내 기분을 오히려 되물어 주므로써 간접 시사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머니가 점쟁이라는 사실과 다시 나는 점쟁이의 아들이라는 수치스런 비밀의 보따리가 풀어진 상태였다.

「알았으면 가 봐. 난 점심 먹어야 하니까.」

나는 도시락을 꺼내며 다시금 내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이상 귀찮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 단의 단호한 경고이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어둠 속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지 않은가. 거머리 녀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녀석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이다.

남방향 유리창으로 비껴 들어온 정오의 햇살이 도시락 뚜껑 맑은 면에 부딪쳐 눈부시게 반사되었다. 왼쪽 방향으로 꼬부라진 화살표에 OPEN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틀이 뚜껑이 열었다.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원기동형이며 3단 분리가 되는 고급한 도시락이었다. 사치를 좋아하는 어머니 덕택으로 내 도시락은 반 아이들의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최고급품이었다. 마찬가지로 내용면에서도 그랬다. 보온 처리가 잘 된 도시락에서 여린 김이 살짝 피어 오르고 있었다.

「그럼 너희 엄마가 철학박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거머리 녀석이 말했다. 목소리로 보아선 어딘지 기세가 좀 누그러진 듯 싶었다. 나의 해체술이 통한 것일까.

「그래, 철학박사면 인생에 대해 훤히 아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데, 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걸 할 수가 있단 말야? 증명해봐, 어디..」

민기 녀석이 촉새처럼 또 끼어들었다.

지겨울 뿐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녀석들이었다. 그렇다는데, 어머니가 철학박사라는데 무엇을 또 증명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의문 하나.

증명을 하라니. 지금 녀석들이 요구하는 관심사는 철학박사란 인생에 대해 훤히 아는 사람을 말함인데 여자가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할 수가 있느냐였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분쟁에 대해 재빨리 정리해 보았다. 지금 녀석들은 철학박사 그것이 점쟁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녀석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나고 묻는 그것은 단순한 의심과 트집에 불과할 뿐, 내가 우려했던 바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보니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녀석들과 서로 다른 차원의 이해 대립에 있었던 거였다. 즉 제 각기 타당한 견해의 마찰, 그것에 의한 분쟁이었던 것였다.

나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머리가 맑게 개이며 모든 것이 명징한 논리로 정리되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 직업란에다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는 직함을 써넣었던 것이 비롯되어 얽힌 복잡 미묘한 심적 분쟁에 시달렸던 것이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것은 아찔한 절망감을 맛보게 해 준,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끔찍한 논쟁이었다.

「증명? 좋아. 내일 그 증명을 해 보이지. 됐어?」

나는 자신 있다는 투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해 주었다.

「철학박사면 대학 교수도 되잖아. 너네 엄마 대학에도 나가니?」

민기 녀석이 말했다. 녀석의 질문하는 태도가 어느새 수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있어 보이는 내 어투에 신임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어딘가 부러워 하는 눈치가 역력해 보였다.

「방과후 영신극장 앞 나눔의 집에서 햄버거 파티가 있는데 너희들도 참석해도 좋아. 다른 뜻 없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의 파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냉정을 되찾은 나는 민기 녀석의 질문에 속으로 뜨끔했지만 무시해 버리고 거머리와 거머리를 지지하는 녀석들에게 시선을 마뺌들이며 태연히 말했다.

2.

「너네 엄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껏 감추고 있었던 말야? 어쩐지 너는 고매한 분위기가 있어 보이더라구…… 거머리 새끼, 지네 형이 해병대 헌병 중사면 뭐해.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안그러냐, 종칠아?」

「정신병원 원장의 입장이 되서 보면, 착각의 자유적 망상증 말기에 해당되는 증세라고 볼 수가 있지.」

「자기네 형이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자기도 그런줄 아는 모양이지.」

「그새긴 맨날 진정한 무적의 용사는 오로지 해병대라고, 자랑할 게 겨우 그것 뿐이잖아. 그런 면에서 허진이를 좀 봐라, 어머니께서 훌륭한 철학박사시지만 이제껏 자랑 한 번 한 적 없는 걸 보면 얼마나 과묵하고 겸손하냐.」

나눔의 집 구석진 자리에서였다. 햄버거 하나와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배당받은 아이들은 민망스러울 지경으로 다투어 내게 최대한 듣기 좋은 말로써 아부를 하느라 야단들이었다. 따라서 나는 본의 아니게 철학박사의 아들로 급조되어지고 있었다. 뜻밖이었다.

그랬다. 철학박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철학박사란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막연히 이해하고 있을 뿐, 점쟁이 철학박사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들이었다.

— 긴 장마 끝에 밝은 햇살이 두루 광명하니 행운이 가득할 시기. 동남 쪽에서 귀인을 만나니 뜻밖에 큰 이익을 얻을 수. 34년 46년생은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 할 운세임.

어머니가 스포츠지에 매일 연재하는, 떠벌로 보는 <오늘의 운세>였다. 신빙성 있는 점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습관처럼 아침마다 별 의미 없이 보게 도는 조간 신문이었다. 거미 개띠 자리가 내게 해당되는 나의 오늘의 운세였다. 나는 문득 나의 <오늘의 운세>를 떠올렸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오늘의 운세>와 신기하리만치 일치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내게 있어서 진정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

그러나 불안한 심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만 잠시 떠오르다가 마는 가벼운 걱정거리에 불과할 뿐. 긴 장마 끝에 밝은 햇살이 두루 광명하니 행운이 가득 할 시기라고 했다. 동남쪽에서 귀인을 만나니 뜻밖에 큰 이익을 얻을 수라고 했다. 내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하는 일 마다 만사형통할 운세라고 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 걸까.

좋다. 이제부터 나는 철학박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 하셨지.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실속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채우기 위해 뭐든 자랑하느라 허덕인다고. 그래서 겸손하고 근검한 생활을 하는 자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야.」

어머니의 전문 용어에 평범한 교훈 하나를 보태 꾸며 보이므로써 나는 짐짓 의젓한 태도로 어머니가 훌륭한 철학박사임을 간접 사사했다.

「히하, 역시 말하는 스타일부터가 확실히 다르구나.」

「난 첨부터 알아봤다구.」

꿈같은 일이었다. 아이들의 존경스러워하는 눈빛도 눈빛이지만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명예스런 일이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신나는 사실이 정녕 믿기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거짓 명예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어선 놓칠 수 없는 달콤한 행운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머리에게 제시할 증거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어딘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으나 미비한 그것이 어떻게 미비한지 나 또한 모르는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녀석들은 더욱 모를 거라는 미비한 확신으로 선택한 증거물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광고 문안이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대해서 총 망라한 내력을 한 페이지로 장식한 주간지였다. 거기 운명철학 박사 신초월 선생 태암산에서 다년간 수도 끝에 해탈 하시다! 라고 굵



은 고딕체로 명시되어져 있었다. 미비했지만 책가방에 챙겨 넣었다.

학교 가기 위해 현관을 나서며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슬쩍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진짜 철학박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였다.

「왜. 뭐가 필요해? 용돈이 떨어진 게로구나. 너 요새 씹씹이가 너무 해퍼진 것 같은데, 혹시 나쁜데 정신 팔린 건 아니겠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도리어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속눈썹이 유난히 짙어 그래서 더 날카롭게 보이는 어머니의 눈초리는 사람 심리를 읽어내는 신묘한 능력이 있었다. 때문에 나는 번번히 나의 사생활이 발각 당하기가 일쑤였다.

「철학박사라는 정확한 의의가 뭐예요?」

「인식아 네 에미가 철학박산데 무슨 똥딴지같은 질문이냐. 누가 너 더러 또 점집 아들이라고 놀리던?」

「아뇨. 됐어요.」

정말 철학박사라면 박사 학위는 어딴어요?라는 질문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입 안으로 굴리며 나는 말꼬리를 돌렸다. 내 물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통할리가 애초에 없는, 쓸데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었다. 더이상 의 질문은 시간 낭비였다. 나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압승했다. 처음부터 거머리는 나의 상대가 아니었다. 따라서 나는 어머니 직업에 관한 광고가 실린 주간지를 펼쳐 보이며 나를 확고부동한 철학박사의 아들로 미화시키는데에 성공했다.

「인생을 알고, 운명을 예견하고, 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 철학박사라고 하는 것이야.」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실린 광고의 어머니 전문용어의 흉내는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믿어 의심치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너네 엄만 외국에도 자주 다니시냐?」

양심에 찢리는 구석이 좀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냥 웃어버림으로써 그렇다는 대답의 뜻이 절로 되었다.

「너네 집은 굉장히 부자겠구나.」

그 말도 기분 좋게 웃어버림으로써 역시 그렇다는 대답의 뜻이 절로 되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었다.

신세계였다. 거기서 나는 철학박사의 아들로써 사려 깊고 늘 웃는 마음씨 좋은 아이였으며, 풍족한 용돈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고루 인심을 쓰는 기분파였으며, 거머리 녀석도 별수없이 내 수하로 들어왔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보다 먼저 앞장 섰으며, 그러므로 타인에 모범생이 되었으며, 학급 친구들을 모조리 내 부하로 삼는데에 나는 마침내 성공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내게 있어서 최대의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반장 준모 녀석이었다. 녀석의 환심을 얻기 위해 아무런 우호적으로 대해줘도 녀석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다. 별명 그대로 꿈생원이었다.

공부를 유별나게 잘 한다는 것과 반장 감투를 쓰고 있다는 것만 빼면 보잘것 없는 꿈생원일 뿐이었다. 게다가 행색은 초라하고 빈곤해 보였으며 약골이었다. 그렇다고 무력으로써 내 부하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녀석에게는 선생님의 지대한 관심과 든든한 백이 방패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얽잡아 볼 수 없는 어딘가 범접 못할 기상이 녀석의 눈동자에 서려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만약 내가 녀석을 학교 뒷산으로 끌고가 호되게 패주기라도 한다면 녀석은 그 사실을 선생님께 고자질 할 게 뻔한 거였고, 나는 기합과 아울러 변소 청소를 열흘간 해야 할 거였고, 반성문 또한 열흘간 써서 제출해야 한다는 공식화 된 처벌을 면치 못할 게 분명했다. 더구나 철학박사 아들의 체면에다 먹칠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기회만 노리는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녀석도 철학박사의 아들인 나에게 무릎 꿇게 되리라는 그 기회를.

3.

체육 시간이었다.

체육 선생님은 체전준비 관계로 당분간 체육지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율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반장 준모녀석이 그 시간 때의 감독을 맡게 되어 있었다.

마침내 녀석을 골탕먹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였다. 나는 철학박사의 아들답게 빠른 순발력으로 계략 하나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었다.

햇살이 눈부신 창문 밖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운동장 왼쪽 녹지대에선 울창하고 키 큰 느티나무 잎새들이 바람결에 살랑살랑 손짓하고 있었다 파란 하늘 저 멀리, 한가로히 떠가고 있는 크고 작은 뭉게구름들이 기기묘묘한 명화를 신비롭게 그림 그리고 있었다.

「다음 국어 시간을 대비해서 예습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탁에 나온 반장 녀석이 말했다. 이른바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적 제안이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부터 칭찬 한번 들었던 것에 대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녀석은 하찮은 일에도 공평성을 주장하며 시간 낭비에 불과한 민주적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시켰다. 거의 습관성이었다. 그러나 녀석이 민주적 방식에 입각해서 내세운 제의라는 것의 이면에는 항상 독단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객관성 없는 주장을 내세워 찬 반을 가리는 형식이 그것이었다. 제간엔 민주적이라는 이름의 제도로써 현안의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한다는 뜻의 방식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창의적인 자유의사를 멋대로 생략해 버린 무퇴하기 짝이 없는 독단성 제의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독단성이라기 보다 차라리 독재에 가까웠다. 반 아이들 또한 녀석의 독단성 제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당연한 일로 여기며 선생님 말씀처럼 고분고분 따랐던 거였다.

나는 만면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손 드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었다. 생각대로였다. 기고만장한 반장 녀석의 그것

은 오히려 내게 있어서 학급에서의 내 위상을 한 차원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 녀석의 민주적 제의라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원칙을 들어 지적해 주므로써 학문적으로도 높아지는 위상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체제 하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민이 주가 되어야만 성립된다고 배운 바 있는 것을 일깨워 주자 아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은 우우! 야유를 보내며 일부러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럼, 지난 번 시험 때 미비했던 점에 대해 복습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역시 있을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야! 꿈생원, 어떻게 네 입맛에 맞는 제안만 하니, 새까.」

거머리 녀석이 악을 쓰듯 말했다. 녀석은 풍요롭고 재미있는 일이 많은 내 진영으로 자발적으로 귀순해 온 후, 자발적으로 2인자 자리를 만들어 차지하고 있었다. 의외로 녀석은 우직했지만 “싸나이”의 의리라는 구실로 내 지시에 복종하는 충성심도 있었다. 그럼으로 녀석은 나의 풍족한 재정과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방식에 푹 빠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루에 한번씩 균것질 거리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충실한 내 심복으로서 하자 없었다. 녀석은 제법 인상까지 험악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 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게 아냐 새까.」

거머리 녀석은 말미에 “새까”소리를 꼭 집어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말끝마다 새까였다. 녀석의 악다구니와 아이들의 야유에 반장 녀석은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때 내가 나섰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분분한 의견이 교환되느라 교실 안은 온통 소란으로 가득찬 장터를 방불케하고 있었다. 나는 짐짓 손뼉을 크게 치면서 한번 더 소리쳤다. 이제 내 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신용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었다. 마치 조정되어지는 꼭두각시처럼 아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내 지시에 따랐다. 나는 보무도 당당하게 교탁으로 걸어나왔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하도 분분하길래 부득이 그것을 중재키 위해 나서야겠다는 우정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한껏 가다듬고 결의에 찬 듯 말했다.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쓱 훑어 보았다. 아이들은 예외없이 교실이 떠나가도록 환성을 질러댔다. 그러자 또 한쪽에선 내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환호에 대한 답례와 동시에 주목해 줄 것을 신호했다. 신호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신호만큼 명쾌했다.

「이번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되어 있으므로 각자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할 사람은 반장과 교실에 남고, 체육 시간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운동장으로 나가 주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반장, 어떻게 생각해?」

나는 동의를 구하듯, 아니 나의 절대적 지지기반을 과시하듯 반장 녀석에게 시선을 주었다.

「좋아, 그럼 전체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에 모여.」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반장 녀석은 망서림 없이 내 제의를 즉각 수락했다. 목소리는 다소간 맥이 빠진 듯 했으나 녀석의 즉각적이고도 긍정적인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기묘한 낭패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생각대로였다면 반장 녀석이 학습하는 쪽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나는 녀석의 촌스럽고 구태의연한 민주적 제안이란 것에 일침을 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자유로운 나에 대한 위상을 확고히 하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복수는 커녕 전혀 예기치 않은 비극적 사건 하나를 오히려 녀석이 몰고 왔다.

「허진아. 너, 선생님이 부르셔.」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청소를 하던 때였다. 반장 녀석이 다가와서 선생님의 호출을 알렸다.

「그래?」

손가락 두개를 펴 V자 모양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벼히 흔들어 보인 후 나는 교무실로 향했다. 반장과 함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네, 아아, 네에.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며칠 전에 제출한 설문지가 마치 함부로 벗어버린 허물처럼 달갑잖게 놓여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불안감을 감추며 짐짓 예의바른 소년이 되어 담임 선생님께 먼저 공손히 인사를 드린 다음 다른 선생님들께도 일일히 인사를 드렸다.

「너, 여기 설문지에다 부모님 직업을 철학박사라고 적어 넣었는데 무슨 철학박사라는 거냐?」

「네에, 그거요?... , 그, 그냥 철학박사입니다.」

우려했던대로 선생님의 질문은 어머니의 직업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순간 반장 녀석을 의식하며 태연을 가장했다.

「그냥 철학박사? 인석아 직업을 물었지 누가 직함을 물었냐.」

선생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일순, 어둑한 현기증이 일어나며 눈 앞이 캄캄해졌다. 수치심으로 인해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어깨에 힘이 쭉 빠져 버리고 말았다. 모든 신경세포가 같이 따라 들어 온 반장 녀석에게로 쏠린 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직업말야, 직업.」

「저어, 그,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 책상 앞에 놓인 설문지의 직업란에 작고 희미하게 쓰여진 <철학박사>, 그것은 나의 분명한 허물이자 거역할 수 없는 족쇄였다. 따라서 엄연한 신분이고 현실이었다. 그렇거늘 나는 내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숙명이었음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었던 거였다. 아니다. 망각이라는 허황된

세계를 구축해 놓고 거기서 나는 즐거움에 안주했었던 거였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듯 늘 조마조마하게 가슴 조리며 지내왔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다.

「임마, 어물거리지 말고 어서 말해. 나 지금 바쁜 몸이야.」

반장새끼는 왜 안가고 버티고 있는 걸까.]

그동안 내 본분 밖에 일로써 허황되게 건설해 온, 명예로운 권위라는 것이 만들어 낸 유치찬란하고도 저급한 거짓 놀음이 지금 비정한 현실 앞에서 마치 꿈처럼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당장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우물쭈물 하기만 했다. 비참해서 차라리 “각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어서!」

「저어, 그, 그개……」

그러니까, 철학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을 쳐서 먹고사는게 직업이고 그 직업의 직함이 즉 철학박사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고개가 한없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마른 입 속에서 모래알처럼 서걱서걱 씹히고 있었다. 어떠한 변명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자꾸만 말을 더듬고 있었다. 내 의식은 또 옆에 있는 반장 녀석에게로 온통 쏠리고 있었다.

순간 무슨 염탐꾼처럼 버티고 선 녀석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 고리가 얼핏 터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답답한 놈 봤나. 네 어머니께서 무슨 일에 종사하고 계시냐, 그 말이야. 알아 듣겠어?」

「대, 대한 역술인 협회……」

다급해진 나는 또 하나의 어머니 직함을 둘러대고 말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그렇게나마 말하는게 상책일 것 같아서였다.

「역술인?」

선생님은 나의 태도에 무슨 이상한 낌새라도 잡은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와 반장얼굴을 재빨리 살피고는 반장에게 말했다.

「반장, 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왜 가지않고 그러냐.」

「허진이와 같이 가려고요。」

「무슨 소리야? 청소 시간에 청소는 안하고, 가서 오늘 청소 검사는 선생님이 직접 한다고 전해.」

「네, 선생님。」

반장 녀석이 선생님께 인사를 꾸뻑 하고는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때 잠깐 스친 녀석의 얼굴엔 뭔가 아리송하다는 듯한 표정이 얼핏 스친 것 같았다. 혹시 눈치라도 챈 건 아닐까.

「역술인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다. 고개숙인 나를 일별하듯 살피시고는 갑자기 부드러워진 음색으로 말을 이으셨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한번 가웃거렸다. 입가에 얽은 웃음기가 언뜻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는 설문지의 부모님 직업란에 쓰여진 <철학박사>라는 글자의 머리위에 <역술인>이라고 첨부해 넣었다. 마치 관형사처럼.

「됐어. 이제 가도록해.」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한 번 꾸뻑하고는 한없이 돌아섰다.

「역술인이라면 점술가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출입구 쪽으로 걸어나가는 내 발목을 순간 영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소근거리듯 달려와 철컹, 족쇄를 채웠다. 영어 선생님은 노처녀였다. 작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팔뚝과 정강이에 거무스름한 털이 유난히 길어서 맹춘자라는 이름보다 노털 노생이라는 별명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글쎄요.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이 말을 잠시 끊은 듯 하다가 다시 이었다.

「역술인이라면 주역을 통달한 사람이 음양의 원리로 앞 일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의 매개로 길흉 화복을 점치는 점술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점을 친다는 자체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군요. 왜요?…… 맹선생께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지요。」

「미신이에요。」

교무실 밖으로 나왔다. 미신이에요, 라는 노털선생의 경멸어린 목소리가 채찍질처럼 따갑게 내 등짝을 후려갈기며 어둡고 음습한 지옥의 문으로 매몰차게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 앞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었다. <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 손에 쥐어진 규칙서가 있다.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내 의식 어딘가에서 맹렬하게 주지시켜주고 있었다. 그럴까. 이것을 운명으로 치부하며 살아야하는 것일까. 씨발, 나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씨발이라는 말을 어금니로 꾸욱 씹었다.

그러나 공허했다. 정확히 누구를 원망해야하며 어디서부터가 정확한 원인이었는지를 가늠키가 어려웠다. 다만,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암담하게 떨미하고 있을 뿐이었다.

**향토문예 제 5 편**

**향토 등단 문인 소개**





**오정진**

-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남
- 인제군 농업협동조합장 역임
- 인제문화원장 역임
- 내설악 사진동우회장
- 내린문학 동인



## 어머니 외 4편

오정진

보라빛 강산에  
저녁 노을 타오를 때  
하늘 끝 저 멀리  
어머니는 가셨네

외아들 나를 낳아  
훗길을 보시려고  
호미 들고 땀 흘리며  
외줄기 한 평생

그 호미 채마밭에  
그냥 놓고 가셨네  
사철 신던 겨울 신발  
토방에 가즈런히  
훗훗한 맨발  
호을로 가셨네 피야 하늘아  
이대로가 끝인가?

덤덤한 산 위를  
구름이 흐르네.

## 박 꽃

兵亂에 눈 못 감고 죽은  
朝鮮의 아버지들이  
밤하늘에 초롱초롱 눈을 뜨면

소나무에 목을 매  
정절을 지킨 朝鮮의 어머니들이  
淸楚하게 피어나  
못다한 情 서로 속삭인다  
맺힌 恨을 밤마다 푼다

푸른 꿈을  
핏줄처럼 야무지게 간직하고  
해맑게 피어난  
나의 어머니

그 情겨운 얼굴  
가슴에 사무치어라

등 뒤엔  
오천년의 어둠이  
치마자락처럼 깊게 드리웠구나.

## 江갓에서

굽이치는 江이  
그 기슭에  
초록 웅단 깔아 놓고  
지친 발길 잠깐  
쉬어서 가란다  
쉬면서 내 말 좀 들어 보라 한다

갯버들이 발을 담근 채  
그 그늘에  
송사리떼를 키우며 앉았고  
밝은 바람 한 자락  
갈대숲과 실랑이를 하다  
어데론가 가버렸는데

강이 슬며시 내게 이른다  
“흐르는 것이 生命이라”고  
덧없이 마라  
정녕 흐르는 것이 人生이라고

굽이치는 江이  
그 기슭에  
파아란 웅단 깔아 놓고  
지친 발길 잠깐이라도  
쉬어서 가란다  
쉬면서 내 말 좀 들어 보라 한다.



## 그 풍경 속에서

산이 잠을 자려고  
옷을 벗는다.  
지붕에 된서리  
자주 나리고  
까마귀떼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올라  
남쪽으로 가고 나면  
북풍이  
가지 끝에 와  
운다  
머지 않아  
그리운 손님이 오듯  
흰 눈이 오겠지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면  
다시 날고 싶다.

## 깃 발

하늘 높이  
꿈꾸는 理想을  
指標로 내어 걸었다.

바람이  
세찰수록  
더욱  
강렬한 몸짓으로  
自身の 存在를 確認하는  
確信에 찬 너  
나의 하늘에  
펼러이는 너를 본다

뒤뚱거리는 몸을  
다시 추스리고  
한없이 펼러이는 깃발.

## 뽑고 나서

※  
※  
※

오정진의 작품 「어머니」, 「박꽃」, 「江갓에서」, 「그 풍경 속에서」, 「깃발」 등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그의 시는 우리 모국어의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한없이 비상하고 있다.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편안한 느낌이 든다. 우리 겨레의 열 같은 리듬이 전편에 넘친다. 언어의 감각적인 맛깔이 있기도 하고 언어의 상징적인 지표가 있기도 하고 언어의 날렵한 이미지가 돋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주제가 없다. 좀더 깊은 철학과 넓은 세계관이 있어야 하겠다. 시는 서정만은 아니다. 서정의 깃발 위에 혹은 옆에서 안에서 계시와 예언과 비전을 주기도 해야 한다. 시는 농민과 더불어 노동자와 더불어 때로는 비탄 속에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뛰어넘어 비상해야 한다. 앉아서 누워서 비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시는 모두가 수준급이다. 「박꽃」에 어리는 조선의 마음이나 「깃발」에 담겨진 확신의 마음이나 모두가 감동적이다.

그러나 시는 다듬어야 더욱 빛난다. 읽고 쓰고 다시 깊어져야 한다.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심사평/원영동, 장윤우

## 당선 소감



### 오정진

-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남
- 인제군 농업협동조합장 역임
- 인제문화원장 역임
- 내설악 사진동우회장
- 내린문학 동인

※  
※  
※

참으로 오랫동안 초야에 혼자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잘된 노래인지 음치인지도 모르고 가슴속 응어리들을 노래로 풀어 보곤 하였다.

그러나 듣는 이도 메아리도 없는 것이 쓸쓸하기 이를 데 없이 마차운 단상에 올라 청중을 향해 정색을 하고 불려 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되었으나, 때는 이미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감성도 무디어 신선함과 쾌기 모두 없는 것 같아 자꾸만 망설이는 동안 저만치 고회의 언덕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내 심정을 꿰뚫어 본 글벗이 몇 있어, 등단해 보라는 성화가 가끔 있더니 느닷없이 전보 한 통이 날아들었다. 응모도 하지 않은 당선 통지가 어떻게 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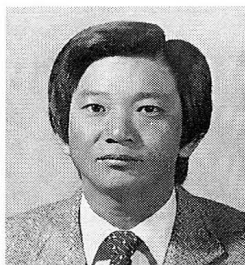
주소와 이름을 다시 확인해도 분명 내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를 걱정해 주던 글벗 누군가가 작품을 갈무리해 두었다가 응모래 준 것이 틀림없다. 범인(?)을 수색해 보았으나 오리무중-.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저 ○○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질러야 할 것 같아…….”

자백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두 다리 멀쩡한 내가 손흥기 시인의 등에 업혀 문단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처럼 못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미안하고 고맙기 이를 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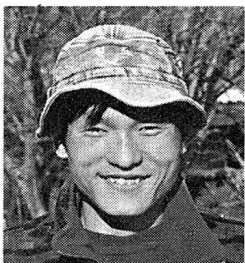
부족한 글을 뽑아 길을 터 준 한맥문학사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나를 걱정해 주던 내린문학 동인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보낸다.





### 서충규

- 1948년 강원출생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베트남에서 민사 심리전요원으로 2년간 활동
- 내린문학동인
- 강원도 공무원무학회 회원
- 강원도 인제군청 근무



### 윤영희

- 1962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
- 현 설악기슭 인제에서 농사
- 내린문학 동인



### 이 정

- 1971년 강원도 춘천 출생
- 인제 내리문학회 동인



## 初老 외 4편

서충규

잔잔한 저녁노을이  
호수 저 편에

山 나무가지 위에도  
둥그런 달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린날의 나이테처럼  
마음에 출렁이는 파도

성난 파도도  
혼탁 오염도  
은갓 시름 잊고  
숨바꼭질 한다

투명한 동심으로  
살아가는  
初老의 만감이 따스하다.



## 토담집에서

초가삼간 토담집에  
고콜이 있었네

흙벽으로 만든 고콜  
아픔으로 옹이진 관솔이  
활활 타올라  
방안 가득히 환히도 밝다

통나무 등거지도 군불지피며  
긴긴밤  
분뜰에다 국수눌러서  
트리배기 휘휘저어 정담 나누며  
밤새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고콜이 등잔되고  
호야가 전기되니  
바야흐로  
올챙이적 기억 새롭다

고콜제사 지내며 情나누던  
그들을 만나야 한다

고콜불 지피면서  
삶의 정제된 시를 건져내고 싶다.

## 曠野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곳이 얘기 하라면  
옥수수 한 가마  
감자 두 말  
이것이 모두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아름다운 山河  
맑은 空氣.  
이것이 모두 내것이다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움이 노니던  
아득한 광야에서

영원을 다짐하던  
順이와 소꿉놀이하며  
무지개 쫓던 그때가 새삼 그립다.

## 鳥寢嶺

산 허리를  
굽이 굽이 돌고 또 돌아  
하늘이 손 끝에  
맞닿는 조침령  
해발 칠백구십육미터

하늘을 나는 새도  
동해의 소식도  
저족(豬足)고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내려다보니  
가마득히  
산이 쌓이고  
천하가 품안에 있었다

계곡마다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고  
산돼지, 반달곰, 노루, 꿩, 토끼  
태초의 짐승들이 낭만을 노래하는  
원시림 속에서  
그 누구의 풍류를 배운다

누천년 조침령  
벼개를 베고  
진솔한 날개를 달았다.

## 편히 가시옵소서

— 엄완섭의 영전에 —

그렇게도 밝게 살려고  
애쓰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우리결을 떠나게 되었다는  
悲報를 듣고  
서운한 마음을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총사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때는 한계령, 장수대, 미시령  
졸졸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소주잔을 나누고 천하를 품었다

어느 때는 머언 강릉에도 함께  
갔었는데,

오늘 그대 먼저가고 아이들이  
혼자 남아 깊은 시름하는데  
집 나간 여자  
그 여자로하여  
가슴에 못을 박고  
그대는 멀리 갔습니다  
이제 한 많은 속세를 떠나  
편히 가시옵소서.



### 서 충 규

- 1948년, 강원출생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베트남에서 민사 심리전요원으로 2년간 활동
- 내린문학동인
- 강원도 공무원문학회 회원
- 강원도 인제군청 근무

### 당선 소감

※  
※  
※

보이지 않는 형체를 잡으려고  
수없이도 반복하다가 天命에 달했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牛億이 노니는 廣野에 나가,  
청정생명수로 목을 축이면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詩를 건져 올려야겠다.  
내 인생에 새로운 획을 그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채찍으로 알고 더욱 精進할 것이다

많은 도움을 주신 이외수님, 최돈선님, 최병헌님, 한용운님, 채진옥  
님, 정동섭님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두 아들과 항상 내조를 다하는 아내에게도 기쁜 마음을  
전한다.

## 도리깨 외 4편

- 추수 -

윤영희

콩밭가리 헐어  
한나절 두들기고 또 두들겨도  
시원찮은 늦가을  
땀내나는 몸으로  
막거리를 들이쳤다

그놈의 역겨운 돈 냄새가  
억하고 몰려온다  
도리깨가 흥분하기 시작한다  
가을, 허공중에 치솟더니  
푸르르 털리는 소리  
몽둥이 장단을 하고  
태질하는 매질 푸웅

지독한 돈 먼지가 내 살갓을  
파고드는 걸까 소름이 돋는다  
콩알이 튀어 나갔다  
울곡비리가 튀어 나갔다  
대가리가 벗겨진 그놈도 튀어나갔다  
깨어진 공화국도 튀어났다.

## 도리깨

- 폐가와 환고무신 -

감자 바윗골에 가면 어머니의 하얀 고무신  
버려진 폐가 있어 지금도 그리워 가슴뛰는 곳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에 아직도 내게 남은 향수있다  
가재골 단옥수수 익어갈 때  
당신이 아끼시던 봉다워 하얀고무신 내려신고  
꼭마단 가설극장 구경가시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먼 삶을 지키던 꿈의 땅  
지금, 지금은  
홍물스럽다는 따돌림에 오죽하면  
TV화면에 손가락질 오르내리는  
이 땅의 상처가 되었을까  
모두들 구멍난 스패트지붕이  
어떻다고 떠들어대지만  
새마을 운동때 높이신 어른들은 무얼하는지  
깨어진 장독대 부서진 외양간  
마른축대 우거진 텃밭들  
평생 환고무신 신고 설움을 일구시던 어머니

풍진 어머니의 흔적은 어데가고  
백년 영혼 동학의 깃발  
이제 티끌같은 비석하나 무슨 의미로 세워지고  
경자유전 자영농의 주창을 쥐뿔이나  
아시고도 모르셨을  
비석하나 무슨 의미로 세워지고  
질기게만 시시던 어머니, 그대는 멀리가고 없는데  
황폐한 이 자리에 찾아와 농민가를 부르는 설움  
생전에 사다 드리지 못한 녹슨 고무신을 바라보며  
이풍진 세상에 촛불하나 밝혀둔다  
어언 옛날 눈물이 난다.



## 우수(雨水)

빛이 스미지 않는 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수 많은 영혼  
밤새워 도둑비 내리는 소리를  
숨죽여 들어야 했다

한 뼉 잔설 남아 있는  
북단의 끝동네 오랜 겨울나기  
시린 발동을 동동 구르며  
아픔을 간직해야 했던 추억  
초라하고 가난했던 마지막 뒷모습  
새벽이 올때까지 정지시키며  
바람이 정해진 계절을 느낀다

마당 가득히 봄비가 내린다  
씨를 내다 뿌려야 할 농가의 꿈틀거림  
새생명의 시련은 끝나지 않은결까  
정월 대보름 액막이 굿  
등당거리며 지나간 자리  
겨우내 얼었던 마음을 푼다.

## 눈이 내리면

그해 겨울  
함지박 가득  
퍼담고 싶었던  
흰 눈, 눈꽃송이  
힘겨운 바람에도  
당신의 입김에도  
입김에도 녹아버린  
꽃씨 한 알  
잃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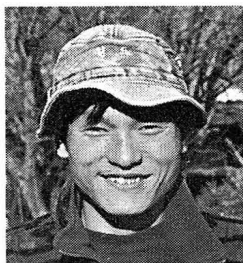
## 강가에서

갈대 한 포기  
담고 있었다  
영.  
말이 없다

쫓그려 앉은  
내모습  
저만치 하늘을 짙어지고  
무엇인가 응시하고  
있었을텐데

새, 한 마리  
노을쪽으로 사라진다  
어깨가 무거워진다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

멀리  
추억이 사라진 끝  
돌아나와  
앉았다.



윤영희

- 1962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
- 현 설악기슭 인제에서 농사
- 내린문학 동인

## 당선 소감

※  
※  
※

한 때 시와 시심을 배우기 보다 신인으로 등단하는 작가들의 당선소감과 심사평을 읽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고 달콤했었습니다. 그것은 남모르는 눈물뒤에 영근 뾰두라지 였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제, 그 깊은 상처 누에의 실올로 여며  
깊은 잠에 빠지고 싶습니다

몽타지 같은 사내하나 등장한다  
글렀을 뿐인데 채울수 없을 뿐인데  
그 남겨준 여백을 난 이미 개칠을 했을 뿐인데  
그러나 간이역에 남기로 한다  
더 여위어 갈 것을 약속하며

젓내가 채 마르지 않은 글 구설수에  
허락하여 주신 심사위원님, 문학세계 가족여러분 그리고 안아줄  
누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추울 것이라며 술잔을 채  
워주시던 창준, 홍기형님 내린문학동인, 선배님들께도 기쁨을 드  
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께 도리께 소쿠리에 담아 올리겠습니다.  
배냇짓이나마 고행의 길로 들어선 등을 매우 쳐 주십시오.  
열심히 걸어 가겠습니다.

## 소나기 외 4편

이 정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바람이 떼어놓고 간  
먹장구름 한 자락

토라진 바람 달래려다  
서글퍼지는 눈매

갑작스런 울음으로  
하소연 하고 가는  
하늘 끝 이방인.

## 새벽 가로등

남은 어둠  
애써 부여잡은 작은 달  
뜬 눈으로 지새는 밤  
밤마다 긴 인연의 무명 끈  
휘감아 또 감아 놓으면  
빛으로 풀어 헤치는 아침  
피어오르는 새벽 안개 끌어 안고  
밤을 불사르는 애달픈 춤을 춘다.

## 즐장미

愛人이나 되어 살라한다  
바라보는 눈길 따가와  
바람결에 이리저리 마음 주지 않으려고  
가시 돋는 아픔도 견디어 내고  
홀로 세상 붉은 빛을 다모아  
핏빛 가슴을 활짝 열어 보였다

기다림만 연습하게 해 놓고  
愛人이나 되어 살라한다  
실오라기 하나에 의지해  
햇빛을 호흡하다가  
어디에다 마음을 둘 곳 없어  
진한 기다다림  
한잎 한잎 핏방울로 떨구고  
가시에 서러움만 묻혀낸다  
향기에 그리운 맘 실어 보낸다

하늘 푸르게 의지하고  
愛人되어 살란다

무디게, 무디게  
가시도 깎아내고  
외로운 눈길들의  
영원한 愛人되어 살란다

이슬비 내려와  
핏빛 가슴에 투명한 눈물로 잠시 앉았다가  
후두둑 님의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 봄비 오는 소리

양철 지붕 뒷마루에 앉아  
눈에 갇혀 있는 붉은 산허리  
하늘에다  
흐드러진 진달래 꽃 술 담근다  
머릿결 빗질하는 산바람  
거칠어진 파도까지  
가난한 연인들이  
하늘에다  
향 그윽한 술을 담근다.

우산을 들고 나서는 연인은 취할 수 없다  
해마다 담귀둔 꽃비가 내리는 날  
흠뻑 젖은 옷깃, 분홍물 고이는 가슴  
일년 내내 취한 눈으로 하늘을 본다  
갈짓자 걸음으로 거리를 걷는다  
그제서야 풀어나는 세상이 보인다

빗소리 그치면  
그렇게 술,  
다 마셔 버리면  
양철 지붕 뒷마루에 걸터앉아  
가난한 연인들이 다시 꽃술을 담근다  
텅 빈 하늘에다  
향 그윽한 술독을 묻는다.

## 이른 아침에

싸 - 한 쯤  
그이는  
밤새도록  
바다로 가는 꿈을 꾸고  
허한 가슴 파도 소리 닮은  
썸으로 달래고 있다.  
하얀 잔에 묻어난  
비비드 브라운 입술  
그이는 꿈에 남긴 발자국  
한모금 한모금 지우며  
빈 잔 속 바다내음  
싸한 가슴으로 들이킨다.

## 당선 소감



### 이 정

- 1971년 강원도 춘천 출생
- 인제 내린문학회 동인

오월에 핀 하얀 목련 세 송이 내게 고향이 되어준 이곳 미산리에는 늘 뒷북치는 계절이 살고 있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리운 사람들은 가도 가는것이 아니다. 온 천지에 바람으로, 구름으로, 풀꽃으로 떠들면서 내 영혼을 일깨워준다. 뒷북치는 계절에 가슴 저리도록 그리운 사람들이 내 가난한 마음 보듬어주는 가장 황홀한 순백의 메세지!

마음의 양식이 된 그리운 이들. 이제 그들에게 내가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일만 남았다. 평생을 두고도 다 이름짓지 못할 이 어슬픈은 또 어디에서 채워야하나 이제 부터는 나의 눈, 코, 귀, 가슴에 씬표하나 찍을 여유도 없이 내 영혼 일깨워주고 가는 바람에게, 구름에게, 풀꽃들에게 더욱 진실한 답장을 써야 한다.

추신에는 이렇게 쓸것이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푸른별이 떨어지지 않게 별을 꼭 잡고 있으라고.....

가난한 이름자를 지어주신 부모님께, 어설플 녀두리 받아주시고 가난한 이름하나 더 보태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문학세계>에서 기쁨으로 살아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초가집 댓돌위에 앉혀 놓고 詩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동무하고 늘 울타리 되어 주시는 내린문학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그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

## 뽑고 나서



서충규의 시〈初老〉〈토담집에서(고콜)〉〈曠野〉〈조침령〉〈편히 가지읍서〉 등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그의 시는 진실하고 삶의 조수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시 중간부분에 서정적인 시어들이 눈길을 끌어 당선작으로 뽑는다. 날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향토의 역사앞에 더욱 빛낼 수 있는 시인이 되기를 바란다.

윤영희의 시 27편은 농촌을 주제로 한 테마시로 개성이 있다. 〈도리깨〉연작시와 〈눈이 내리면〉〈강가에서〉〈옥수수〉 등은 수준급이다. 그러나 일관된 테마와 참신함이 조금 약하다. 가급적이면 더욱 진솔하고 기개있는 시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살아있는 시와 더불어 훌륭한 작가로서의 자세를 기대한다.

이 정의 시〈소나기〉〈새벽 가로등〉〈줄장미〉〈봄이 오는 소리〉〈이른 아침에〉 등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그의 시는 모두가 세련되고 진지하여 수준급이다. 다소 참신함이 부족하지만 진지한 삶과 세련된 언어감각이 돋보인다. 간결한 가락과 독특한 이미지가 세련미와 조화되어 있어서 좋다. 특히 줄장미와 새벽가로등 같은 작품은 이 시대의 흐름과 고독을 잘 표현해가는 가락이 있어 좋았다. 여러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들을 만날때 걸죽한 막걸리라도 한 사발 들이키고 싶은 심한 갈증을 느꼈다.

심사위원/장윤우·원영동·이수화



### 서충규

- 1948년 강원출생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내린문학 동인
- 강원도 인제군청 근무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2반
- 전화 / (0365) 461-2123



## 제삿날

서충규

한눈팔고 있는 사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아 며칠마다 한 번씩 서는 장날에도 몇 시간을 걸어야 했고, 호적등본을 한 통 떼기 위해서도 몇십 킬로를 하루 종일 걸어야 했던 『황골』이란 산골에서 나는 자랐다.

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앞뒤가 산인 전형적인 아담한 농촌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며,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전통을 이어가는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산간오지이기도 하다.

가난이 숙명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고, 주경야독(晝耕夜讀)이라고 밤에는 글공부를 해야 했다.

합지에다 좁쌀을 가득 담아 “가”자(字)에 기역(ㄱ)이면 “각” “나”자(字)에 니은(ㄴ)이면 “난”을 큰 소리로 계속하면서 지웠다 썼다를 여러 번 반복하고서도 암기가 되지 않을 때는 항상 회초리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것은 지금은 다른 세상에 가 계시지만 선친(先親)(일천구백년에 출생)께서 직접 맡아 하셨다.

몹시 살림이 어려웠기에 화전밭을 일구어야 했고, 추운 겨울 이른 새벽 찬서리밭을 헤치며 손을 호호불면서, 콩을 꺾어야(수확)했으며 소꼴을 베는 일과 여물(소)을 끓이는 일, 물지게를 지는 일은 내가 맡아 했다.



날씨가 추운 이른 새벽이면 소여물 끓이는 가운데에다가 농주(農酒) 한주전자를 끓여 휘휘 저어가며 한사발 쭈우욱 들이키고 가슴을 데우고 나면 왕성한 혈기가 꿈틀거리며 끓어오른다.

국죽, 옥수수밥, 감자투성이, 도토리밥, 칫떡(잎) 콩나물밥, 콩죽, 시래기밥…….

요즘은 기호식단으로 등장해서 가끔 찾기도 하지만 그 시절엔 이런 것들이 주식(主食)이 되어 배고픔의 한을 달래야만 했다.

기억을 떠올리는 일화(逸話)가 있다.

그 시절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전통가정에서는 손님이 집을 찾아 오게되면, 집안 어른(아버님)만 아랫방에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낙네, 아이들 등 나머지 가족은 웃방에서 문을 닫고 식사를 한다.

아랫방과 웃방 사이는 문창호지로 된 문이 있다. 문틈을 손가락으로 뚫어 구멍을 내어 손님과의 식사 광경을 훑쳐보기를 습관처럼 했다.

손님과의 식사는 이밥(쌀밥)을 대접하게 되고, 나머지 가족의 식사는 악식(惡食)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밥 한 번 먹어보자는 것이다. 손님이 체면차린다고 밥그릇을 다 비우지 않고 남기고 식사가 끝났을 때, 그것은 재빠르게 내차지다.

세월이 흘러 不惑이 지나 知天命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울역재 누런이, 양지말, 강을 건너고 재를 넘고 산모퉁이를 질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온동네 사람들은 울역에 동원되어 청소아리, 통나무를 찍어다 외나무다리를 놓고, 수해로 떠내려간 소릿길(小路)을 손질하는데 어느 누구 소홀함이 없이 벌떼 역사처럼 열정을 쏟아부어 단합을 과시한다.

부녀자, 노약자의 집에는 마을에서 부역으로 산더미 같은 나무가리(화목)를 만들어 주며, 서로들 간에는 품앗이로 돌아가며 집채덩이보다 더 큰 뿔나무를 한가리씩 모두가 끝내고 나면 이곳의 정겨운 인심이 뒤란 굴뚝을 타고 아름다운 뭉게구름으로 피어오른다.

이런 벽지 오지 산촌 마을에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오늘이 『제삿날』인줄 알아라! 하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제삿날』은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 가구라야 손뿔을 정도로 몇십호에 불과한 조그마한 집단촌이었기에, 어느 집 『제삿날』이 며칠이라는 것쯤은, 어린아이가 먼저 아는 것이다.

이날을 손뿔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가정에서는 자정(子正)이 되어야만 제사를 모시는 관습이 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으레 자정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게되며, 아낙네들이 여지없이 제사음식을 가가호별로 배분하여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관솔불을 밝히면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수, 고등어 한절음, 닭고기 찢은 것 한점, 적(炙), 탕(湯), 채(菜), 과(果)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음식과 함께 후덕한 인심과 정을 먹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꾼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져 숙명처럼 여겼던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게 되었는데도, 인심은 더욱 메말라 가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불신(不信)의 벽은 더욱 커져, 대문을 잠그고도 마음에 놓이지를 않아 방문을 또 잠그는가 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이사온 앞, 뒤, 옆집의 얼굴조차 모르면서 스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조상의 제사를 초저녁에 지내는 것은 그런대로 보아 넘기기로 하고, 남의 제사를 대신맡아 지내주는 『제사대행업』이 생겨나 여기에 맡긴다고 한다.

이것이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 깃든 제례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미풍양속(美風良俗)들은 세월이 가도 지속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편리한대로 변해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부모를 모시기 싫어 제주관광을 핑계삼아 버리고 왔다는 記事가 있는가 하면, 財産문제로 삼촌 조카가 살인극을 벌였다는 어두운 단편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우리 세대부터라도 홀기(笏記)는 못찾더라도, 조상은 후손들이 직접 모시는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불신을 깨는 사회, 한점 부끄러움 없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정겨운 사회,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복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삿날』의 보잘 것 없는 제사 음식을 나누고, 정답을 나누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의 의미를 다시금 가슴깊이 되새겨 보자.

### 徐忠奎의 『제삿날』

산골 마을의 여러가지 어렸을 때의 추억과 특히 제삿날에 얽힌 여러 이야기가 흥미롭게 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나 풍요한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제삿날의 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일인 것이다. 조상 숭배의 형식을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으나 그 마음만은 상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언저리가 이 수필에는 익히 나타나 있다. 무난한 작품이다.

심사위원/조봉제 · 김시원

## 수필 당선 소감

※  
※  
※

서 충 규

- 1948년 강원출생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내린문학 동인
- 강원도 인제군청 근무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2반
- 전화 / (0365) 461-2123



## 또 다른 획을 그으며...

지평선 너머 더 멀리에서 情談을 나눌 그런이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을, 그곳을 가보려고 무단히 애써왔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公僕의 꽃을 피우기 위해 牛億이 노니는 평화의 廣野에다 尊心을 흘날리며 씨뿌리고 가꿔온지 십 수년. 그러나 꽃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다시 오염되지 않은 청정 생명수를 찾아 허기진 마음 달랠 수 있었기에, 수 몇 배 더 값진 기쁨을 느낀다.

오늘로 내인생의 또 다른 획을 그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채찍으로 알고 더욱 精進할 것이다.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문인 이외수님, 최돈선님, 최병헌님, 한용운님께 정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두 아들과 항시 내조를 다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인제문화원 임직원



원장 박해순



부원장 김헌래



감사 길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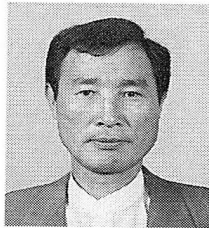
감사 이지형



이사 조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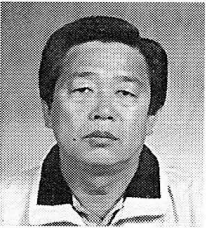
이사 황범식



이사 유석호



이사 임성기



이사 김진태



이사 정재복



이사 조철환



이사 안승규



이사 서성호



사무국장 이만철



간사 장미향

## 원 고 모 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13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소재와 애항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 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항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실천수기, 효행사례담

마. 기타 : 옛 사진, 관광사진, 옛 문헌, 사료집 등

바. 그 밖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13호’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접수기간 :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3. 접 수 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 (0365) 461-6678 · 4173

## 인제문화원 회원현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송 병 선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서화중학교 근무)	462-4006
심 준 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2반(의료보험 근무)	461-2248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인제유통)	462-1615
한 상 문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인제군청 근무)	460-2472
문 원 태	인제군 남 면 신남 4/5반(인제군청 근무)	460-2491
박 명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인제군청 근무)	460-2425
최 태 홍	인제군 인제읍 남북 2/2반	461-4984
박 성 실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낙원APT	461-1500
임 혜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극동연립	461-1242
차 애 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군인APT 206호	461-6285
임 정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461-0717
한 용 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461-2623
최 병 현	인제군 인제읍 상동 4/6반(인제군청 근무)	461-0788
장 정 섭	인제군 인제읍 남북 1/7반	461-0580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합강 2/7	461-0936
이 정	인제군 상남면 미산 2/2반	461-6871
조 해 숙	인제군 서화면 천도 4/10반	462-0337
김 실 권	인제군 인제읍 남북 1/3반	461-2877
김 신 향	인제군 북 면 원통 2/1반	461-3437
이 상 각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0799
심 정 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반	461-2248
정 규 련	인제군 북 면 원통 5/3반	462-1864
이 정 복	인제군 북 면 한계 2/2반	461-4142
강 인 석	인제군 북 면 한계 2/2반	461-6927



성명	주소	전화번호
김봉준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	462-4017
손동열	인제군 북면 용대리	462-4901
이상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구만동 401번지	461-4050
이운철	인제군 인제읍 합강3리	461-4050
이은자	인제군 기린면 현1리	461-1230
황영일	인제군 귀둔리 설낙원	461-0993
백창우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	462-6897
전송규	인제군 북면 한계 2/2반	461-4142
최정규	인제군 북면 용대리	462-5098
김기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 1/7반	461-2851
최태석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461-4541
전영환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2372
김은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인제군청 근무)	461-4401
오성현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4793
한성산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인제우체국 근무)	461-8173
손홍기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147
김영주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군인 APT	461-9003
김종각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마동 201호	461-0316
김종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반	462-3334
최은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8802
고금녀	인제군 북면 원통 8/1반	462-0389
최경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2736
이재화	인제군 북면 원통 3/5반	462-3344
황민숙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31
강순복	인제군 인제읍 상동5/4반 구연립 212호	461-4879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분남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5반	461-4651
조인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461-0766
송순천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461-4166
김경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1798
조창구	인제군 남면 어른 1/1반	461-6191
이연우	인제군 인제읍 상동 4/3반	461-4843
길순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8862
정순덕	인제군 인제읍 합강 1/4반	461-4300
전민아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2050
박종윤	인제군 남면 어른 1/4반	461-6370
장현귀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7209
박경옥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반	461-4817
이수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 1/5반	461-2784
김진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4/4반	461-3734
김두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4/4반	461-2832
유석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461-2832
하광수	인제군 인제읍 남북 2/4반	461-2039
최광일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7064
오혜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1430
김도완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0364
노필예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0364
김정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반	461-2195
백정흠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2767
박귀임	인제군 북면 원통 7/2반	461-4898
장재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62-3669

성명	주소	전화번호
허영숙	인제군 북면 원통서호APT	462-1873
강여숙	인제군 북면 원통서호APT	462-6329
강현정	인제군 북면 원통서호APT	462-8939
엄규완	인제군 상남면 상남 3/2반	462-6789
전상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4289
전광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461-
김관빈	인제군 상남면 상남 1/3반	462-6734
박용구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042
심상우	인제군 서화면 천도 4/3반	462-5187
김은필	인제군 기린면 현 1/5반	461-5155
정병석	인제군 기린면 현 1/2반	461-5063
김영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2/5반	461-4208
김성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4/3반	461-1036
김영숙	인제군 인제읍 합강 3/2반	461-4050
최은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9623
이영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반	461-4758
이희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4/7반	461-3578
안미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 4/2반	461-2920
김영옥	인제군 인제읍 합강 3/1반	461-5060
황영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2리	461-2473
강순옥	인제군 인제읍 남북 1/3반	461-2877
한길자	인제군 인제읍 합강 2/2반	461-2414
심정미	인제군 기린면 현 5/8반	461-6968
이춘녀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낙원APT	461-0818
김경애	인제군 인제읍 상동 1/7반	461-9910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유지녀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61-2985
변순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1/2반	461-8770
마용봉	인제군 기린면 서1리	461-5611
김대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61-2868
정광벽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61-2686
김상혁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461-0309
장성만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461-6754
심상용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461-2185
방효정	인제군 인제읍 남북 2/6반	461-5050
이동수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2반	461-2974
박형석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61-1045
박장훈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18
신정수	인제군 북면 원통 6/1반	461-9423
임준호	인제군 북면 원통 2/3반	461-3156
엄덕영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9337
박근성	인제군 북면 원통 6/2반	461-7526
최해석	인제군 북면 원통 8/1반	461-6250
김동섭	인제군 서화면 서흥 2/3반	462-7843
심재희	인제군 북면 원통 1/4반	461-3545
이순실	인제군 북면 원통 7/2반	461-3183
박동일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18
김민호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18
이승현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18
정태환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2-2274
김진하	인제군 북면 용대 2/3반	462-5164

## '97년 문화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기간(일시)	장 소	참석인원	사 업 내 용
마을농악기보급	97. 2. 21	문화사랑방		월학1리, 갑둔2리, 가리산리, 서화2리, 부평초등, 신남중학교에 보급
신춘 음악회	97. 3. 28	문 화 관	400	악기연주 및 성악 공연
문화유적지 순례	97. 4. 28~29	강 화 군	90	지역주민대상으로 강화군 유적지 순례
	97. 6. 11	한계사지의 2곳	45	문화가족대상
문화유산보존 강좌	97. 4. 17	문화사랑방	80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관련 강좌
예술단 초청공연	97. 7. 1	문 화 관	450	지방자치 2주년 기념 예술단 초청 공연
미술전	97. 8. 18~22	문화원 전시실	1,200	움직이는 미술관 초청 전시
문화사랑방 운영	97. 7. 1~9. 30	문화사랑방	120	스텔실, 주부가요, 문학강좌를 3개월간 개최
합강문화제	97. 10. 9~10. 10	문화원 외 3곳	1,500	미술, 조각, 공예, 꽃꽂이, 스텐실 사진, 수석, 서예전,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재홍보엽서 제작	97. 11. 1	문 화 원	3,500매	한계산성, 한계사지, 봉정암 석가사리탑, 백담사 목조아파트 불상, 김부탑, 향교, 3층 석탑
사료수집	97. 4월~12월	관 내		사료수집 전시, 사료 수집 원고 수집
사료집 발간	97. 12. 30	문 화 원	2,000부	향토 고유민속사료집 발간
문화지 발간	97. 12. 20	문 화 원	1,500부	인제문화 제12집 발간
문화유적사진전	97. 12	문화원전시실	800	관내유적지 사진전
문화학교 운영	97. 4. 1~12. 30	문화사랑방		풍물, 서예, 전통의례, 꽃꽂이, 홈패션, 주부가요, 강좌 개최

## '98년 문화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장 소	행 사 내 용
농악기 보급		2월	문 화 원	4개 마을과 2개 학교에 농악기 보급 및 육성
문화유적지순례		4월	관외유적지	문화가족대상으로 순례
		5월	관내유적지	문화학교생대상으로 순례
예술단초청공연		7월	문화관	지방자치3주년 기념으로 예술단 초 청축하공연
함강문화제 축제예술행사		9월	문화관	백일장, 시낭송, 문화강좌, 사생실기 대회, 사진·서예·미술·조각·공예·수석·꽃꽂이·스텐실 전시회 등의 개최
사료수집전시, 보고서 발행		4월~12월	야외공원	사료수집 전시/사료집 발간
제13집 문화지 발간		12월	문화원	제3집 문화지 발간 및 보급
가을 음악회		10월	문화원	10월 문화의 달 음악회 개최
문화사랑방 운영		2월~6월	문화관	지역주민대상 스텐실 교실 운영
		2월~6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주부가요교실운영
문화 학교 운영	서예 강좌	년중계획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풍물 강좌	"	문화사랑방	"
	꽃꽂이 강좌	"	"	"
	홈패션 강좌	"	"	"
	청소년 강좌	"	"	관내 청소년(학생) 대상
	전통의례 강좌	"	"	지역주민대상

# 편 집 후 기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금액.....  
97년 사업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수립하던 때가  
어제같은데,  
이제 인제문화 제12집 발간으로 또 한해를 마감한다.

한강에 돌던지기란 옛말이 있듯이  
한해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었지만  
아무리 해도 표 안나는 것이 문화사업이다.

그러나 단 둘의 직원이 해 낸 사업의 열매는  
어딘가에 그 결실이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긍지와 보람으로 다시 거듭 하겠다.

장미향·이만철

## 麟蹄文化 / 第12輯

---

발행인 : 박 해 순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전 화 : (0365) 461-6678

F A X : (0365) 461-4173

인쇄처 : 태 원 출 판 사

인 쇄 : 1997. 12. 10

발 행 : 1997. 12. 20

---

〈비매품〉

이 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 하였습니다.



